

제 3장 통일신라시대

제 1절 개관

고대의 고성에는 삼한시대부터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였다. 4세기 이후 가야연맹이 성립되었을 때, 고성에 있던 가야의 나라를 고자국(固自國)이라고 불렀는데 삼한시대의 고자미동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의 가야에 대해 소가야(小伽倻)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칭은 가야의 여러 나라가 실재했을 때 불렀던 것이 아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 왕건이 경상도 지역 가운데 원신라(原新羅) 지역을 제외한 옛 가야의 여러 지역 가운데 고려에 협조한 5지역의 친고려 세력을 5가야로 지정하여 우대하면서 붙인 별호(別號)나지 아칭(雅稱)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가야시대의 고성은 소가야라고 부른 적이 없었으며, 큰 가야[대가야]에 대해 작은 가야가 아니라 세력이 컸던 가야의 나라였다. 더욱이 ‘가야’라는 단어는 ‘부다가야’의 준말인데, 불교를 숭상하던 통일신라가 전 국토를 불국토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낙동강 서안을 가야라고 불렀던 사실에서 기원한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 서안에 있던 나라들은 가야가 아닌 원래 실재했던 나라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예를 들면 김해의 금관가야는 가락국, 고령의 대가야는 가락국(加羅國), 함안의 아라가야는 안라(安羅) 등으로 고쳐 불러야 할 것이다.

이제 고성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6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낙동강 서안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병합되어 군현을 설치하였을 때 고성을 고자군이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고자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존중하여 ‘국’ 자 대신에 ‘군’ 자를 붙인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경덕왕이 고자군을 고쳐 한자식으로 고성군이라고 부르게 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고자군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인 6세기 후반에는 일시적으로 전쟁이 중단되었고, 삼국은 국가제도의 정비와 국력의 회복을 위해 중국왜와 외교나 대외무역에 힘쓰게 되었다. 그러나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7세기에 동아시아세계는 고구려와 당나라를 주축으로 패권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틈을 타서 백제가 영토의 회복을 위해 신라를 공격하였고 뒤이어 고구려도 신라를 위협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백제고구려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당나라에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하여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김유신의 방어전략과 김춘추의 외교전략을 통해 맺어진 나당동맹으로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신라마저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당의 세력을 한반도 밖으

로 축출시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비록 불완전한 민족통일이기는 하나 신라는 전쟁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애민의를 실천한 것이다. 신라는 통일의 주체적 당사국으로서 동족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제도나 지방군사제도에서 드러나듯이 백제고구려 유민에 대한 광범한 정치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민족융합(民族融合)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그 기저에는 불국토사상(佛國土思想)이 깔려 있었다. 그 후 통일신라는 삼국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 자결을 지향하여 단일국가로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고,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주체적 발전과 새로운 도약관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통일신라는 무열왕계의 강력한 율령적 왕권이 확립된 사회였다. 문무왕대(661~681)에 통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친당적인 귀족층을 제거하였고, 율령제도에 입각한 관료체제가 성립되었다. 특히 신문왕대(681~692)에는 왕의 가까운 측근을 중용하고 6두품 이하의 전문적인 관료군을 흡수하여 관료제를 확립하였다. 특히 그는 중앙지방군사토지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통치질서를 마련함으로써 성덕왕대(702~737)에는 극성기를 이룰 수 있었다. 경덕왕(742~765)은 한화정책(漢化政策)과 같은 제도의 개편과 함께 불국사석굴암의 창건, 성전(成典)제도의 강화, 화엄경(華嚴經)의 보급 등 불교 장려를 통해 왕실의 권위와 신성함을 고양시켰다. 이러한 율령적 왕권은 효소왕성덕왕효성왕을 거치면서 경덕왕 때까지 외척세력이 득세하여 귀족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졌으며, 결국 율령적 왕권은 귀족들의 도전으로 무너지고, 연립한 귀족들에 의해 지배되는 하대사회가 전개되어 갔다.

그럼에도 중대에 성립된 율령적 왕권은 한국 역사상에서 최초의 관료정치로서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원형으로 정착되었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 전통은 그 후 고려·조선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대사회의 정치적 번영과 문화의 융성은 경제사회기반의 확충과 안정에서 온 것이다. 우선 수공업은 귀족의 수요증대나 조공무역의 발달에서 온 결과였지만 신라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우선 수공업은 왕실이나 관청에 의한 관영수공업을 위주로 하되 민간수공업도 발달하였으며, 전문성과 협동성은 산업의 분업을 촉진시켰다. 상업분야에서는 소지왕 12년(490)에 동시전(東市典)을 설치한 이후 통일 후에 이르면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되면서 서울의 상행위가 번창해졌으며 지방의 교통요지나 점차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갔다.

이러한 상공업의 발달은 하대에 이르러 장보고(張保皋)에 의해 신라·당나라·일본의 삼각무역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지방에는 막강한 해상세력으로 발전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개성의 왕건(王建) 가문·강주의 왕봉규(王逢規)·울산의 박윤웅(朴允雄) 등과 같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호족으로 성장하여 나말여초의 정치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통일신라의 정치사회적 안정은 문화의 융성에도 기여하였다. 백제·고구려문화의 발전적인 흡수, 당문물(唐文物)의 수용 등을 통해 왕권의 안정으로 8~9세기는 미증유의 문화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귀족 위주와 불교 중심의 문화일망정, 민족문화의 근간으로서 통일신라문화는 일대 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먼저 유학은 한문학(漢文學) 위주의 특징을 지녔으나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으로서 율령적 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당에 유학한 숙위학생(宿衛學生)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유교적 정치이념을 추진하여 지방사회에도 유교적 전통이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다음 통일신라의 불교는 미타신앙(彌陀信仰)·관음신앙(觀音信仰)·미륵신앙(彌勒信仰)·지장신앙(地藏信仰) 등의 다양한 신앙이 크게 번창하였으며, 불교의 평등·자비사상은 기층민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었다. 이로써 중대의 율령적 왕권이나 사회 안정에 부응함으로써 불국토 내의 정신적인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신라의 문화에는 천문학·수학·도량형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지리·농업기술의 학인쇄술 등에서 과학의 발전을 보였다. 그리고 뛰어난 항해술은 장보고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불교예술의 발달에 따라 불상의 조성에서 뛰어난 기술이 나타나 사원 건축과 탑과 예술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으며, 화엄사 4사자3층석탑 등과 같이 불교 예술은 지방에서도 발달하게 되었다.

삼국시대와 달리 통일신라시대에는 중앙에서 신라적으로 발전한 문화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선진적인 문화는 옛백제·옛가야·옛고구려의 전통을 가진 재래문화와 융합하게 되었으며, 나말여초의 호족은 이와 같은 경향을 적극 반영하여 고려시대 이후 지방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개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제 2절 삼국통일전쟁의 전개와 고성

1. 신라의 삼국통일과 그 과정

7세기는 동아시아세계에 커다란 전란이 있었으며,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589년 중국의 남북조를 통합하여 통일왕조를 세운 수나라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강국 고구려와 긴장관계의 국면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후 동아시아세계는 수나라 및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대결구도로 하여 두 개의 축으로 커다란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는 7세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었는데,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동아시아세계는 동방의 고구려를 비롯한 백제·신라·가야·연맹·왜국 등이

성립하였고, 서방의 중국 남북조와 북방의 유목국가 등이 서로 교류와 대립을 이루는 다원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 시기에는 여러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었다가 파기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와 동맹을 맺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가 전개되면서 전쟁이 많았다.

그런데 6세기 중엽 당시에 중국은 서방의 선비계 토욕혼(吐谷渾), 특히 신흥 돌궐(突厥)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었으므로, 동방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554년의 관산성(管山城) 전투와 562년의 가라국 멸망을 분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동안 전쟁이 거의 없어졌으며, 이로써 평화로운 소강상태로 변하여 중국과는 주로 외교관계가 지속되었다.

백제 성왕은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에 신라가 자신의 속국이라고 한 거짓말이 탄로가 나고 한강유역회복작전에서 신라를 기만하려다가 실패한 뒤에¹⁾ 3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공하였다가 관산성에서 신라에게 역전패 당하였다. 이때 가라국의 백제의 편을 들어 함께 신라를 공격하였다가 가라국의 군대도 모두 전멸하였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신라는 561년에 창녕의 비사벌주(比斯伐州)에 전군을 집결시켜 훈련을 한 다음, 562년에 가라국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 시기의 고자국도 낙동강 서안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신라에 병합되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후 고성지역도 신라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다.

589년 이후 수나라가 중국의 남북조를 통일하고 고구려와 대립하면서 긴장관계로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수나라는 중국왕조 중심의 중화적인 일원적 조공책봉질서(朝貢冊封秩序)를 확립하려고 하여 주변의 주요 세력들을 통합하거나 복속시켰고 마지막으로 고구려에 대해 압박을 가중시켰다. 612년 수 양제(煬帝)는 113만이라는 엄청난 대병을 동원하여 육지와 바다 양 방향으로 속전속결로 일거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려 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방어전을 펼쳐 성곽을 중심으로 하여 농성전(籠城戰)과 청야전(淸野戰)으로 맞섰다. 고구려는 수나라 군대의 최대 약점인 긴 보급선을 교란시키고 차단하면서 가을이 되어 추위와 보급 부족에 시달리게 되기를 기다리는 지구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수나라는 무리한 전쟁으로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하였다. 618년에 건국한 당나라는 국내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력을 정비하기 위해 고구려와 화친을 맺어 일정 기간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의 국제관계는 대체로 당나라와 신라의 친선관계가 두드러졌으며, 고구려와 백제는 당나라와 대립하였다. 이러한 정세 아래에서 백제는 잃어버린 영토를 찾기 위해 신라를 줄기차게 공격하였다. 602년 백제의 무왕은 즉위 3년만에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나제간의 전쟁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백제는 6만 대군을 동원하여 신라 남원의 아막산

1) 宣石悅,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 『동아시아사의 인물과 라이벌 - 趙東元教授停年紀念論叢』, 아세아문화사, 2008, 246쪽.

성(阿莫山城)을 공격하였으나, 화랑 귀산(貴山)과 추항(籌項) 등의 희생으로 신라군에게 대패하여 무려 4만 병력을 잃고 패전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642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같은 하극상의 사건은 주변 왕조국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당나라는 바로 대응하지 않고 3년간 전쟁준비를 단단히 한 다음, 645년에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 당 태종은 20여 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수륙 양면으로 침공을 기도하였다. 수군은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 남단을 공격하였고, 육군은 요하를 건너 요동평야로 진군하였다. 먼저 신성(新城)과 개모성(蓋牟城)을 점령하고 이어 요동성(遼東城)과 백암성(白巖城)도 공략하였다. 그 다음의 공격 목표는 안시성(安市城)이었는데, 안시성은 요동벌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연개소문(淵蓋蘇文)이 북방 유연(柔然)과의 외교를 통하여 당나라의 후방을 교란하고 안시성에서의 혈전으로 당나라군을 물러나게 하였다.

이후 고구려와 당나라가 패권을 경쟁하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은 두 축과 연결되어 있었다. 백제는 고구려와 보조를 맞추어 신라를 협공하였으며, 신라는 당나라와 연결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당시 신라의 위기를 극복한 핵심 인물은 김춘추와 김유신이었다. 신라는 김유신 등을 통하여 수성(守城)전략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수많은 공격을 잘 막아내었고, 김춘추는 국제외교를 통하여 대외적인 고립을 면하였다.

특히 김춘추는 642년(선덕여왕 11)에 대야성(大耶城) 함락으로 신라가 위기를 맞이하자 고구려 연개소문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가 억류당하는 어리석음을 겪게 되었는데, 이후 국제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고구려·백제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한 국제관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김춘추는 647년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에 가서 고구려·백제의 공격 속에 신라 후방의 적인 왜국을 설득하여 염려를 해소한²⁾ 다음, 648년에 드디어 중국으로 건너가 당나라와 나당동맹을 맺어 삼국통일의 발판을 만들었다.

반면에 고구려와 백제는 국제관계를 이용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먼저 백제는 가야 진출과 538년(성왕 16)에 사비 천도를 통해 국력을 신장시키고 한강유역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신라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7세기에 이르러 백제는 국가의 경제력을 감안하지 않고 외교를 소홀히 하여 공격 일변도의 전쟁을 자주 수행하게 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자 국론이 분열되어 국력이 결집되지 못하여 멸망의 길을 걸었다.

고구려는 5세기에 광개토왕·장수왕·문지명왕 3대에 걸쳐 전성기를 누렸으나, 6세기에 접어

2) 延敏洙, 「新羅의 對倭外交와 金春秋」, 『新羅文化』 37 2011, 30~31쪽.

김춘추의 도왜(渡倭) 기록은 다음과 같다.

“新羅遣上臣大阿浪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顏善談笑” (『日本書紀』 卷25, 孝德紀 大化 3年 是歲條)

들면서 왕위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어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세력이 득세하여 국제적 지위가 차츰 하락하였다. 중국의 통일제국 수당과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립의 각이 커지면서 7세기에는 전쟁 일변도로 나아갔다. 645년 이후 668년 멸망 때까지 대규모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치르게 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자 국론이 분열되었고, 지도층의 분열로 국력이 결집되지 못하여 동아시아의 강대국 고구려는 멸망의 길을 걸었다. 665년 연개소문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들의 권력투쟁이 일어나 지배층이 분열되었으며, 668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 668년까지의 전쟁은 고구려와 당나라를 주축으로 일어난 동아시아 패권전쟁이었다면,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개된 전쟁은 당나라가 신라마저 정복하고자 하고 신라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김춘추와 당 태종과의 사이에 맺은 동맹의 핵심 내용은 당나라가 정벌군을 파병하는 대신에, 신라는 그들 군대에게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미 신라가 알아차리고 있었다. 즉 김춘추김유신 등 신라 수뇌부는 신라에 의한 당나라군의 군수물자 조달이 결국 신라의 국가 경제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이고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배층의 분열이 일어나 친당파(親唐派)가 등장하여 신라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노릴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7세기 전반 대당외교(對唐外交)의 수행과정에서 당나라의 신라 여왕에 대한 불신으로 비담의 난 등 국론분열을 겪었으며, 663년 태종무열왕을 계승한 문무왕을 계림도독(鷄林都督)으로 책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김유신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직접 수행하였는데, 지연작전을 써서 당나라군에게 체매에 물자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당나라군은 수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많이 소모하게 되었으나, 신라는 그다지 피해를 입지 않고 힘을 당나라와 있을 대결을 위한 국력을 최대한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670년 신라가 당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나당전쟁(羅唐戰爭)은 개시되었다.³⁾ 신라는 고구려 검모잠(劍牟岑) 등이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왕으로 추대된 안승(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추대하고, 고구려 및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 2만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당나라군을 공격하였다. 또한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을 금마저(金馬渚 : 전북 익산)로 옮겨 소고구려국(小高句麗國)으로 공인하고 보호함으로써 유민을 규합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였다. 671년까지 신라군은 옛 백제지역의 당나라군을 공략하여 충청남도 일대를 장악하고 부여에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함으로써 백제 유민을

3) 나당전쟁에 대해서는 서영교, 『羅唐戰爭史研究-약자가 선택한 전쟁』(아세아문화사, 2006)이 주목되는 연구이다.

모으고 전지역을 점령하였다.

이에 당나라는 수군을 거느린 설인귀를 파견하였다. 설인귀는 신라왕에게 글을 보내어 신라가 당나라를 배반했다고 비난하면서 당나라의 대병력이 오고 있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맞서 문무왕은 강수(強首)가 작성한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를 보내어 648년부터 670년까지 신라가 대당관계와 백제·고구려 정벌에 온 국력을 쏟았으나 끝내 당나라에 배신당한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반박하였다. 이후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신라는 당나라의 군수물자 운반선인 조선(漕船) 70여 척을 서해에서 격파하거나 당나라 포로병을 돌려주는 등 전쟁과 동시에 외교를 병행하였다.

한편, 고구려 부흥군을 진압하던 당나라 장수 고간(高侃)과 이근행(李謹行)이 남하해오면서 전쟁은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신라군은 평양 부근 등 고구려 옛땅에서 당나라 군과 공방전을 전개하였는데, 기병을 앞세운 당나라군에게 점차 밀리기 시작하여 칠중하(七重河 : 임진강)를 경계로 격전이 벌어졌다.

이 무렵 대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되자 당나라에서는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하였고, 신라는 서해에 대규모 수군을 배치해 당나라 수군의 침략을 대비하는 동시에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즉 당나라군은 전투병인 육군과 이를 군수 지원하는 수군의 양동작전에 대해 신라도 맞대응한 것이다.

674년 당나라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동생 김인문(金仁問)을 신라왕으로 삼아 신라 지배층의 분열을 책동하는 한편, 유인궤(劉仁軌)·이근행(李謹行) 등에게 많은 군대를 주어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설수진(薛秀眞)의 육진병법(六陣兵法)을 시행하여 군사 훈련을 전개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는 전력과 전술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나당전쟁은 675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당나라의 대병력이 천성(泉城 : 강화군 교동도)으로 쳐들어왔다. 교동도는 예성강·임진강·한강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합류지점으로 육지의 당나라군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하기에 좋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곳 천성전투는 나당전쟁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전투였다. 신라군이 반격해 대승을 거두어 가장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에 당나라는 이근행을 당나라군의 총수로 삼아 20만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하해 왔으나, 신라는 매초성(買肖城 : 경기도 양주) 전투에서 전마(戰馬) 3만 680필을 빼앗고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매초성 전투를 고비로 신라는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여 임진강 방면으로 북진하면서 18차에 걸친 전투에서 당나라군을 격파하였다. 나당전쟁의 마지막 대회전은 기벌포해전으로서 22차의 접전 끝에 대승을 거두어 7년 만에 승리로 끝맺었다. 이에 당나라는 676년 안동도호부는 요동으로, 웅진도독부는 요동의 건안성으로 옮겼다. 그리고

신라는 대동강에서 함경남도 덕원(德源)을 연결하는 선 이남의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이룩한 이후 유언에서 ‘전쟁은 국가경제를 망치고 분열이 일어나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며 국력이 약해져 결국 멸망한다’ 고 경고해 두었듯이 고구려와 백제는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력을 소모하고 국력을 낭비하여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여 결국 이웃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신라는 가능한 전쟁을 억제하여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국가경제를 안정시켜 삼국통일 이후 야욕을 드러낸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였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옛 고구려 땅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이 지속되었다. 당나라의 이민족 지배정책은 기미정책(羈縻政策)이었다. 즉 새로운 점령지에 대한 동화정책으로서 과거 지배자를 전면에서 내세워 괴뢰정부(傀儡政府)를 구성하고 당군의 도호부가 배후에서 조종하였는데, 동방의 동이족에게만은 실패하였다. 5세기부터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거란족의 이진충(李盡忠)은 고구려 정벌에 당나라군의 앞잡이 역할을 하여 독립을 꾀했으나, 인정해주지 않자 696년 독립전쟁을 일으켰다[이진충의 난]. 요서에 유폐되어 있었던 고구려 유민은 무장해체를 당하고 있었는데, 거란과 당군의 핍박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협 속에 대조영(大祚榮)의 아버지 걸걸중상(乞乞仲象)과 걸사비우(乞四比羽)가 집단을 이끌고 요하를 넘어 탈출에 성공하자 고구려의 유민들이 대거 동참하여 추격해오는 당나라군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길림지역의 입구인 천문령(天門嶺)에서 걸사비우가 전사하자 대조영이 지도자가 되어 길림지역으로 탈출하여 그 주변의 속말말갈도 통합하였다. 698년에 동만주의 수많은 말갈집단의 협력을 얻어 대조영은 진(震)을 건국[渤海 시조 고왕(高王 : 698~719)]하였다. 결국 고난 끝에 698년 대조영에 의해 발해가 건국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삼국통일 이후를 남북국시대(南北國時代)라고 명명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 경남지역의 역사에서는 통일신라의 지방이며 발해와의 관계가 아직은 어느 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로 부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이 전개되었을 때 경남지방이나 고성지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경남지방은 원래 가야였으며 고성지역은 그 일원인 고자국이였다. 옛가야 출신으로서 이 시기의 전쟁에서 활약한 인물은 다름아닌 김유신이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고, 전투에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였다. 34세 때인 629년에 신라군이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했을 때 중당당주(中幢幢主)로서 단신으로 적진에 돌입하여 신라군의 사기를 북돋워 크게 승리하는 데 공을 세웠다. 644년에 상장군으로서 백제의 전략상 요충인 가혜성(加兮城)·성열성(省熱城)·동화성(同火城) 등 7개 성을 점령하였고, 645년 정월에는 백제의 매리포성(買利浦城)침입을 격파하였다. 이후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의 즐기찬 공격을 모두 막아내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신라 장수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승장군(常勝將軍)으로 주목되었다. 또한 647년에는 상대등 비담의 난을 진압하여 왕권을 안정시켰고, 654년에는 태종 무열왕의 추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대각간(大角干)이 되었다. 660년에는 상대등(上大等)이 되어 국정의 수뇌로서 삼국통일의 전쟁 과정에서 신라군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삼국통일전쟁에서 국가의 원로로서 고문과 지도적 구실을 하여 신라 진영의 단결과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고구려를 평정한 직후 668년에는 다시 한 등급을 높인 태대각간(太大角干)으로 제수되었다. 한편, 당나라는 665년에 김유신을 봉상정경 평양군개국공 식읍 이천호(奉常正卿 平壤郡開國公 食邑二千戶)로 봉하는 등 유혹의 손길을 뻗쳐 왔으나, 김유신은 국제관계 속에서 당나라가 신라에 대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이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당나라의 침략 야욕을 분쇄할 수 있었다. 문무왕 때에 신라의 일부 귀족들이 당나라의 분열책동에 동조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김유신의 애국정신이 얼마나 투철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신라 통일전쟁에서의 고성군의 역할

김유신이 이러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경남지방의 옛가야인이나 고성지역의 고자국 사람들의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삼국시대 신라의 군사제도는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먼저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는 4세기 전반까지 진한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처음에는 복속소국의 지배자로부터 공납을 받고 그들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간접 지배를 하다가 점차 복속 지배자를 중앙으로 사민하고 그 지역의 통치를 위해 도사(道使)가 파견하였다. 지증왕 때에 이르러 지방통치제도를 정비하였는데, 505년에 주군(州郡)제도를 실시하여 주와 군이 여러 행정촌(行政村)을 관할하였던 것이다. 또한 주를 비롯하여 군에는 지역 방어를 위해 성을 축조하였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행정촌에도 성이 축조되었다. 이로써 볼 때 신라의 지방통치는 주-군-촌성의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큰 성에 설치한 주의 장관을 군주(軍主), 중간 정도 규모의 성에 설치한 군의 장관을 당주(幢主)라 하였으며, 행정촌에는 도사를 파견하여 토착지배자인 촌주가 지배층을 거느리고 지방통치에 협조하였다. 한편, 몇 개의 자연촌락을 장악한 행정촌은 통일기에 들어와 현(縣)으로 개편되었다. 6세기 전반기 신라의 사정을 기록한 것으로 짐작되는 중국 정사인 『양서(梁書)』 신라전에는 왕경 안에 여섯 개의 탁평(啄評), 지방에 52개의 읍록(邑勒)이 있었다고 했

는데, 이 읍락이 군에 해당된다. 이는 군정적인 성격을 띠어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때때로 중심을 이동하였는데, 진흥왕 때에 이르러 주군제는 완비되었다. 실직주[悉直州 : 강원도 삼척, 505년 설치], 사벌주[沙伐州 : 일명 상주(上州), 경상북도 상주, 525년 설치], 신주[新州 : 경기도 광주, 553년 설치], 비사벌주[比斯伐州 : 일명 하주(下州), 경상남도 창녕, 555년 설치], 달홀주[達忽州 : 강원도 고성, 568년] 등이다.

한편, 주군제도와는 별도로 왕경을 모방해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소경(小京)을 설치하였다. 소경은 아시촌(阿尸村 : 경상북도 의성, 514년 설치), 국원(國原 : 충청북도 충주, 557년 설치)에, 하슬라(何瑟羅 : 강원도 강릉, 639년 설치)에 순차적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들 소경에는 왕경 6부의 진골을 비롯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의 소경은 주군이 군정적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 확장을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소경이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과는 달랐다. 장관은 사신(仕臣 : 일명 사대등(仕大等))이라 하여 중앙에서 파견하였었다.

삼국시기 신라의 군사제도는 처음에 왕경(王京) 6부의 소속원을 군인으로 징발해 이른바 육부병(六部兵)을 편성하여 왕경을 수비하거나 대외전쟁을 수행하였다. 국왕은 군사지휘권을 총괄하게 되었다. 6세기에 이르러 율령제도가 갖추어지면서 병부(兵部)가 설치되어 군사지휘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왕은 전국적인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전쟁은 귀족출신의 무장을 보내어 전쟁을 수행하였다. 병부의 관리 아래 독립된 단위부대는 흔히 군대깃발의 뜻을 가진 당(幢)이라고 불렀고 그 지휘관을 당주 또는 당의 장군이라고 하였다.

삼국간의 항쟁이 격화된 진흥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544년에 종래 왕경 6부민으로 편성했던 부대를 통합해 대당(大幢)을 편성한 다음 왕경 주위의 6개 주둔지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이는 중고시대 군사력의 기본이 되는 6정(停)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550년대에 영토의 비약적인 확장과 더불어 점령지의 최전방에 주를 설치하고, 주마다 군단을 설치한 결과 종전의 대당 이외에 상주정(上州停)·신주정(新州停)·비열홀정(比列忽停)·실직정(悉直停)·하주정(下州停) 등 모두 6정이 편성되었다. 6정 군단은 주치(州治)에 배치되어 주의 이동과 함께 소재지가 이동되었다. 대당을 제외한 이들 5개의 정은 모두 지방민을 징발해 편성된 부대이다. 544년에 설치된 삼천당(三千幢)은 국왕에 의해 왕경인 가운데서 모집하여 편성한 부대로 삼국통일 후 군제 재편성 과정에서 10정 군단의 주요한 모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소모병(召募兵)은 583년에 서당(誓幢)이, 그 뒤 625년에는 다시 낭당(郎幢)이 설치되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들 부대의 병사들은 군인이 되는 것을 괴로운 의무이기보다는 오히려 명예로운 권리로 생각해 전투에 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용전하였다.

6정 외에 고성군과 같은 군을 단위로 볼 때 주목되는 군단은 법당(法幢)이 있었는데, 법흥왕 때 율령이 반포되면서 지방의 성과 촌을 단위로 설치되었다. 법당은 군을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군의 방어와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당군단은 군의 지방장관인 당주가 지휘하였는데, 신라의 지방관이 군정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신라의 군대 구성원은 일부분에서 왕경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대부분 지방민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군-촌성의 체제 하에서 촌주가 주관하여 촌락을 단위로 정남(丁男)을 차출하여 6정 가운데 5정의 군인과 군 단위의 법당 군인으로 충당하였다. 일반 촌락민은 조세 부역 외에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라의 군인은 각각의 군단에 소속되어 백제-고구려와의 전쟁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고성군도 일정한 역할을 맡아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고성군은 562년에 신라에 의해 고령의 가라국이 멸망한 직후에 병합되었는데, 영현(領縣)으로는 일선현(一善縣)과 사물현(史勿縣) 문화량현(蚊火良縣) 3개가 있었다. 고성군은 현재의 고성읍을 중심으로 편제되었으며, 고성군 남반부와 통영시 지역의 촌락들이 소속해 있었다. 일선현은 현재의 영현면을 중심으로 편제되었으며, 고성군 북반부 지역의 촌락들이 소속해 있었다. 그리고 사물현은 원래 사물국(泗勿國)으로 고자국 소속 지역이 아니다. 사물국은 고자국과 함께 가야 소속의 나라로서 포상팔국(浦上八國)이었는데, 가라국이 멸망한 562년 직후에 신라에 병합되어 현재의 사천시 지역의 여러 촌락으로 편제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량현은 상리면을 중심으로 고성군 서반부 지역의 촌락들이 소속해 있었다.

고성군 출신의 군인들은 하주정에 편입되거나 고성군의 법당 군인으로 편성되었다. 7세기에 이르러 삼국간의 전쟁이 치열해지자 6정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하주정의 군인들은 전쟁에 참가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수행하였다. 법당군단의 경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 고유의 임무에서 보듯이 자신의 고을을 지켜 치안을 유지하여 국내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전방의 6정이 전쟁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민의 역할이다. 다른 주-군-촌성과 마찬가지로 일반민은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군량이나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조달하느라 매우 힘든 삶을 영위하였을 것이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은 유조(遺詔)를 남긴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왕의 유언은 다음과 같다.

“과인은 어지러운 운을 타고 태어나 전쟁의 시대를 만났다.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평정하였고, 배반하는 자는 정벌하고 협조하는 무리와는 손을 잡아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평안히 하였다. 위로는 조상들이 남긴 유명을 달래었고 아래로는 부자의 목

은 원수를 갚았으며,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에게 상을 공평히 주었고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고르게 주었다.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으며 백성을 어질고 천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금을 가벼이 하고 요역을 줄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백성들은 만족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에 근심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곡식이 산처럼 쌓이고 감옥은 죄수가 없어 풀이 우거졌으니, 신령에 부끄럽지 않고 관리와 백성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스스로 온갖 고생을 무릅쓰다가 마침내 낫기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정치와 교화에 근심하고 애쓰느라 더욱 위중한 병이 되었다. 죽고 나면 이름만이 남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니 홀연히 어두운 죽음으로 가는 것에 어찌 여한을 품겠는가? 태자는 일찍부터 밝은 덕을 쌓았고 오랫동안 태자의 자리에 있었으니, 위로는 여러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못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를 보내는 도리를 어기지 말고 살아있는 이를 섬기는 예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위서는 안 되니 태자는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산과 골짜기도 변화하는 것이고 사람의 세대도 바뀌어 옮겨가니, 오나라 왕의 북산(北山)무덤에서 어찌 금향로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위나라 왕의 서릉(西陵)망루에는 단지 동작(銅雀)이라는 이름만 들릴 뿐이다. 지난날 만사를 다루던 영웅도 끝내는 한 무더기 흙이 되어, 나무꾼과 목동이 그 위에서 노래 부르고 여우와 토끼가 그 옆에 굴을 파게 되는 것이다. 헛되이 재물을 쓰는 것은 역사서에 꾸짖음만 남길 따름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도 죽은 이의 넋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 내가 숨을 거두고 열흘이 지나면 곧 창고 문 앞 바깥의 뜰에서 불교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 상복을 입는 법도는 정해진 규정을 따르되 장례의 절차는 반드시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라. 변경의 성과 요새, 주와 현의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 율령과 격식에 편치 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고치도록 하라. 멀고 가까운 곳에 포고하여 나의 뜻을 알리도록 할지니, 주관하는 이는 시행할지이다.”⁴⁾

위의 유언은 ① 삼국통일의 완성, ② 전쟁 후의 포상, ③ 국민의 조세 감면과 민생 안정,

4) 秋七月一日 王薨 諡曰文武 群臣以遺言葬東海中大石上 俗傳王化爲龍 仍指其石爲大王石 遺詔曰 “寡人運屬紛紜 時當爭戰 西征北討 克定疆封 伐叛招攜 聿寧遐邇 上慰宗祧之遺顧 下報父子之宿冤 追賞遍於存亡 疏爵均於內外 鑄兵戈爲農器 驅黎元於仁壽 薄賦省徭 家給人足 民間安堵 域內無虞 倉廩積於丘山 囹圄成於茂草 可謂無愧於幽顯 無負於士人 自犯冒風霜 遂成痼疾 憂勞政教 更結沈痾 運往名存 古今一揆 奄歸大夜 何有恨焉 太子早薨 離輝 久居震位 上從群宰 下至庶寮 送往之義勿違 事居之禮莫闕 宗廟之主 不可暫空 太子卽於柩前 嗣立王位 且山谷遷賢 人代推移 吳王北山之墳 詎見金烏之彩 魏主西陵之望 唯聞銅雀之名 昔日萬機之英 終成一封之土 樵牧歌其上 狐兔穴其旁 徒費資財 貽譏簡牘 空勞人力 莫濟幽魂 靜而思之 傷痛無已 如此之類 非所樂焉 屬纊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 以火燒葬 服輕重 自有常科 喪制度 務從儉約 其邊城鎮遏及州縣課稅 於事非要者 並宜量廢 律令格式 有不便者 卽便改張 布告遠近 令知此意 主者施行”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 下 21年)

④태자의 후계 계승, ⑤ 전쟁의 비극과 인생의 무상, ⑥검소한 불교식 화장 등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남긴 말을 통해 보면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먼저,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벼슬을 고르게 주었다.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으며 백성을 어질고 천수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금을 가벼이 하고 요역을 줄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백성들은 만족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에 근심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곡식이 산처럼 쌓이고 감옥은 죄수가 없어 풀이 우거졌으니, 신령에 부끄럽지 않고 관리와 백성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고 하여 전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였다. 다시 말하면 삼국통일에 진력을 다한 왕경인과 지방민에 대해 벼슬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외위제(外位制)를 폐지하여 경위제(京位制)에 편입하여 관등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왕경인과 지방민의 차별을 없애버렸다. 더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기를 녹여 농기구로 만들어 보급하여 철기농경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세금을 감면하여 전쟁에 찌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태평하도록 하였다. 유교정치이념을 시행하여 소위 신라적인 민본정치(民本政治)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음, ‘헛되이 재물을 쓰는 것은 역사서에 꾸짖음만 남길 따름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도 죽은 이의 넋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와 같은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 내가 숨을 거두고 열흘이 지나면 곧 창고 문 앞 바깥의 뜰에서 불교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 상복을 입는 법도는 정해진 규정을 따르되 장례의 절차는 반드시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라. 변경의 성과 요새, 주와 현의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모두 헤아려 폐지하고 울령과 격식에 편치 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고치도록 하라.’ 고 하여 사치와 낭비를 줄여 경제력을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상을 겪었으므로 국왕의 장례식을 1년이나 지속하는 장례의식을 폐지하고 불교식 화장으로 간편하게 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변경이나 지방의 국민에 대한 세금 등의 부담을 줄이도록 울령격식 즉 국법을 개혁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무왕 유조는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더 이상 헛되이 하지 않도록 유교와 불교를 장려하고 민의 부담을 줄여 그들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제 3절 통일신라의 지방제도와 고성군

676년 신라는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이후 시행해야 할 시급한 업무는 두 배 이상 넓혀진 영토와 주민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선 중앙정부를 확대 정비하고 확대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 국가 통치조직의 정비와 9주 5소경 제도

먼저 중앙정부의 정치기구는 법흥왕 때부터 시작되어 당나라의 유교적인 육전조직(六典組織)을 응용하면서 신문왕대에 일단락되었다. 그 과정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라 주요 관부의 설치과정

해당 왕대	연대	관부 명칭	담당 업무
법흥왕 3년	516	兵部	군사 및 전쟁
진평왕 3년	581	位和府	관리의 인사 관리
진평왕 6년	584	調府	조세 공납
진평왕 6년	584	乘府	마정(馬政)
진평왕 8년	586	禮部	의례·교육·외교
진평왕 43년	621	領客府	외교 사절 접대
진덕왕 5년	651	執事部	왕권 보좌 및 국가 기밀 사무
진덕왕 5년	651	倉部	국가 재정 관리
진덕왕 5년	651	左理方府	형법 관리
무열왕 6년	659	司正府	관료 규찰(糾察)
문무왕 7년	667	右理方府	형법 관리
문무왕 17년	677	左司祿官	녹봉 녹읍 관리
문무왕 18년	678	船府	수군
문무왕 21년	681	右司祿官	녹봉 녹읍 관리
신문왕 6년	686	例作府	토목 영선(營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흥왕 때에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지배를 체계화하였다. 516년 병부를 설치하면서 신라 중앙관부의 정비는 개시되어 진흥왕·진평왕대를 거쳐 본격적으로 여러 관청을 설치하고,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신문왕대에 예작부를 끝으로 완전히 정비되었다. 그 과정에서 진평왕 때에 당나라 정치제도를 수용하여 그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651년 진덕왕이 왕실의 측근기구였던 품주(稟主)를 업무적으로 분리하여 집사부(執事部)와 조부(調府)라는 정식의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하면서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계가 강화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신라 관제 정비의 기본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관직체계도 영(令)-경(卿)-대사(大舍)-사(史)의 4등급체계에 전문적인 실무직인 사지(舍知)를 신설하여 영-경-대사-사지-사의 5등급체제로 확대 정비하여 국가행정을 조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였다.

이전의 법흥왕 때에 설치된 상대등은 국가 최고의 의결기구인 대등회의(大等會議)를 주관

하여 왕권과 귀족세력의 교량 역할을 하였다. 그 이전 마립간시기부터 있었던 귀족회의에는 국왕 및 갈문왕이 참여하였으나,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등장하면서 국왕과 갈문왕은 제외되어 대등회의는 국왕의 명령을 검토하여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국왕의 권위는 초월적인 존재로 격상되었다. 이는 마립간시기에 국왕과 거의 대등한 귀족세력이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로 변화한 것이며, 진덕왕 이후 집사부는 왕명을 출납하여 국가행정을 총괄하는 체제로 왕권이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앙정치조직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영토와 주민을 다스리는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그것은 바로 9주5소경(九州五小京)제도의 실시이다. 통일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옛 땅과 그 유민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국을 균형있게 재편하였다. 이것은 삼국이 각기 다른 통치방식으로 존재해온 삼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강화보다는 삼국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통일신라의 5소경

소경의 명칭	현재 지명	설치 연대	신라 말기의 명칭
中原小京	충청북도 충주	진흥왕 18년(557)	中原府
北原小京	강원도 원주	문무왕 18년(678)	北原府
金官小京	경남 김해	문무왕 20년(680)	金海府
西原小京	충청북도 청주	신문왕 5년(685)	西原府
南原小京	전북 남원	신문왕 5년(685)	南原府

신라는 마립간시기 지방의 주요 거점에 도사를 파견하여 각 촌(村)의 재지세력인 촌주(村主)들과 협조하여 다스렸다. 6세기 초반 지증왕 때부터 주-군-촌제(州郡村制)를 실시하여 지방통치를 체계화하였고, 해당 지방장관은 군주(軍主)-당주(幢主)-도사(道使)로 위계화하였다. 6세기의 주는 중앙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파견된 군주의 성격으로 미루어 지방의 행정과 군사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설치된 주는 상주[上州 : 525년(법흥왕 12), 경상북도 상주], 하주[下州 : 555년(진흥왕 16), 비사벌 즉 경상남도 창녕], 신주[新州 : 553년(진흥왕 14), 경기도 광주], 실직주[悉直州 : 505년(지증왕 6), 강원도 삼척], 비열홀주[比列忽州 : 556년(진흥왕 17), 함경남도 안변]의 5개 주로서 신라의 영역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군사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치(州治)가 빈번히 이동되었다.

삼국통일 이후에는 행정 체계를 중국식으로 바꾸고 9주로 정비하였다. 이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재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지방통치체제 정비의 일환으로서 신문왕 때에 이르러 완비되게 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691년(신문왕 11)까지의 기간은 지방제도가 9주 5소경제로 완비를 보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새로이 설치된 주는 소부리주(所夫里州), 완산주(完山州), 웅천주(雄川州), 무진주(武珍州), 청주(靑州), 사벌주(沙伐州)가 있다. 여기서 웅천주, 무진주, 사벌주는 주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치소(治所)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9주제의 정비는 삼국시대와는 달리 고정된 행정구역으로서의 주제(州制)가 정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제도가 다른 정치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의해 일정한 계획 하에 정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주의 아래에 군·현·촌을 두었는데, 행정조직으로서의 주-소경-군-현-촌의 행정체계는 주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체계였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하달되거나 아래에서 보고되는 과정일 뿐이며, 직접적인 지배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의 장관을 처음에는 군주라 했는데, 군주라는 명칭은 505년에 실직주군주 이사부(異斯夫)의 임명 기록에 처음 나타난다. 이때부터 각 주의 설치와 폐지 이동과 함께 군주의 임명 기록이 나타난다. 통일을 전후하여 군주는 총관(摠管)이라는 명칭과 혼용되었다. 총관이라는 명칭은 순수한 군관직명으로 통일을 전후해 중국 당나라 제도(唐制)의 모방에서 비롯된 장군의 별칭에 불과한 것이다. 즉 통일 이전에는 주의 장관을 군주라 불렀던 것이며, 통일 이후에는 도독(都督)으로 개칭되었다.

군주의 역할과 임무는 뒤의 도독과는 달랐다. 초기의 주는 군관구(軍管區)의 성격을 띠었고, 그 주둔군은 6부민으로 편성된 중앙군이였다. 결과적으로 군주도 군사령관의 임무를 위주로 하되, 행정도 함께 책임지는 지방관의 역할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후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지방통치가 복잡해지자 중앙에서 태수와 현령 등을 지방관으로 파견하여 행정을 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주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감독관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소경(小京)은 514년(지증왕 15) 아시촌(阿尸村)에 처음 설치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확장된 새로운 영토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군사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시촌소경의 경우가 소경에 주민을 사민한 최초의 예이며 충주의 국원소경도 마찬가지로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 이후 신주 후방의 후원기지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원소경에는 주로 가야인들을 사민시켜 가야문화가 계승되어 통일 후 신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북원소경은 639년(선덕여왕 8)에 하슬라(何瑟羅 : 강원도 강릉)에 설치되었다. 그 이전의 512년(지증왕 13)에는 하슬라주를 설치하였다가 진흥왕대에 와서 동북지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556년

(진흥왕 17)에 비열홀주(比列忽州 : 함남 안변)로 복진하여 설치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685년(신문왕 5) 서원소경남원소경이 설치되어 5소경체제가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소경은 그 설치목적이 다른 단위 행정구역과 달랐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소경의 구조와 관직을 보면, 특수한 성격이 뚜렷이 나타난다.

소경의 장관을 사신이라고 한 것은 564년(진흥왕 25)의 일이며, 565년에 처음으로 국원소경(國原小京 : 충청북도 충주)에 아찬(阿飡) 춘부(春賦)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소경의 관직으로는 장관인 사신(仕臣 또는 仕大等)과 그 보좌관인 사대사(仕大舍 또는 少尹)가 있었다. 신라 하대에 김양(金陽)의 관력(官歷)을 보면 고성군태수(固城郡太守)를 역임하고 중원(中原)의 대윤(大尹)을 거쳐 무주도독(武州都督)으로 전보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사신은 도독과 태수의 중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소경이 갖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장관인 사신은 직책상으로 도독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신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특수한 직책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사신의 아래에는 그 보좌관으로서 사대사(仕大舍) 혹은 소윤(少尹)이라는 직책이 있었다. 관등 상으로 보면 사신이 급찬에서 파진찬으로, 사대사가 사지에서 대나마로 되어 있어 주의 장관인 도독이 급찬에서 이찬으로 임명되는데 비해 조금 낮은 관등으로 되어 있다. 소경은 서울의 많은 인구를 분산시키는 목적 외에 무력으로 정복한 지역의 지배층 및 주민을 연고지로부터 이곳으로 사민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를 단절시키고 재기를 방지하여 중앙집권적 지배체제하의 직할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나아가 소경은 지방의 문화적 중심지로 작용하면서, 왕도(王都) 경주가 신라 영토의 동남쪽에 치우친 한계를 극복하는 구실도 담당하였다. 그리고 강수를 중원소경(中原小京 :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의 사랑부(沙梁部) 출신이라 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소경의 행정제도는 신라 서울인 왕경(王京)의 6부와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원소경에는 우륵(于勒)이나 강수(强首)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었다. 우륵은 대가야 사람으로 가실왕(嘉實王)이 중국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들게 하고 12곡을 짓게 하였다. 그 후 진흥왕 때에 제자 이문(尼文)과 함께 신라에 투항해 국원에 안치되었으며, 진흥왕의 명령으로 법지(法知)·계고(階古)·만덕(萬德) 등 3인의 신라인에게 음악을 전수해 가야악(加耶樂)·가야무(加耶舞)가 크게 성행하였다. 대가야인 강수도 아버지와 함께 국원으로 이주하였다.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과 함께 강수는 신라의 3대 문장가이자 유학자로서 육두품 신분이라는 신분적 한계 속에서도 높은 유교적 교양과 학식 그리고 뛰어난 문장력으로 신라 사회와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인 것이다. 태종무열왕이 당나라에서 보낸 난해한 외교 문서를 강수가 해결하여 특별히 등용되었으며, 나당전쟁 때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를 지

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치고 가야의 학문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소경은 점차 지방문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남원소경(南原小京)의 경우 보덕국(報德國)이 해체된 이후 고구려유민들이 이주한 곳으로 고구려의 음악이 유행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왕산악(王山岳)이 중국 진(晉)나라의 칠현금(七絃琴)을 개량하여 거문고로 발전시켰는데, 신라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옥보고(玉寶高)-속명득(續命得)-귀금(貴金)으로 전수되었다. 귀금이 지리산에 입산하여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왕은 금도(琴道)가 단절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율흥(允興)이 왕명을 받들어 남원경(南原京)의 사신으로 부임할 때 총명한 소년 안장(安長)과 청장(淸長) 두 사람을 뽑아 지리산 운상원(雲上院)에 보내어 귀금에게 거문고 타는 법을 배우게 하였으나 귀금은 그 기술을 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에 율흥이 직접 귀금을 찾아가서 예의와 정성을 다하여 비법을 전수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후 귀금은 비법을 안장에게 전해주고 안장은 극종(克宗)에게 전하여 널리 퍼졌다 한다.

삼국통일 이후 전국을 9주로 구획하고 주를 단위로 하여 지방을 통치하면서 주의 장관은 군현·소경을 총괄하는 행정관이 되었고 명칭을 중국식으로 도독이라 개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에 배치되었던 군단은 다시 정비되어 각 주에 상설 군영으로 배치되었는데, 10정이 주축을 이루었고, 지휘자는 순수한 군관직인 장군이였다. 다시 말하면 군주라는 관직은 통일 후에 이르러 주의 행정관인 도독과 군사령관인 장군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경우 군주 외에 주에는 그 아래에 당주와 도사가 있어 지방민을 직접 통치하였으며, 지방민으로 편성된 군단을 통솔하고 지방민 동원이나 징세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통일 후 군주의 명칭이 도독과 장군[또는 총관]으로 분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당주는 하급 군관직과 군태수직으로 분화되고 도사는 소수(少守) 및 현령으로 개칭되었다. 이리하여 통일 후에는 행정 구역이 확정되고 도독·사신·군태수·소수·현령의 지방관체제가 성립되었다.

<표 3> 통일신라의 9주와 군현수

주의 명칭과 치소			군의 수		현의 수	
원래의 명칭	경덕왕대의 개칭	현재 지명	『삼국사기』 지리지	경덕왕 16년 개정	『삼국사기』 지리지	경덕왕 16년 개정
沙伐州	尙州	경상북도 상주	10	10	31	30
敵良州	良州	경남 양산	12	12	40	34

菁州	康州	경남 진주	11	11	30	27
漢山州	漢州	경기도 광주	28	27	49	46
首若州	朔州	강원도 춘천	12	11	26	27
河西州	溟州	강원도 강릉	9	9	26	25
熊川州	熊州	충남 공주	13	13	29	29
完山州	全州	전북 전주	10	10	31	31
武珍州	武州	광주광역시	15	14	43	44
합계			120	117	305	293

6세기 초에 주군촌제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복속소국을 온존시킨 지방통치체제는 변화되었다. 4~5세기에 신라는 복속된 소국(小國)의 중심 읍락, 또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거점을 설정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복속 소국의 중심지인 국읍을 군의 치소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삼한시대 변한 반로국(半路國 : 경상북도 성주)의 경우 과거의 중심 국읍이 군치(郡治)로 설정되지 않고 본포현(本彼縣)으로 두었던 점, 진한 비사국(不斯國 : 경남 창녕)의 경우 국읍은 상약현(尙藥縣 : 경남 창녕 영산면)이 되고 다른 곳에 비사벌군(比斯伐郡 : 경남 창녕 창녕읍)을 설치한 점이다. 변한 독로국(瀆盧國)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운데, 원래 북천동집단은 독로국의 국읍이었다. 라이벌 세력인 연산동집단이 신라의 지원을 받고 거칠산군(居柒山郡 : 부산광역시 연제구)으로 설정되고 이후 고려시대까지 동래군(東萊郡)으로 존속하였다가 조선시대에 현재의 동래구 지역으로 치소가 옮겨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신라는 중앙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교통로나 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주군촌을 편제한 것이다.

그리고 6세기 당시의 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군의 크기가 아니라 보다 광역적인 것이었다. 591년(진평왕 13)에 건립된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에 의하면 군 단위의 영역이 2배 이상 넓었다. 예를 들면 아량촌[阿良村 : 함안, 변한 안야국(安邪國)]이 군의 치소로 되고 영고촌(營土古村 : 고성군 영현면)·칠토현(柒吐村 : 함안군 칠월면)·노함촌(奴含村 : 의령군) 등 현재의 3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나의 군으로 편제하였다. 7세기 진평왕 이후에는 군 아래의 행정촌을 현(縣)으로 신설하였는데, 통일신라시대의 군 정도의 크기로 분화 정비되었다.

복속 소국의 읍락은 기본적으로 지연 단위였는데, 삼국시대 이후에도 행정촌으로 편제되어 여전히 지방통치의 기본 단위로 존재하였다. 읍락 내지 행정촌은 여러 개의 자연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국가는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이들 중 유력한 자연촌을 대표로 하여 행정의 중

십촌으로 삼았던 것이다. 7세기 이후에 이르러 지방통치가 더욱 정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현제를 수용하여 행정촌을 군 아래의 현으로 편제하여 주군현제로 정비되었다. 또한 신라는 과거의 행정촌 내부에 있던 여러 자연촌을 몇 개의 행정촌으로 묶고 토착지배층을 촌주 등으로 편성하였다. 군 단위로 촌주층을 진촌주(眞村主)와 차촌주(次村主)로 위계화하여 보다 세분화된 지방통치조직을 구성하였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현의 편제과정에서 변동이 있었던 이유는 6세기까지 신라의 지방통치체도가 삼국간의 경쟁과정에서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다가 삼국통일 이후 평화로운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민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져 조세 수취를 위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재정운영의 원천인 조세를 제대로 수취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인구의 많고 적음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687년(신문왕 7)에 문무관료전(文武官僚田)을 지급하고 이어 2년 뒤인 679년에 중앙과 지방의 관료의 녹읍(祿邑)을 폐지하였다고 하였고, 722년(성덕왕 21)에 백성정전(百姓丁田)을 지급하였다. 특히 백성정전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국민의 농토 즉 민전(民田)을 국가가 법적으로 공인해주어 귀족이나 지방세력가들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여기에는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라고 하는 유교적 왕토사상(王土思想)이 적용되어 국가가 민전의 안전한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국가가 조세를 부과한다는 합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은 신라가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주를 확인하는 양전(量田)사업이 시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의 지방체도가 과거의 주군촌제도에서 주군현제도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때문이었다. 삼국시대처럼 과거 소국의 체제를 온존시키거나 군사적 중요성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양전사업을 토대로 한 토지 및 인구의 다과를 기준으로 주군현으로 차등적인 체계로 편제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통일신라시대의 강주와 고성

9주 5소경 가운데 경남지역에 위치한 것은 금관소경과 양주 및 강주 관할의 군현이다. 양주(良州)는 원래 삼량주(歙良州)라 하는데, 그 치소도 삼량주(양산시)이다. 삼량주는 5세기 초 파견되었을 때의 박제상의 칭호는 삼량주(歙良州)의 간(干) 또는 삼라군(歙羅郡) 태수(太守)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시의 표기방식으로 보면 ‘량(良)’ 보다 ‘라(羅)’ 가 먼저 사용된 점에서 ‘삼량’ 보다 ‘삼라’ 로 썼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주군보다 삼라촌(歙羅村)으로 칭해졌을 것이다.

665년(문무왕 5)에 상주(上州)와 하주(下州)의 땅을 일부씩 나누어 삼량주를 두었다가 경덕왕 때 양주로 고쳐 9주 가운데 하나로 하였다. 양주의 경우 금관소경을 비롯하여 12개의 군과 40개

의 현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 군과 5개의 현만 경남에 위치하였다. 나머지는 부산광역시 1개 군과 2개의 현, 울산광역시에 1개 군과 4개의 현, 그리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7개 군과 30개의 현이 위치하였다. 경덕왕 16년(757)에 군현의 명칭을 이두식에서 한자식으로 개칭하면서 현의 수도 조정하였는데, 40개의 현 가운데 6개의 현을 폐지하고 34개의 현으로 정비하였다. 이들 폐지된 6개의 현은 경남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주는 원래 청주(靑州)라고 불렀다. 662년(문무왕 2)백제의 거열성을 빼앗아 주변 옛 가야 지역의 여러 고을을 포함하여 거타주(居陔州 : 경남 거창)를 설치하였으며, 685년(신문왕 5) 거타주를 나누어 청주(靑州 : 경남 진주)를 두었고 거창지역은 거타군으로 개편하였다. 주치를 거창에서 진주로 옮긴 것은 660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삼국통일 이후 인구의 다과와 토지비옥도의 기준에 따라 비옥한 진주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757년(경덕왕 16) 지방관제를 개혁하여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할 때 지금의 이름인 거창군으로 고쳤다. 그 뒤 757년(경덕왕 16)에 9주의 이름을 고칠 때 강주로 되었다.

강주의 경우 원래 가야의 영역이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11개 군과 30개의 현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에 위치한 고령군과 전북에 위치한 운봉현을 제외하면 모두 경남에 위치하였다. 757년 경덕왕이 군현의 명칭을 이두식에서 한자식으로 개칭하면서 현의 수도 조정하였는데, 30개의 현 가운데 3개를 폐지하고 27개의 현으로 정비하였다. 이들 폐지된 3개의 현은 강주의 굴촌현, 하동군의 성량현, 고성군의 문화량현으로 경남지역에 위치하였다.

이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통일신라시대 강주와 소속 군현

원래 명칭	경덕왕 개명	현재 지명	비 고
청주	강주	진주시	통일신라 9주의 하나
가주화현	가수현	합천군 삼가면	강주의 영현
굴촌현	폐지	하동군 옥종면	
전야산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신문왕 초에 신설
내포현	난포현	남해군 이동면	남해군의 영현
평서산현	평산현	남해군 남면	남해군의 영현
한다사군	하동군	하동군 하동읍	신문왕 초에 신설
성량현	폐지	하동군 금량면	
소다사현	악양현	하동군 악양면	하동군의 영현
포촌현	하읍현	사천시 곤양면	하동군의 영현
고자군	고성군	고성군 고성읍	
문화량현	폐지	고성군 상리면	고성군의 영현
사물현	사수현	사천시	고성군의 영현

일선현	상선현	고성군 영현면	고성군의 영현
아시랑국	함안군	함안군 가야읍	
소삼현	현무현	함안군 군북면	함안군 영현
장함현	의령현	의령군 의령읍	함안군 영현
상군	거제군	거제시 고현동	문무왕 초에 설치
거로현	아주현	거제시 아주동	거제군 영현, 장승포 옥포
매진이현	명진현	거제시 거제면	거제군 영현
송변현	남수현	거제시 동부면	거제군 영현
곶지군	곶성군	산청군 단성면	
적촌현	단읍현	산청군 신등면	곶성군 영현
지품천현	산음현	산청군 산음면	곶성군 영현
속함군	천령군	함양군 함양읍	
마리현	이안현	함양군 안의면	천령군 영현
거열군	거창군	거창군 거창읍	
남내현	여선현	거창군 위천면	거창군 영현
적화현	야로현	합천군 야로면	고령군 영현
가시혜현	신북현	합천군 가야면	고령군 영현
대량주군	강양군	합천군 합천읍	
삼지현	삼기현	합천군 삼가면	강양군 영현
초팔혜현	팔계현	합천군 초계면	강양군 영현
신이현	의상현	의령군 부림면	강양군 영현, 사이기국

591년에 건립된 남산신성비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경우 아라가야와 고자국 등의 지역을 묶어 하나의 광역의 군으로 편제하였다. 즉 아랑촌이 군의 치소로 되고 영고촌·칠토촌·노함촌 등 현재의 3개 군을 하나의 군으로 편제하였다. 7세기 진평왕 이후에는 군 아래의 행정촌을 현으로 신설하여 많은 현이 편제되자 군의 규모는 축소되어 통일신라시대의 군 정도의 크기로 분화 정비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랑촌이 아시랑군 혹은 함안군으로 되고 노함촌이 장함현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신설된 소삼현(함안군 군북면)과 함께 함안군의 영현이 되었다. 그리고 영고촌은 일선현으로 되어 고성군의 영현으로 편입되고 칠토촌은 칠토현으로 되어 곶자군의 영현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경남지역에서 군현의 변동이 발생한 것은 토지 및 인구의 다과를 기준으로 주군·현으로 편제하였을 때 인구의 이동이나 토지의 비옥화·황폐화 등을 헤아려 지방제도를 개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양주와 강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한정시켜 보면, 군현의 폐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경상북도지역의 경우 양주 소속의 3개의 현과 상주 소속의 1개의 현이 폐지되

어 한주의 경우도 1개 군과 3개의 현이 폐지되어 비슷한 비율이었다. 삭주무주는 1개 군이 폐지된 반면 1개의 현이 늘었고, 명주는 1개의 현만 폐지되었다. 웅천주전주는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남지역이 인구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통일신라시대의 고성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고성군에 대한 연혁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고성군은 본래 고자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성군으로)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영현은 셋이다. 문화량현은 지금은 상세치 않다. 사수현은 본래 사물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사수현으로)고쳤다. 지금은 사주이다. 상선현은 본래 일선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상선현으로)고쳤다. 지금은 영선현이다.’⁵⁾

고성군(固城郡)은 본래 삼국시대에 신라의 고자군이라 하였으나, 그 이전 즉 가야 제국의 일원으로서 원래 고자국(古自國)이었으며 삼한시대에는 고자미동국이라고 전한다. 고자국이 신라에 병합된 시기는 562년 가라국이 멸망한 직후였던 것으로 보이며, 신라에서는 국명을 그대로 살려 고자군이라 한 것이다. 고자군은 757년에 경덕왕이 한화정책을 시행할 때에 고성군이라 고쳤으며, 치소는 고성군 고성읍에 위치하였다. 고자국의 고자(古自)는 이두이므로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고(古)’ 자를 ‘고(固)’ 로 바꾸고 이두로서는 고개나 성을 뜻하는 ‘자(自)’ 자를 한자식으로 ‘성(城)’ 으로 고쳤던 것이다. 고성군에는 영현이 문화량현 사수현 상선현 등 3개가 있었다.

첫째, 고찰의 편의를 위해 먼저 사수현부터 살펴보겠다. 사수현은 삼국시대에는 본래 신라의 사물현이라고 불렀다. 사물현은 그 이전 즉 가야 제국의 일원으로서 원래 사물국(泗勿國)이었으며 포상팔국의 하나라고 전한다. 사물국이 신라에 병합된 시기는 562년 가라국이 멸망한 직후였던 것으로 보이며, 신라에서는 국명을 그대로 살려 사물현이라 한 것이다. 사물현은 757년에 경덕왕이 한화정책을 시행할 때에 사수현이라 고쳤으며, 치소는 현재의 사천시에 위치하였다.

둘째, 상선현은 삼국시대에는 본래 신라의 영선현이라고 불렀다. 591년에 건립된 남산신성비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경우 아라가야와 소가야 등의 지역을 묶어 하나의 광역의 군으로 편제하였다. 즉 아량촌이 군의 치소로 되고 영고촌칠토촌노함촌 등 현재의 3개 군을 광역의 군으로 편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내력은 『삼국사기』에는 전하지 않고 당시의 금석문에만 보이는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영고촌의 위치는 고성의 영현면에 비정되는데, 『삼국사기』

5) “固城郡 本古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蚊火良縣 今未詳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 尙善縣 本一善縣 景德王改名 今永善縣” (『三國史記』 卷34, 地理志, 固城郡條)

지리지에 보이는 고성군의 영현인 영선현의 옛 이름이다. 591년 전후에는 영고촌으로 불리다가 7세기 진평왕 때에 중국식 제도인 현제를 수용하면서 영선현으로 개칭되었고, 아울러 광역적인 군의 영역이 축소 조정되면서 당시의 고자군에 소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선현은 757년에 경덕왕이 한화정책을 시행할 때에 상선현이라 다시 고쳤으며, 치소는 지금의 영현면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셋째, 문화량현은 지금 즉 고려시대에는 상세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현을 폐지하여 고려시대에 이르러 그 내력을 알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의하면 진주목 남면 즉 고성군 영현면 남쪽에 문화량을 고현(古縣)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의 고성군 상리면으로 비정하고 있다.⁶⁾ 그러나 문화량현의 위치를 상리면으로 비정한다면, 바로 북쪽에 영선현이 있게 되어 현재의 2개 면에 2개의 현을 편제한 셈이 되므로 당시 신라의 군현의 규모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고자군이 위치한 고성읍을 중심으로 놓고 볼 경우 그 북쪽에 영선현이 있고 바로 인근의 서북쪽에 문화량현이 있고 그 서쪽에 다시 사물현이 있게 되므로, 고자군의 영현이 서부와 북부에 편중된 것처럼 이해된다는 것이다. 즉 그렇게 되면 대가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등 고성군 남부와 동부 일대에는 소속 영현이 하나도 없게 되는데, 아마도 이들 지역은 현보다 큰 행정구역인 고성군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주-군-현 편제는 인정(人丁)의 다과 즉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 지역을 등급화한 것이므로, 고자군과 그 영현의 규모와 위치를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시 영선현이 영현면을 중심으로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등 고성군 북부 일대에 존재한 여러 촌들을 관할하였고, 사물현이 사천시 일대의 여러 촌들을 관할하였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들 현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 고자군이라고 할 때, 고자군은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여 대가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등 고성군 남부와 동부 일대의 촌들을 관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영현들보다 넓은 영역을 관할하였던 것이다.

문제의 문화량현은 상리면을 중심으로 하일면 하이면 삼산면 등 고성군 서부 일대에 존재한 여러 촌들을 관할하였다고 추정된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515년에 일본 장수 모노노베노무라지 [物部連]가 대사강(帶沙江 : 섬진강의 하동 부근)에서 반파(伴跛) 즉 가라국⁷⁾의 군사에게 쫓겨 도망하여 문모라(汶慕羅)에 머물렀다⁸⁾는 관련 기록이 보인다. 문화량과 문모라는 이두로서 음이 거의 같으므로, 같은 지명을 가리킨다. 이 기록을 통해 보면

6)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17쪽.

7) 金泰植, 『加耶聯盟史』, 103쪽.

8)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跛興師伐之 遍脫衣裳 劫掠所齋 尽燒帷幕 物部連等怖畏逃遁 僅存身命 泊汶慕羅” (『日本書紀』卷17, 繼體紀 9年 4月條)

일본 장수가 백제의 가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섬진강하구의 하동으로 진출하였다가 대가야 군에게 격퇴당하여 후방으로 후퇴하였는데, 그 루트는 쓰시마-거제도-문모라-하동으로 추정된다. 거제도와 하동 사이의 상세한 루트는 거제도 서부연안-고성반도-삼천포만-하동 등으로 문모라는 그 중간의 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거제도는 상군(裳郡)과 그 영현인 아주현(鵝洲縣 : 본명 거로현(巨老縣), 거제시) 남수현(南垂縣 : 본명 송변현(松邊縣), 거제시 남부면) 명진현(溟珍縣 : 본명 매진이현(買珍伊縣), 거제시 거제면) 등이 있지만, 문모라에 부합하는 지명이 없다. 따라서 음운상 가장 부합되는 지명은 문화량이므로, 문모라는 이곳에 비정할 수 있다. 문모라의 ‘모라(牟羅)’는 큰 마을을 뜻하는 용어로서 여러 개의 자연촌이 모인 행정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라가 문화량현으로 불렀던 것이다. 고려시대 이후 하동에서 일본 쓰시마로 돌아가는 교통로 상에 왜구의 주된 침입로가 되었던 사실과도 잘 부합된다.

당시 통일신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상호간의 명령하달과 상부보고라고 하는 행정체계 속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상수리(上守吏)제도라고 한다. 지방정부에는 주군현마다 각급 관청이 있었는데, 주사(州司)·군사(郡司)·현사(縣司), 그리고 자치기구로서 말단의 촌사(村舍)가 있었다. 촌사에서 심부름꾼을 뽑아 상급 관청인 현사에 가게 하여 보고하는데, 현사에서도 다음의 군사에서도 상급 관청에 보고하는 연락체계가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주사에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되었다. 반대로 중앙정부의 명령도 거꾸로 순서를 밟아 촌사에까지 하달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 업무를 비롯한 국가의 여러 가지 행정체계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3) 통일신라시대 고성 지방민의 생활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사회는 9주 5소경제도로 편제되었고, 고성지역은 강주에 편입되어 있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주군현의 편제 기준이 인구와 토지의 많고 적음에 두고 있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지방민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소위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를 통해 알려졌다. 이 문서는 신라장적문서(新羅帳籍文書)·신라민정문서(新羅民政文書)라고도 하는데, 일본 나라현[奈良県] 도다이지[東大寺]의 문서 및 왕실의 귀중품 창고인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다. 이 촌락문서의 작성연대에 대해서는 756년설·816년설·876년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⁹⁾ 8세기 중엽경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서원소경 부근의 4개 촌락에 관한 기록이지만, 통일신라시대 지방사회의 모습

9) 이들 학설에 대해서는 李仁哲, 『新羅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1996, 64~69쪽에 정리되어 있다.

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작성된 내용은 자연촌락을 단위로 하여 해당 촌의 면적·호구·인구·수토지의 면적과 소·말·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등의 수효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자연촌락을 단위로 국가의 세금과 부역이 매겨져 있으며, 통일신라는 이러한 필요 때문에 작성한 것으로서 행정촌에 있는 촌주에 의해 식년(式年) 즉 3년마다 조사하여 작성되었다. 문서상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호구(戶口)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호의 등급은 노동력의 다과를 기준으로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호구의 인구는 남녀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6등급으로 조사되어 있다. 호구는 3년간의 이동사항까지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부역의 징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여자도 역의 동원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파악되고 있었다.

4개 촌 가운데 살하지촌(薩下支村)의 호는 호등에 의해서 구분된 것과 함께 여자(餘子)·법사(法私)의 형태로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방민이 군역을 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촌락민을 대상으로 편성한 지방군대인 법당군단(法幢軍團)과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에 징발된 것이다. 법흥왕 때에 설치된 법당군단은 군현을 단위로 편성된 소규모 부대였으나, 통일신라 때에 모두 합하면 420개 내외이고 경남지역의 경우도 40개 남짓의 대규모 군단이 되었다. 소경여갑당은 5소경의 촌락민을 징발하여 편성한 군대로서 갑병(甲兵) 즉 갑옷을 착용한 기병부대이다.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군현에는 외여갑당(外餘甲幢)이 있고 지방민을 징발하여 갑옷을 착용한 기병으로 구성된 것으로 법당군단보다는 규모가 적은 부대였다. 즉 여자는 소경여갑당 또는 외여갑당의 군인이며, 법사는 법당군단의 군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금관소경에 소경여갑당이 있었고, 일반 주군현에는 외여갑당과 법당군단이 있었다.

다음은 지방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이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촌락문서의 4개 촌에는 사노비(私奴婢)도 있었다는 것이다. 총 인구 442명 가운데 25명이 사노비로 되어 있어 전인구의 5.6%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으므로, 통일신라시대 당시에는 노비가 차지하는 노동력이 미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구 다음으로 우마(牛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는 4개 촌에 소 53두, 말 61두로 전체 호수 43호에 비해 보면 1호당 평균 말은 1.5두, 소는 1두 이상으로 비교적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4개 촌 모두 답(畓)·전(田)·마전(麻田)의 세 종류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그 토지의 귀속관계에 따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촌주위답(村主位畓)·관모전답(官謨田畓)·내시령답(內視令畓)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토지의 면적은 결(結)·부(負)·속(束)·과(把)의 단위로 기록되어 결부법이 신라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각 촌락에는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등이 상당수 심어져 있었다고 하며, 나무의 수가 일일이 헤아

려지고 있다. 이것은 나무들이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신라 정부가 조세 징수와 부역 동원을 위해 조사한 이 문서는 촌락의 구체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원래 이 문서는 폐기된 것으로 종이 귀한 당시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불교 경전을 한지 종이에 경전을 베껴 적어 전체 내용을 완성한 뒤에 그 종이의 뭉치를 나무기둥에 두루마리 모양으로 말았다. 이때 나무로 만든 축을 제침축(題籤軸)이라 하며 촌락문서는 기한이 지나 행정문서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일단 폐기되었다가 그 종이를 제침축에 발랐던 것이다. 이 사경(寫經)인 『화엄경론질(華嚴經論帙)』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어 신앙생활에 사용되다가 정창원에 보관되어 왔고 이를 1933년 10월 사경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분해하던 중에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촌락문서는 신라 정부가 반영구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촌주가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소경의 지방정부를 거쳐 중앙에 보낸 것을 실무담당관리가 정리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원천장부로 2-3년간 쓰다가 폐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신라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기 일정 기간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시 지방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통일신라 중앙정부는 지방민에게 토지에 대해 세금을 받는 전조(田租),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정남(丁男)을 일정 기간 징발하는 군역(軍役)과 아울러 성곽의 축조 및 보수도로 관리저수지 축조 및 보수관청의 건축 및 보수 등 국가의 토목사업에 동원하는 역역(力役), 각 지역에서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생산채집되는 특산물에 대한 공납(貢納) 등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저수지 축조에 대한 사정을 새긴 영천청제비(永川靑堤碑)의 내용 가운데 정원명(貞元銘) 즉 798년에 청제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였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저수지 관리를 담당하는 소내사(所內使)가 청제의 파손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받은 뒤 수치(修治)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백성들을 역역으로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일방적으로 지방민에게 세금만 부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하였다. 722년(성덕왕 21)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진(丁田)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거나 개간 등을 통해 소유한 민전(民田)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귀족 관료 토호 등과 같은 지배층으로부터의 침탈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적 조치였다. 그 대신에 국가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국가 재정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이다.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는 백성을 공민(公民)이라고도 하는데, 노비 등 지배층에게 예속된 사민(私民)과 달리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국가는 공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이 튼튼해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유교적 통치이념은 통일신라시대에 잘 적용되었다.

삼국통일 후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689년(신문왕 9)에 녹읍을 폐지하고 수조권(收租權)만 인정하는 직전(職田 : 官僚田)과 연봉으로서 세조(歲租)를 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는 통일신라 초기 681년(신문왕 원년)에 김흠돌(金欽突)의 반란 등 귀족들이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자 왕권 쪽에서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개혁정책이었다.

이와 아울러 상대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재정적 기반을 증대시킨 왕권은 점차 안정되었고, 지방민도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립적 기반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민전 또는 백성정전이란 신라촌락문서에 나타나는 연수유전·연수유답, 즉 백성이 국가로부터 공민받은 논밭과 성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촌락문서에는 토지의 귀속관계에 따라 연수유전답·촌주위답·관모전답·내시령답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연수유전답에 비해 관모전답·내시령답이 매우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국가의 공전정책은 매우 큰 실효를 나타내고 있었다.

통일신라 때 확실하게 시행된 결부법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온 수확방법에 기초하여 제정한 것이다. 파·속·부·결로 단위매감을 하는 결부제는 최소단위인 파(把)는 수확한 벼를 손아귀에 쥘 수 있는 한 움큼이고, 속(束)은 열 움큼으로 만든 다발이고 부(負)는 열 다발로 지게에 질 수 있는 한 짐이며, 그리고 결(結)은 100짐으로 한 말의 종자를 뿌릴 수 있는 마지기를 말하는 것이다. 통일신라 당시 가장 좋은 밭, 즉 상상전(上上田)의 수확량은 10석(石)이었는데,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경전(常耕田)이다. 그 외에 휴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2년만에 농사짓는 재역전(再易田), 일년을 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역전(一易田) 등이 있었다. 상경전은 귀족 관료나 토호들이 차지하였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재역전이나 일역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성군과 영현 지역의 일반 촌락에도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등이 상당수 심어져 있었을 것이며, 나무의 수가 일일이 보고되어 수확한 후에 일정한 날에 공납으로 바쳐졌을 것이다. 전조와 같이 공납도 십일조(什一租) 즉 수확물의 1/10로 납부하였을 것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남해연안의 고성지역에서는 어자원도 풍부하여 생선이나 해조류를 많이 획득하였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산물도 공납으로 진상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촌락문서에서의 여자와 법사도 고성군과 영현 지역의 각 촌락에서 군역으로 차출하여 외역 갑당과 법당의 지방군단을 구성하였다. 영천청제비의 정원명(貞元銘 : 798년 원성왕 14)의 금석문에서 법공부(法功夫)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담당자라는 소내(所內)라는 용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왕실에 직속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청못이 있는 곳이 소내로 통칭되는

신라 왕실 직할지로 보는 견해가 있고, 소내사는 왕실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고 현지인으로서 평소 왕실 소유지를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던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공부란 원래는 법당군단의 군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법당군단의 군인이었지만 전시가 아닌 평화가 지속됨으로써 군역이 역역으로 대체되어 갔음을 보인다. 그러나 둘 다 백성이 녹읍에 소속되었던 아니든 간에 모두 역역의 의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경남지역에 국학생의 녹읍이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799년(소성왕 원년) 소성왕(昭聖王)이 청주(靑州)의 노거현(老居縣 : 경남 진주시 부근)을 학생녹읍(學生祿邑), 즉 국학(國學)의 학생들의 안정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녹읍을 지급하였다. 이는 788년(원성왕 4)에 원성왕이 설치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648년(진덕여왕 3)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갔을 때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에서 석전(釋奠)과 유교경전의 강론을 참관하고 돌아온 뒤, 신라에도 국학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준비 작업으로서 서무를 담당하는 대사라는 관직이 먼저 설치되었으며, 그 후 신문왕 때에 정비된 국학에는 경(卿)·박사(博士)·조교(助教)·대사(大舍)·사(史) 등이 있었다. 경덕왕 때 태학감(太學監)이라 했고, 혜공왕 때에 이르러 다시 복고되어 국학으로 고쳐 불렀다. 국학은 예부(禮部)에 속하였다. 682년(신문왕 2)에 처음 국학을 설립할 당시에 토지를 지급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소성왕 때에 이르러 국가가 국학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야 학생녹읍을 설치한 배경에는 국학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라 하대에 이르면 국학은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였다. 그것은 진골 귀족들의 독점적인 신분적 전통에 대한 강한 고집으로 제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귀족들의 외면으로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제도상으로 볼 때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나올 때는 나마(奈麻)나 대나마(大奈麻)의 관등을 주었다. 국학에는 원칙적으로 왕경인만 입학할 수 있었으며, 모집범위를 넓혀 보더라도 소경인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왕경인 중에서도 나마가 될 수 없는 4두품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나마밖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5두품에게도 큰 의미가 없었다. 더욱이 9년간의 학업 끝에 겨우 대나마가 될 뿐이었으므로, 진골에게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6두품이 국학 학생으로서 가장 적합했으므로 학생은 대개 6두품 신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나라에 유학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국학이 쇠퇴해 가는 반면에 당나라 유학생의 중요성이 커져 갔다. 그것은 신라 국내의 교육기관의 교육으로는 당시 신라 귀족 자제들의 교육 수준과 지식 욕구가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

비[國費 : 숙위학생(宿衛學生)]에 의한 것이든 사비(私備)에 의한 것이든 간에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가 무너져 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 하대에 들어와 국학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자, 이에 대한 장려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788년(원성왕 4)에 원성왕은 국학의 졸업 시험 제도와 같은 성격을 가진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다.

독서삼품과는 유교경전의 이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시험과목을 보면 하품(下品)은 『곡례(曲禮)』, 『효경(孝經)』을 읽고 이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중품(中品)은 『논어(論語)』, 『곡례』, 『효경』을 읽고 이해한 자이고, 상품(上品)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예기(禮記)』, 『문선(文選)』을 읽어 그 뜻이 잘 통하고 아울러 『논어』, 『효경』에도 밝은 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특품(特品)은 『주역(周易)』,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 『춘추좌씨전』 등의 오경(五經)과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등의 삼사(三史), 그리고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書)를 능히 통달한 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순서를 가리지 않고 특별히 등용하였다.

원성왕 때부터 실시한 독서삼품과는 신라의 새로운 관리등용방법이며, 동시에 국학의 졸업생을 상대로 국학에서 배운 학과에 대해 시험을 보는 제도였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국학 졸업시험과 같은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1년 뒤인 799년(소성왕 1)에는 청주의 노거현을 학생의 녹읍으로 삼아 국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 안심하고 학문에 매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4) 통일신라시대 대외관계상의 고성

통일신라시대 이전이나 이후에도 경남지역이 대외교류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통일신라시대의 대외교류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신라와 당나라가 교류할 경우에 대개 두 방향의 교통로가 있었다. 첫째는 6세기 중엽 한강유역 진출 이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신라 왕경에서 육로로 당항성(黨項城)까지 간 다음 해로를 통해 황해연안의 해로, 즉 고구려발해도(高句麗渤海道)를 따라 산동반도로 가는 길이다. 둘째는 신라 왕경의 외항인 울산항[울산광역시 반구동 일대]에서 동남해안을 지나 형변(兄邊 : 부산광역시 수영만)에서 해신(海神)에게 해양의 안전을 위한 해양제사를 지낸 다음, 남해안을 지나 황해를 횡단하여 당나라로 가는 길이다.

신라와 일본의 교류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오래도록 있어왔으며 대체로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동남해안 일대를 대상으로 왜병의 침략이 많았다. 6세기 중엽 왜는 우호관계가 깊었던 가야제국이 신라에 병합되자 남해안의 연안항로를 통한 대외교류가 거의 막히게 되어 근해항해가 가능한 백제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루어졌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위협으로 국제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자 왜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왜 역시 백제 일변도의 대외교류보다 다각적인 교류를 원하게 되어 새로이 친선관계로 전환하였다. 신라는 왜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신라는 송사외교정책을 써서 당나라로 가는 왜의 사절, 즉 소위 견당사(遣唐使)를 신라로 불러들여 육로로 당항성으로 인도하여 보내고, 왜국의 견당사가 돌아올 때도 신라가 이들을 데리고 와서 본국으로 보내주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왜는 신라의 발전된 문물과 국제적 위상을 새삼 느끼게 되어 신라를 점차 신뢰하게 되어 불교 등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640년대부터 고구려·백제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고 백제가 왜에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신라는 왜가 배후의 적으로 변하게 될까 우려하였다. 647년에 신라는 상신(上臣) 즉 권력의 실세라는 김춘추를 직접 왜에 가게 하여 적극적인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불가침과 송사 외교 유지 등의 약조를 재확인하였다.

670년에 왜국(倭國)이 일본국(日本國)으로 국호를 바꾼 이후에도 통일신라는 일본과의 교섭이 활발하였다. 이때 신라의 대일외교의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데, 신라의 외교문서인 집사성첩(執事省牒 : 신라 집사성이 일본국 중앙정부의 다이쇼칸[太政官]에게 보내는 문서)과 집사첩(執事省牒 : 신라 집사성이 일본 규슈(九州)의 다자이후[大宰府]에 보내는 문서), 그리고 강주첩(康州牒 : 신라의 강주에서 일본국 다자이후에 보내는 문서)과 일본의 태정관첩(일본국의 다이쇼칸이 신라의 집사성에 보내는 문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을 참고하면, 그 경로는 일본국 중앙정부에서 사신이 출발하여 규슈의 다자이후를 거쳐 강주 관내로 들어온 뒤에 강주의 장관인 강주 사신이 이들을 조사하여 신라 중앙정부에 보고한 뒤에야 일본국 사신이 신라의 왕경으로 들어갔다. 즉 일본국 사신이 다자이후에서 바로 울산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남지역의 청주 관내로 들어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것은 과거 왜가 신라를 60여 회나 노략질한 사실로 인한 것이다. 무기를 지니고 수행을 받는 외교사절일 경우와 달리, 무역을 행하는 경우에는 울산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뿐이다.

일본측에서 신라에 외교문서를 통해 교류를 행한 목적이 있다. 일본에서 중국 당나라에 파견하는 견당사가 신라에 표착할 경우 그들을 도와 당으로 보내 줄 것을 부탁하거나, 표류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일본 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일본은 바다를 건너 중국까지 갈 수 있는 항해술이나 먼 바다를 오랜 시간 항해해도 지장이 없는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술이 미흡하였다. 일본에서 중국까지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라를 거쳐 가야 했다. 즉 일본의 수도의 외항인 사카이[堺]에서 출발할 때는 풍량이 없어 항해가 안전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건너 후쿠오카[福岡]의 다자이후[大宰府]에서 일단 도착한다. 그 다음 다자이후에서 이키시마[壱岐島]와

쓰시마[對馬島]를 지나 동남해안에 도착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신라로 가면 중국 당나라까지 갈 수 있다. 동북쪽으로 가면 울산항에 이르고, 서북쪽으로 가면 가덕도 앞바다에서 부산이나 김해에 다다른다. 여기서 남해안의 다도해를 지나는 연안항로를 이용하면 안전한 항로가 된다. 그렇지 않고 쓰시마나 이키에서 거제도 남방으로 근해항로를 선택하여 항해하면 표류 침몰 등의 조난을 당할 가능성이 커서 항해의 안전도가 매우 낮다. 더욱이 연안항로를 따라 항해하더라도 견당사의 배는 조난을 당하여 신라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신라와의 친선외교가 매우 중요하였으며, 양국의 대외교류상 경남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금관소경은 대외교류의 중간기착지로서 중요하여 일본이 신라에 사절을 보내면 금관소경에 도착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에도 금주(金州 : 김해)에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대외교류가 이루어진 사실도 참조된다.

일본국 중앙정부에서 신라로 파견한 사신이 출발하여 규슈의 다자이후를 거쳐 강주 관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덕도에서 남해안을 거쳐 사천만을 통해 청주에 도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성군과 그 영현을 거쳐야 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된 관방시설이 있었으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류산성은 1983년 12월 20일 경남문화재자료 제90호로 지정되었는데, 고성평야의 동쪽에 있는 거류산(해발 571m)의 정상부에서 서쪽 경사면을 성내로 하여 축조된 포곡성이다. 성벽은 600m 정도 남아 있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규모는 둘레 1.4km, 높이 3m, 폭 4m 정도이다. 성벽은 주로 자연암반으로 된 절벽을 이용하고 그 사이를 산돌을 협축수법으로 쌓아 보강한 형태이다. 성안을 서쪽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동쪽과 남쪽의 바다를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부분 남쪽에 출입구를 두었고 성안에는 우물을 설치하였다. 소가야가 신라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쌓은 성이라고 하나 왜구를 막기 위한 용도로도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 철마산성은 1983년 12월 20일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91호로 지정되었는데, 성의 축조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철마산 동쪽에 내산리 고분군, 양촌리 고분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가야시대부터 축조되어 왜구방비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한다.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으나 둘레가 약 1,000m, 높이 2m로 여첩(女堞)과 3개의 샘, 창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 성은 자연암벽 사이에 산돌을 이용하여 외벽을 받쳐 쌓은 내락수법을 취하고 내벽 쪽은 평평한 성내의 도로처럼 평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성벽 자체는 곡선을 이룬다. 잔존부분의 규모는 높이 3m, 둘레 250m 정도이다. 임진왜란 때 만들어 두었던 철마는 왜적이 침입하여 운반해 갔고, 인근 주민들이 다시 석마(石馬)를 만들어 후환을 방지했다고 하는데 현재 산중턱에 석마 1필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의 사천성황당산성(泗川城隍堂山城)은 1993년 12월 7일 경상남도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되었는데, 고읍성(古邑城)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둘레 1,109m, 높이 3.5m의 토성 흔적이 남아 있다. 남쪽으로 길이 4m, 높이 3m의 석축이 있고 성 가운데 우물과 못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사천현의 성곽조(城郭條)에 의하면, 사천읍성의 석축 둘레는 1,530m이며 높이는 4.6m였다 하고, 같은 고적조(古蹟條)에 의하면 성황당 산성 둘레는 592m였다고 한다. 성 부근에서 와당편과 토기편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 산성은 축조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가야시기의 고분군 등이 남아있는 사실에서 볼 때 삼국시대에 쌓았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현재 남아 있는 정도의 크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산성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 가야인 고자국시기는 왜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이므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일본 사신이 가덕도에서 남해안을 거쳐 사천만을 통해 청주에 도착하였을 경우를 비롯하여 왜구가 침입하거나 일본의 견당사가 신라의 허락을 받고 남해안을 통과하였을 때, 이들 산성은 후망소(候望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먼저 신라 청주로 들어올 경우 이들 산성에서 관찰하여 고성군에 연락을 취하여 사신의 배임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다음 왜구의 침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성군에 연락을 취하여 대응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국의 견당사의 배일 경우 남해안의 다도해를 지나는 연안항로를 이용하면 안전한 항로가 되더라도, 표류침몰 등의 조난을 당할 경우 고성군의 협조를 얻어 구조되고 상급기관인 청주에 보고되어 적적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성군의 연안지역은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4절 통일신라의 문화와 고성군

1. 한국 고대 선교[도교]의 발전

1) 선교의 기원과 신화

일반적으로 한국 고대국가의 사상적 기반을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에 두고 있다. 최치원이 한국 고대의 사상을 ‘유불선(儒佛仙)’ 3교로 말하였듯이 유교와 불교 외에도 선교(仙敎) 내지는 도교(道敎)를 제외하고는 한국 고대사상을 논하기는 어렵다. 불교가 전 구성원의 신앙을 대변하고 유교가 국가통치를 위한 정치적인 이념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으나, 정작 고대 사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사이다. 즉 정치이념으로서의 유교사상과 제사이념으로서의 도교

사상은 현세의 사상으로 실현되며, 정신적 신앙으로서의 불교사상은 내세의 사상으로 구현된다. 이들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국가운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샤머니즘을 비롯한 고유종교는 중국의 도교와 흡사하여 서로 융합되었다. 한국고대의 삼국도 중국으로부터 도교를 수용하여 고유종교와 융합하였다.

문헌기록상으로 볼 때 도교가 수용된 것은 7세기부터로 되어 있으나, 유교나 불교의 전래와 수용 과정에서 볼 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¹⁰⁾ 마찬가지로 도교도 국가적인 수용 이전 고대사회에 정착되어 고유신앙과 접목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가 없어 자세히 다루겠다.

일반적으로 신화는 후대에 불교·유교·도교 등에 의한 종교적인 윤색이 많으므로, 그 원형을 찾아내야 한다. 가장 먼저 전승된 건국신화는 고조선의 단군신화로서 13세기 후반의 불교 승려 일연(一然)이 쓴 『삼국유사』에 전하는 것이 원형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서(魏書)』에서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는데 아사달에 도움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는데 요임금과 같은 때였다고 한다. [또한] 고기에서는 전하였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고 여겼다. 이에 천부인 3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불렀다. 이 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 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신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꺼려한 지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버티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결혼해주었더니,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일렀다.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움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다시 도움을 백악산의 아사달로 옮겼다. 그곳을 또는 궁홀산 또는 금미달이라 한다. 그는 1천 5백 년 동안 여기서 나라

10) 車柱環, 『韓國道教思想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978, 15쪽.

를 다스렸다. 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단군은 이에 장당 경으로 옮겨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살이었다고 한다.¹¹⁾

신화 내용의 표현상으로 볼 때 불교와 도교에 의한 윤색이 가해졌다. 『삼국유사』의 찬자 일연이 불교 승려였다는 점에서 우선 단군신화의 전승에 불교적 윤색이 가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환인은 원래 제석환인다라(帝釋桓因多羅)로 불리며 불교경전에서 등장하는 인도의 천주(天主) 또는 호법신을 이른 명칭으로, 불교식으로는 제석천에 사는 천신을 가리킨다. 일연은 불교사상에 입각하였으므로, 천손강림신화에 등장하는 천신을 불교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삼위태백산은 도교에서 유래하였다. 그 중의 태백은 고려의 영토에 있는 표지가 되는 신성한 산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삼위는 중국 문헌에 고대 서방의 명산에 삼위라는 산 이름으로 전한다.¹²⁾ 현재 중국의 감숙성 돈황현 남쪽에 있는 삼위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두산과 아울러 부르며, 그 지역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¹³⁾ 삼위를 3개의 산봉우리라고 보아 삼봉의 태백산으로 해석하며, 한국에서는 태백산을 백두산 또는 구월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삼국유사』의 찬자가 불교 승려임에서 불교적 윤색이 가해지기는 하였지만, 신화 원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단군신화 내용에서 드러난 역사적 해석은 고조선사회의 성격이 ②에서 농경사회라는 점, ③에서 국민의 보호와 복지, 사유재산의 보호와 노예의 존재를 의미하며 ④에서 그 주민이 꿈 토렘신앙을 가진 맥족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①의 천부인 3개는 천신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의미하는 세 가지 보물[神寶, 三寶]로서 고조선 성립의 문화적 기반이 청동기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천부인은 첫째 청동검, 둘째 동경,¹⁴⁾ 셋째 동령를 가리킨다. 그 가운데 청동방울은 신석기시대부터 있어온 자연숭배신앙에서 발전한 샤머니즘 신앙에 쓰이는 도구로서 부족사회의 일반적인 의기이지만, 청동거울은 선

11)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堯同時 古記云 昔有桓因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艾一柱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 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 壇君王儉 以唐堯卽位五十年庚寅 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武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

12) 『書經』 禹貢

13)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 이형구, 『발해 연안에서 찾은 한국 고대문화의 비밀』, 김영사, 2004, 158-162쪽.

민의식을 드러내는 의기로서 계급사회의 증거물이며, 청동거울 뒷면에 섬세한 기하학적 무늬가 정교하게 나타나고 꼭지는 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2개 또는 드물게 3개가 달린 이른바 다뉴 경이 성행하였다. 이들은 태양숭배사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청동단검은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정일치사회의 지배자인 단군왕검은 청동거울과 청동단검으로서 하늘에서 강림한 천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단수를 통해 볼 때 산신신앙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고대의 신앙에는 원래부터 하늘의 천신신앙과 산신신앙이 있었다. 단군신화의 말미에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겨다가 후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살면서 산신이 되었다’ 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교적으로 윤색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고유의 산신신앙이 도교와 접합하면서 신선사상으로 변화해가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신라의 신화 가운데 육촌장신화도 청동기시대의 천손강림 신화로서 산신신앙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관가야의 건국신화인 수로신화에도 구지봉신화가 내포되어 있었던 사실에서 보아 역시 청동기시대에 산신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과 같은 시기에 존재한 부여의 건국신화는 동명신화인데,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의 원형이다. 그에 대해 『삼국지(三國志)』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魏略)』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옛날 북쪽 고리국의 왕이 출타하였는데, 그 王의 시녀가 궁궐에서 임신을 하였다. 왕이 돌아와서 시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가 말하기를 “잡때 하늘에서 달걀만한 크기의 기운이 저에게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시녀를 가두어 두매, 나중에 드디어 사내아이를 낳았다. 왕이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려두게 하였으나, 돼지들이 입김을 불며 보호하여 죽지 않았으며, 마굿간에 버리자 말들도 역시 그러하였다. 왕이 기이하게 여겨 어미가 기를 것을 허락하고, 아이의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다. 동명은 커서 활을 잘 쏘았다. 왕은 그가 용맹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다시 죽이려 하였는데, 동명이 달아났다. 남쪽으로 가다가 엄체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모두 모여 동명을 건네주었다. 마침내 부여에 와서 도읍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¹⁵⁾

위의 신화에서 하늘의 이상한 기운이란 태양 혹은 햇빛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는데,

15) “舊志又言 昔北方有 高離之國者 其王者侍婢有身 王欲殺之 婢云 有氣如雞子來下 我故有身 後生子 王捐之於溷中 豬以噓之 徙至馬閑 馬以氣噓之不死 王疑以爲天子也 乃令其母收畜之 名曰東明 常令牧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施掩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度 魚鼈乃解散 追兵不得渡 東明因都王夫餘之地”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夫餘條 所引『魏略』)

대체로 몽고와 만주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설화들 중에는 햇빛에 감응되어 임신, 출산하였다는 것으로 태양숭배와 관련된 신화이다. 이 신화의 주요 요소에는 난생신화가 있으며, 여기에는 천신신앙 중에서도 태양신앙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또한 신라의 건국신화인 혁거세신화에도 난생신화이자 천손강림신화로서 혁거세의 별명인 불구내(弗矩內)는 ‘붉은 아이’ 즉 광명신 또는 태양신의 요소가 보인다.

이상에서 볼 때 단군신화의 계열에서는 산신신앙이 주요한 신앙요소로서 나타나 있고, 동명신화의 계열에서는 태양신앙이 주요한 신앙요소로서 나타나 있다. 전자의 신화는 산악지형이 많은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배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후자의 신화에서는 하천과 평야라는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요소를 가진 청동기시대의 신화 특성은 철기시대에 이르러 민족이동과 문화교류 속에서 융합되어 산신신앙과 태양신앙이 조합되고, 각 지역의 고유한 신앙들이 복합되었다.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태양신앙과 산신신앙이 연면히 계승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가야에도 건국신화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금관가야의 수로신화로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가 개벽한 후로 이 지방에는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 아도간·여도간·피도간·오도간·유수간·유천간·신천간·오천간·신귀간들의 9간이 있었다. 이들 추장은 백성을 통솔했는데, 대개 1만 호에 7만 5천 명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거의 스스로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년 3월 상사일에 그들이 사는 곳의 북쪽 구지[주: 이것은 산봉우리의 이름인데 거북이 엮드린 형상과 같으므로 구지라 했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간과 마을 사람들 2, 3백 명이 거기에 모이니, 사람 소리 같기는 한데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만 났다. “여기 누가 있느냐?” 하니, 구간들은 대답했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냐?” 고 물어 “여기는 구지입니다.” 또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 하셨다. 그래서 내려왔다. 너희들은 이 산 꼭대기를 파고 흙을 집으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그 말을 따라 마을 사람과 함께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얼마 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니,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는 것이었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단이 붉은 보자기에 金盃子가 싸여 있었다. 열어보니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는데 해처럼 둥글었다. 여러 사람은 모두 놀랍기도 하고 기뻐서 함께 수없이

절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보자기에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평상 위에 두고 무리들은 모두 흩어졌다. 12일이 지난 날의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금합을 열어보니 알 여섯 개가 어린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덩실하니 컸으며, 이내 평상에 앉았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삼가 절을 올리고는 극진히 공경하였다. 어린이는 나날이 자라 10여 일이 지나니 키가 9척이나 되니 은나라 천을과 같았고, 얼굴이 용과 같음은 한나라 고조와 같았으며, 눈썹이 팔채임은 당나라 요임금과 같았고, 겹눈동자[眸子]를 가짐은 우나라 순임금과 같았다. 그 달 보름날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 하거나 수릉이라 하였다.¹⁶⁾

금관가야는 삼국에 비해 일찍 멸망하여 자신의 역사를 제대로 전승하지 못하고,¹⁷⁾ 다른 나라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윤색이 가장 심하다. 구지가(龜旨歌)에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首露).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라에서 금관가야계 귀족들이 중앙정계에서 밀려나는 신라 하대에 윤색된 것으로 금관가야 시조왕의 존호는 수로가 아니라 수릉(首陵)이었음이 명시된 점에서 알 수 있다. 난생의 천손강림신화로 되어 있는 것은 육란신화(六卵神話)라는 6을 신성시하는 신라의 변용에 의한 멸시일 뿐이고, 나라가 망한 뒤에 금관가야의 건국신화는 신라인에 의해 훼손되었던 것이다. 거북[龜]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수로신화의 원형으로서 해양신화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신화로서 탈해신화가 있다. 그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탈해는 본래 다과나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라는 왜국의 동북쪽 1천 리 밖에 있다. 앞서 그 나라 왕이 여국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 만에 커다란 알을 낳았다. 왕이 말하였다.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이는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

16) “開關之後 此地未有邦國之號 亦無君臣之稱 越有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留水干留天干神天干五天干神鬼干等九干者 是酋長 領總百姓 凡一萬戶 七萬五千人 多以自都山野 鑿井而飲 耕田而食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禊浴之日 所居北龜旨 有殊常聲氣呼喚 衆庶二三百人 集會於此 有如人音 隱其形 而發其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 又曰 吾所在爲何 對云 龜旨也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茲故降矣 爾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歡喜踴躍之也 九干等如其言 咸忻而歌舞 未幾 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裹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 尋還裹著 抱持而歸乃我刀家 寘榻上 其衆各散 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集開合 而六卵化爲童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賀 盡恭敬止 日日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 則殷之天乙 顏如龍焉 則漢之高祖 眉之八彩 則有唐之高 眼之重瞳 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卽位也 始現故諱首路 或云首陵”(『三國遺事』卷1, 紀異2, 所引『駕洛國記』)

17) 김유신이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개황력(開皇曆)』 또는 『개황록(開皇錄)』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다만 『삼국유사』에 부록으로 전해지는 『가락국기』에 단편적인 주석으로만 나와 있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리라.” 그 여인이 알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꿩에 넣어 바다에 띄워 되는데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처음에 금관국 해변에 닿았으나, 금관 사람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거두지 않았다. 다시 진한 아진포 어구에 닿았다. 이때가 곧 시조 혁거세 39년(기원전 19)이었다. 그때 해변에 있던 할머니가 상자를 줄로 끌어올려 해안에 매어놓고 열어 보니, 한 어린 아이가 있었다. 할머니가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자 키가 9척이 되었으며, 풍채가 빼어나게 훌륭하였고, 지식이 남보다 뛰어났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이 아이는 성씨를 알 수 없구나. 처음 꿩이 당도했을 때 까치 한 마리가 울면서 따라 날아왔으니, 까치 ‘鵲’ 자를 줄여 ‘昔’ 으로써 성을 삼도록 하자. 또한 꿩에 넣어둔 것을 풀고 나왔으니, ‘脫解’ 라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다.”¹⁸⁾

탈해신화는 영웅신화 중에서 기아형신화(棄兒形神話)로서 남해안-동중국해 일대에 유행한 신화로 알려져 있어 수로신화와 마찬가지로 해양신화의 유형에 속한다. 이들 신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동남해안은 바다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적·사회적 발전을 지속해 갔다. 해양교류를 통한 발전은 가야나 신라의 건국신화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해양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탈해는 자칭 야장왕[冶匠王 : Smith-king]으로서 바다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전래하여 사로국이 진한의 소국들을 정복 통합하여 신라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수로의 등장으로 낙동강하구사회는 문화적 발전을 통해 변한의 소국들을 통합해 철의 왕국 금관가야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라국의 건국신화가 천신과 산신의 감응으로 시조가 탄생되었다고 한 점은 산신신앙과 태양신앙이 융합되어 있었던 것이며, 가야의 여러 나라 신화 중에도 이와 같은 신화 요소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후대적인 윤색에서는 대가야의 마지막 왕손을 월광태자라 하는 도교적 윤색[월광보살(月光菩薩)]이 가해지기도 하는 사실 또한 주목되는 바이기도 하다.

2) 변한가야지역의 도교 관련 유물

기록상 한국고대사에서 도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643년(보장왕 2) 기록에 보이지만, 이 기록은 한국 고대사회에 처음 도교가 전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587년(진평왕 9) 기록에도 도교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18)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 其國王 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 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裹卵并寶物 置於櫝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 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 在位三十九年也 時海邊老母 以繩引繫海岸 開櫝見之 有一小兒在焉 其母取養之 及壯身長九尺 風神秀朗 智識過人 或曰 此兒不知姓氏 初櫝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又解繩櫝而出 宜名脫解”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卽位年)

다. 그러나 이들 기록은 신라나 고구려의 기존의 도교사상이 보다 보완되는 사실을 반영할 뿐이며, 한국고대에 중국의 도교가 처음 들어온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도교신앙이 언제쯤 한반도 동남부에 들어왔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기록 상으로는 7세기 전후를 올라가지 못하므로, 고고학적 조사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삼한시대 김해를 비롯한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제 청동거울[동경(銅鏡)]이다.

중국과의 교류의 산물 가운데 나타난 한식경(漢式鏡)이 가장 대표적이다. 한식경을 도교와 연관시켜 연구한 성과가 없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 형식은 중국의 동북부지방 연해주에까지 분포하고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일본으로 건너간 다뉴경(多鈕鏡)은 일본의 샤머니즘과 깊은 관계를 지닌 제례용구로서 쓰이고, 그 뒤 화장구(化粧具)로서 정착된 중국 한나라의 거울인 한경(漢鏡)도 일본에서는 계속 주술적인 목적으로 응용되어 대부분은 부장되는 풍속으로 이어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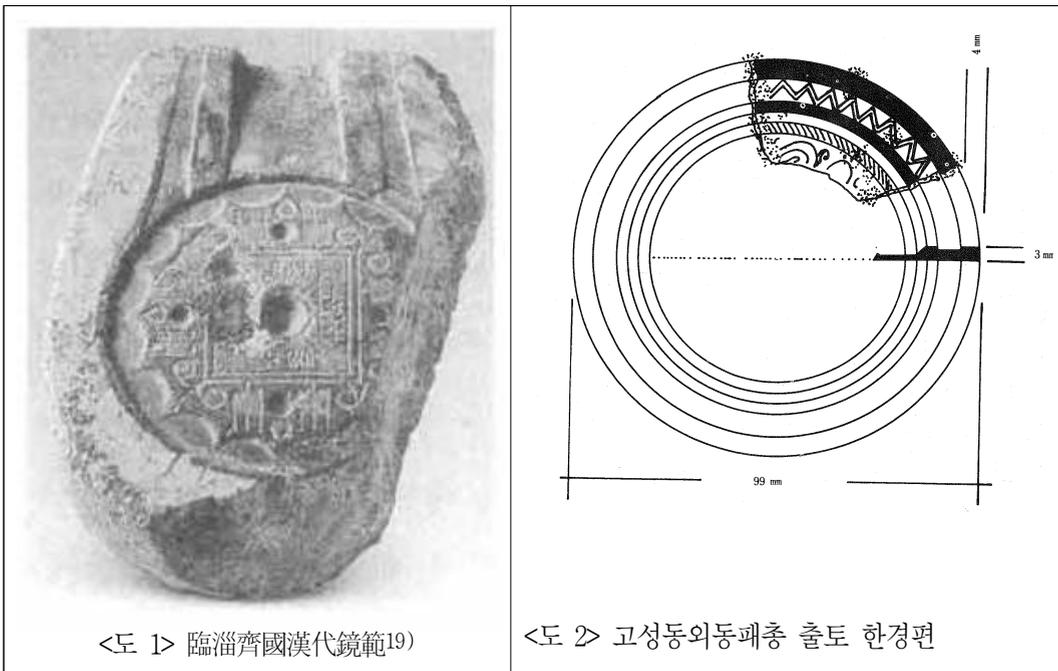
이들은 대체로 내행화문경(內行花文鏡)·일광경(日光鏡)·사유경(四乳鏡) 등의 계통이지만, 모방하는 과정에서 무늬가 변형되기도 하고 명문대의 명문이 뜻을 알 수 없는 무늬로 변해 버려 한반도에서 일정한 목적 아래 모방하여 제작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함께 낙랑의 유적에서는 전형적인 한식경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이들이 한반도의 토착사회에 끼친 영향이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대의 동경은 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반구형 유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며, 거울의 면은 평면이나 약간 볼록면에 가까운 편이다. 한식경은 전한경(前漢鏡)·후한경(後漢鏡)·왕망경(王莽鏡)으로 구별된다. 그 중에서 왕망경은 사신경(四神鏡)·방경규구사신경(方格規矩四神鏡)이 주류를 이루는데, 특히 명문대에 ‘상방(尙方)’·‘신(新)’·‘왕씨(王氏)’ 등 왕망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글자가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한경은 수수경(獸首鏡)·신수경(神獸鏡) 등이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상세계를 떠나 신선세계에 대한 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당시 중국에는 전한 말부터 전설의 임금인 황제(黃帝)와 『도덕경』의 저자로 전해지는 노자가 초인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신선으로 꼽혀 황로신앙(黃老信仰)이 대두하였다. 방사(方士)들의 조작적인 선전과 참위설(讖緯說)의 유행이 황로신앙을 가열시켰고, 이러한 황로신앙을 가미시킨 신선방술(神仙方術)의 내용이 조정, 확대되고 신흥종교였던 불교의 영향을 받아 도교로 개괄되어 한 종교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으며, 한국고대사회에 존속해온 신선사상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를 방증해주는 유물은 바로 구리로 만든 거울로서 철기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수용된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경상북도 영천시 어은동유적, 대구광역시 평리동유적, 경상북도 경주 사라리유적 등 내륙지방뿐만 아니라 경남남해안의 함안 사내리유적과 낙동강하구의 창원

시 도계동유적·다호리유적과 김해시 양동리고분군에서도 발견되었다. 특히 김해의 양동리고분군 등에는 도교신앙과 관련된 유물이 상당수 출토되었다. 예를 들면 김해 양동리고분군에는 모두 13점의 한식경이 출토되었다. 양동리 55호·162호·427호 등의 무덤에서 나왔다.

다음 <사진 1>의 사진은 그 중의 일부이며, <도 1>은 당시 중국에서 한식경을 만드는 주물 틀인 경범(鏡範)을 제시한 것이다.



19) 林素清, 「兩漢鏡銘初探」, 『中央研究院語言研究集刊』 63-2, 1993, 334쪽.

양동리고분군의 무덤 가운데 한식경이 나온 양동리 55호·162호·427호이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기원후 2세기 후반에 걸쳐 있다. 출토된 한식경은 중권문계(重圈文系)나 내행화문계의 일광경 계통이 대부분이다. 중권문계는 경상북도 내륙의 진한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내행화문계는 경남남해안의 변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신앙과 관련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명문대에 새겨진 명문들이 주목된다. 김해 양동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한식경 가운데 후한경인 방격구구사신경의 명문대에 새겨진 명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尙方佳竟[=鏡]眞大好 上有仙人 不知雀王宗飢□食來浮□遊□天下敖三海”

그 가운데 ‘上有仙人’이라 하여 신선신앙과 관련된 용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식경은 김해 구야국(狗邪國)이 낙랑군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들여온 것으로, 이는 단순히 물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문물도 함께 수용된 것을 반영해주는데, 위에 보이는 선인 즉 신선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이 변한 및 가야사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구지봉신화에서 존재한 산신신앙과 접목시킬 수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지역의 한식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삼해(三海)’라 하여 해양과 관련된 신앙기록이 보이는 점도 또한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도교신앙의 전래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라는 점을 상고해 보면, 철기의 전래와 함께 중국계 유이민들이 간헐적으로 육로나 낙동강하구를 통해 영남내륙으로 이주해 오면서 그들이 가진 도교신앙과 토착민들의 고유신앙이 융합되었을 것이다.

고성 동외동패총은 가야 고자국의 중심지인 고성읍 고성평야의 남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9년과 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과 1974년 6월에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여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영구보존을 위하여 동아대학교가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 발굴 조사에서 야철지(冶鐵址) 등의 각종 유구와 탄화미(炭化米)·청동광모(靑銅鑛鏹)·청동칼자루장식[銅劍把飾]·한경편(漢鏡片)을 비롯하여 회청색계통의 각종 토기, 적갈색계통의 각종 민무늬토기, 각종 철가·골각기 등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이 초기철기시대의 문화양상을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같은 문화내용은 경상남도 내의 성산패총(城山貝塚)·웅천패총(熊川貝塚) 및 김해의 부원동패총(府院洞貝塚) 등과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²⁰⁾ 여

20) 국립중앙박물관, 『고성패총』, 1992년.

金東鏞, 「고성동외동패총발굴조사보고」, 『上老大鳥』,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기서 주목되는 유물은 본 패총의 제1 문화층에서 출토된 한경편 즉 한식경의 조각이다. 약 55mm의 작은 파편임에도 무늬가 정교한 점에서 방제경(倣製鏡)이 아니라 한식경임을 알 수 있다.²¹⁾ 그 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1995년에 동외동유적의 일부를 발굴하였는데 주거지 10여 동과 새모양청동기 및 제사유구를 확인하였는데, 시대는 대략 기원 후 3세기 말~5세기 정도이다(보고서 미간). 제사유구가 존재한 점에서 이 지역이 선교의 제사 기능을 계속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목된다.

그 후 도교와 관련된 유물은 아직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삼국사기』에 보이는 천재지변 기록 가운데 산악과 관련된 기이현상에 관한 기록이나, 용신에 대한 기록도 고유신앙과 도교 신앙의 한 편린을 엿볼 수 있다.

기록상 한국고대사에서 도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보장왕 2년(643) 연 개소문이 당나라에 요청하여 숙달 등 도사 8인을 초청하고 『노자도덕경』을 들여왔다고 하였다. 신라의 경우 시조묘나 신궁의 제사제도 역시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신라는 초기부터 고유신앙에 도교가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에 이르러 중국의 도교사상이 국가통치에도 적용되어 갔는데, 그것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태창 원년(568년, 진흥왕 29) 세차 무자년 10월 21일에 진흥대왕이 ㉔㉔를 순수하여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 … 짐은 역수가 몸에 이르러 위로는 태조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하나 하늘의 도리를 어길까 두렵다. 또 하늘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주며, 명명한 가운데 신지에 감응되어 부명에 부응하고 썸대에 적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친의 사절이 서로 통하여 오도다. … 수레를 타고 나가 10월 2일 계해에 이르러 … 인하여 변방지역을 설유하였다.²²⁾

위의 기록은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로서 함경남도 이원군 동면 만덕산에 있었으나, 현재는 함흥력사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본 비의 내용에는 진흥왕의 정치사상이 표현되어 있는데, 흔히 제시되는 유교 왕도주의 외에도 도교사상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일월의 운행에 의한 역법[曆數]에 맞추어 왕위에 올랐으며, 이는 천지신의 명에 부합되고 상서가 있어[應符合筭]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던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

21) 金東鎬, 위의 보고서, 373-407-428쪽.

22) “太昌元年 歲次戊子 ㉔㉔廿一日 ㉔㉔ ㉔興太王巡狩 ㉔㉔ 刊石銘記也 然朕歷數當躬 仰紹太祖之基 纂承王位 兢身自慎 恐違乾道 又蒙天恩 開示運記 冥感神祇 應符合筭 因斯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引駕日行至十月二日癸亥 向涉是達非里 ㉔廣 ㉔ 因諭邊界矣”(盧重國, 「磨雲嶺新羅眞興王巡守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1992), 87~90쪽)

이 진흥왕은 천은을 입어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도교사상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라 국왕은 원래의 고유신앙인 선교를 근간으로 하면서 화랑도를 운영하였고, 불교 공인을 통해 왕실과 왕권의 관념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국왕의 현실적 국정 운영은 유교정치이념으로 이루어지면서 유교와 불교 외에 도교를 활용하여 3교를 국가 운영의 근본이념으로 갖추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 통치의 이념 이외에 당시 귀족들이 도교와 관련되는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도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진평왕 9년(587) 가을 7월에 대세와 구칠 두 사람이 해외로 가버렸다. 대세는 내물왕의 7대손으로 이찬 동대의 아들이다. 자질이 준수하고, 어릴 적부터 인간 세계를 초월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제하던 승려 담수에게 말했다. “이 좁은 신라의 산골 속에 살다가 일생을 마친다면, 어찌 못 속의 고기와 장 속의 새가 푸른 바다가 넓고 산과 숲이 너그럽고 한가함을 모르는 것과 다르겠는가? 내 장차 떼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오월에 이르러 차츰 스승을 좇아서 도를 명산에서 물으려 하네. 그래서 만일 평범한 인간에서 벗어나 신선을 배울 수 있다면, 표연히 바람을 공허의 밖에서 탈 것이니 이는 천하의 기이한 놀이요, 볼 만한 광경일 걸세. 자네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고 하였으나, 담수가 즐겨하지 않으니 대세가 물러가서 다시 벗을 구했는데 마침 구칠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세속과 구차스럽게 타협하지 않았으며 뛰어난 절개가 있었다. 마침내 그와 남산의 절간에서 노닐었는데, 문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떨어진 나뭇잎이 뜰에 고인 빗물에 떠 있었다. 대세가 구칠에게 말했다. “내 자네와 서쪽 중국으로 유람할 뜻이 있으니, 이제 각기 나뭇잎 한 잎씩을 집어서 이것을 배로 삼아 빗물에 띄어놓고 그것이 가는 선후를 보자.” 조금 후에 대세의 잎이 앞을 차지하자 대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먼저 갈 것인가?” 하니, 구칠이 별안간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나도 또한 사나이인데 어찌 홀로 갈 수 있겠는가?” 대세는 그가 함께 일할 만함을 알고 몰래 그 뜻을 말했다. 구칠도 “그것이 내 소원이다” 고 했다. 마침내 서로 벗이 되어 남해에서 배를 타고 가버렸는데, 후에 아무도 그들이 간 곳을 알지 못했다.²³⁾

이 기록에서 보아 도교신앙은 고구려뿐 아니라 6세기 말 이전의 신라사회에도 도교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방증해주고 있다. 골품귀족 출신인 대세와 구칠이 바다를 통해 중국 화남 지방으로 가서 신선술을 배우고자 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어 흥미로운데, 대세와 구칠이 신라

23) “九年 秋七月 大世仇柒二人適海 大世 奈勿王七世孫 伊浪冬臺之子也 資俊逸 少有方外志 與交遊僧淡水 曰 在此新羅山谷之間 以終一生 則何異池魚籠鳥 不知滄海之浩大 山林之寬闊乎 吾將乘桴泛海 以至吳越 侵尋追師 訪道於名山 若凡骨可換 神仙可學 則飄然乘風於沆寥之表 此天下之奇遊壯觀也 子能從我乎 淡水不肯 大世退而求友 適遇仇柒者 耿介有奇節 遂與之遊南山之寺 忽風雨落葉 泛於庭潦 大世與仇柒言曰 吾有與君西遊之志 今各取一葉 爲之舟 以觀其行之先後 俄而大世之葉在前 大世笑曰 吾其行乎 仇柒勃然曰 予亦男兒也 豈獨不能乎 大世知其可與 密言其志 仇柒曰 此吾願也 遂相與爲友 自南海乘舟而去 後不知其所往”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9年)

에서 중국으로 망명하려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디를 거쳐 갔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상적인 통로는 경주에서 울산만을 거쳐 동남해안을 따라 황해를 건너갔을 것이지만, 비정상적인 루트는 그 루트와 달랐을 것이다. 신라 하대의 사례이지만, 9세기 중엽 김우징은 왕위계승쟁탈전에서 패배하자 위기를 느끼고 경주-언양-양산-황산진 루트를 이용하여 청해진으로 탈출하였다는 사실을 참조하면 대세와 구칠도 이 루트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황산진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교역은 낙동강하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낙동강하구는 한반도 동남해연안의 대외교류에서 중심적인 중개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낙동강하구는 처음에는 구야국과 독로국의 영역에 해당되었는데, 서기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 남정 이후 신라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신라와 금관가야는 낙동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황산진을 정점으로 격렬한 공방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즉 낙동강하구는 가야와 신라가 차지하였던 지역으로서 두 나라의 문화가 공유되었으므로, 도교신앙도 두 나라에 들어온 루트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김해 예안리고분군 중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편년되는 30호분과 49호분에서 명문 토기가 출토되었다. 고배와 장경호의 토기류, 도자철부철검 등의 철기류, 과대금구(鈎帶金具), 심엽형금구(心葉形金具)와 더불어 병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병형토기의 조각에서 ‘정물(井勿)’이라고 새겨진 명문이 나왔다. 부장유물이 풍부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묻힌 무덤으로 생각된다. ‘井勿’이란 우물의 훈독 ‘井’과 물의 음독 ‘勿’을 표기한 이두이다. 정물 즉 우물물이란 당시 신성시하던 정화수(淨化水)의 개념으로서 물(勿)이 금기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물’이라는 새겨진 토기에 정화수를 담아 조상의 장례와 제사를 받들었던 것이다. 또한 우물이란 용신(龍神)이 깃든다는 용신신앙의 존재를 반영해주고 있다. 이러한 용신신앙은 강과 하천으로 확대되고 불교의 수용 발전에 따라 해신신앙으로 변화해 가기도 한다. 신라 제사제도인 중사(中祀) 가운데 하나인 사해(四海) 중의 하나인 수영만의 형변(兄邊)은 항해에 있어 운항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곳이다. 그리고 사독(四瀆) 중의 하나가 황산하(黃山河)로서 이 또한 용신신앙(龍神信仰)과 연결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있던 사실도 주목된다.

이상에서 볼 때, 문헌 기록으로는 7세기 전후에 중국의 도교가 한국 고대국가 처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관련 유물이나 신화 등을 검토해 보면 신선신앙과 용신신앙 등 낙동강하구역의 고유신앙이 도교신앙으로 진전되어 갔음을 엿볼 수 있었다.

2. 통일신라시대의 유교 사상

유학은 삼국시대 이래로 한문학 위주의 특징을 지녔으나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으로서 중대 왕권

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우리나라의 유학에 대한 기원은 고조선의 팔조법금을 비롯하여 그 전통이 오래된 것이다.²⁴⁾ 대체로 국가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의 태학(太學) 설치를 실질적인 기원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이 시기가 서울인 왕경을 중심으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서인 『유기(留記)』의 경우나 현존하는 금석문을 통해 볼 때 국민적인 활용은 시기가 떨어질 것이지만, 당시는 이두를 비롯하여 한자를 빌려 문장을 구성하여 의사를 전달한 차자법(借字法)의 응용이 있었다. 구체적 시기는 단정할 수가 없으나, 율령을 반포한 소수림왕 전후라고 볼 수 있다.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한 것이 삼국 가운데 가장 늦었으며, 처음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6세기부터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법흥왕 7년(520)에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公服)을 제정했으며, 처음으로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유교사상이 국가제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흥왕 6년(545)에 『국사(國史)』를 편찬하였고, 특히 순수비(巡狩碑)에 유교정치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태창 원년(568년, 진흥왕 29) 세차 무자년 10월 21일에 진흥대왕이 ㉔를 순수하여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 ㉔무릇 순풍이 일지 않으면 세도가 참됨에 어긋나고, 그윽한 덕화가 퍼지지 않으면 사악한 것이 서로 경쟁하도다. 그러므로 제왕이 연호를 세움에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㉔집은 역수가 몸에 이르러 위로는 태조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하나 하늘의 도리를 어길까 두렵다. 또 하늘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주며, 명명한 가운데 신지에 감응되어 부명에 부응하고 썩대에 적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친의 사절이 서로 통하여 오도다. ㉔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신구민(新舊民)을 무욕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베풀어짐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에 무자년 가을 8월에 관경을 순수하여 민심을 살펴서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자 한다. 만약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고 재난의 기미를 살피고, 적에게 용감하고 싸움에 강하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과 ㉔(상품)을 상으로 더하여 주고 공훈을 표창하고자 한다. 수레를 타고 나가 10월 2일 계해에 이르러 ... 인하여 변방지역을 설유하였다.²⁵⁾

24)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東書館, 1922, 1쪽.

25) “太昌元年 歲次戊子 ㉔廿一日 ㉔ ㉔興太王巡狩 ㉔ 刊石銘記也 ㉔夫純風不扇 則世道乖眞 化不敷 則耶爲交競 是以帝王建号 莫不修己 以安百姓 ㉔然朕歷數當躬 仰紹太祖之基 纂承王位 兢身自慎 恐違乾道 又蒙天恩 開示運記 冥感神祇 應符合竿 因斯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㉔府自惟忖 撫育新古黎庶 猶謂道化不周 恩施未有 於是 歲次戊子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以欲勞賚 如有忠信精誠 才超察厲 勇敵強戰 爲國盡節有功之徒 可加賞爵 ㉔以章勳勞 引駕日行至十月二日癸亥 向涉是達非里 ㉔廣 ㉔因諭邊界矣”(盧重國, 「磨雲嶺新羅眞興王巡狩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1992), 87~90쪽)

위의 기록은 「마운령신라진흥왕순수비」로서 현재 비는 북한의 함흥력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삼국사기』 등의 문헌 기록에는 551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위의 기록은 그 뒤에 계속 영토를 넓혀 마운령비는 진흥왕이 영토를 함경도 함흥지역까지 넓혔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568년에 진흥대왕이 순수하여 돌에 새겨 그것을 기념한 사실,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선정을 칭송한 부분, 변경지역을 두루 순수하고 백성들에게 훈시한 사실, 진흥왕을 따라 왔던 신료의 관직과 이름을 기술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진흥왕 당시의 정치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 ㉡부분에서는 유교사상을 통해 왕도를 구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부분에서는 도교사상으로 천지신의 도움을 받아 왕위를 계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절에 해당하는 유교사상에 대한 부분인 ㉠과 ㉡에 대해 언급하겠다. ㉠에서는 왕도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왕과 같은 연호를 세워 국가통치의 이념을 바로 하고자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흥왕은 태창이라는 연호를 세웠다. 그 이전에는 법흥왕 23년(536) 건원(建元)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세워 국가의 근본을 세웠음을 표방하였고, 진흥왕 12년(551)에는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세워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여 태후가 섭정하다가 18세에 친정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태창이란 진흥왕 때에 정복사업을 통해 영토를 크게 넓혀 국가의 앞날이 창성하게 되었음을 과시하면서 근본 통치이념을 유교의 왕도사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에서는 국가 통치의 구체적인 유교사상을 공표하고 있다. 568년 무렵 신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자 원래의 신라 백성(舊民)뿐만 아니라 새로이 편입된 백성(新民)에 대한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팽창된 국경까지 친히 순수하여 민심을 살피고 있다. 그리하여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 재난의 기미를 살피 적에게 용감하고 싸움에 강하여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과 상품을 더하여 상주고 공훈을 표창하는 회유책을 쓰고 있었다. 그 이전의 조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법흥왕 때에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524년)에는 노인(奴人)이라 하여 새로이 편입된 집단에 대한 명칭으로서 원래의 백성과 달리 차별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521년에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여 새로이 편입된 집단들을 원신라인과 같이 대우하는 법도를 마련하였으나, 그곳의 변방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이 법도를 재심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아 원신라인과 신민에 대한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도록 한 법도는 521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568년의 마운령순수비에서도 그대로 준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교사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어 점차 일반 지배층에게도 보급되어 갔는데, 다음의 금석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쓴다. 하늘 앞에 맹서하여,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를 잡아 유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 일[맹서]을 잃으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서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지면 가히 행할 것을 받아들임을 맹서한다. 또 따로이 먼저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서하였다. 시경·상서·예기·춘추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서하되 3년으로 하였다.²⁶⁾

이 비문은 612년(진평왕 34) 무렵에 신라 화랑으로 추측되는 젊은이 두 명이 3년 동안 유교의 사상과 도덕을 공부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나라를 위하여 적극 나설 것을 맹세한 사실로서 7세기 초반 신라에서 유교의 충효사상을 널리 수용하였음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자료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신라는 6세기 이후부터 유학을 배우기 위한 덕목으로서 수기치인(修己治人)·제왕건호(帝王建號) 등의 유교정치이념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신라의 유교정치이념은 7세기 전후 진평왕의 왕권강화 과정에서 고조되었으며, 당나라와의 외교경쟁에서 더욱 촉진되었다.⁴⁰⁾ 삼국의 대당외교(對唐外交)는 삼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 이후 당나라의 강경책을 완화시키기 위함 이었고, 백제 무왕(武王)과 신라의 진평왕은 각각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더구나 삼국은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함에 있어서도 서로 경쟁적이어서 대당외교가 지닌 정치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²⁷⁾ 신라 진덕여왕 2년(648)의 “김춘추가 당나라의 국학에 나아가 석존(釋尊)과 강론을 참관하기를 청했다”는 기사와 김춘추가 귀국할 때에 온탕바·진사바·『진서』를 가져온 내용,²⁸⁾ 그리고 여왕이 직접 수를 놓았다는 태평송(太平頌)에 의해 유교사상의 수용이 더욱 고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김춘추의 입당은 국학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으며,²⁹⁾ 신문왕 2년(682) 신라에도 유교교육기관인 국학제도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덕목이 국가관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 역할을 함으로써 왕도정치의 구현에 기여하였음이 특징이다.³⁰⁾ 따라서 신라는 진덕왕 때에 이르러 왕권강화의 필요성에서 유

26)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 大亂世 可容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廿二日大誓 詩尙書禮傳倫得 誓三年”(崔光植, 「壬申誓記石」,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 1992, 175~176쪽)

27) 申澄植, 「三國의 對外關係」,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314~315쪽.

28) “春秋諳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9年)

29)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1959, 666~667쪽.

교정치이념의 구체적 표현으로 김춘추의 귀국 직후인 진덕왕 5년에 국학의 실무관리를 둔 이래 신문왕 2년까지 교육제도를 갖추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학의 정비과정과 함께 율령을 통한 정치체제의 정비도 추진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신문왕 원년(681) 8월 서불한 진복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8일에 소판 김흠돌과진찬 흥원·대야찬 진공 등이 반란을 꾀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13일, 보덕왕이 소형 수덕개를 사신으로 보내 역적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16일,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범이요, 죄가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왕의 훌륭한 법도이다. 과인은 보잘 것 없는 몸과 두텁지 못한 덕으로써 숭고한 왕업을 이었기에, 먹는 것도 이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리에 들면서 충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려고 하였더니, 상중임에도 서울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으랴! 역적의 우두머리인 흠돌·흥원·진공 등은 재주가 있어 벼슬에 오른 것이 아니요, 관직도 실은 은전에 의하여 오른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실을 삼가 부귀를 보전하지 못하고 인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복과 위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관료들을 업신여겼다. 아래 위를 가리지 않고 모두 속였으며 날마다 탐욕스러운 생각을 멋대로 드러내고 난폭한 마음을 휘둘렀으며, 흉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불러들이고 궁중의 내시들과 서로 결탁하여 화근이 안팎으로 통하게 하였으며 못된 무리들을 모아 날을 정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내가 위로는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조상의 신령스러운 보살핌을 받아, 흠돌 등의 악행이 쌓이고 가득 차자 그 음모가 탄로나게 되었다. 이는 곧 사람과 귀신이 모두 배척하는 바요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를 범하고 풍속을 해치는 일에 있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병사들을 모아 못된 무리를 없애고자 하였더니, 어떤 자는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고 어떤 자는 대궐 뜰에 와서 항복하였다. 가지나 잎사귀 같은 잔당들은 이미 모두 죽여 없앴으며, 앞으로 사나흘 안에 죄인의 우두머리들도 모두 소탕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조치였으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근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 한시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미 요망한 무리들을 숙청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 염려할 것이 없으니, 소집하였던 병마를 속히 돌려보내고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28일에 이찬 군관의 목을 베고 다시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임금을 섬기는 법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근본이며, 벼슬살이하는 의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으뜸이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반열의 순서에 따라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임금의 실수와 결점을 보좌하여 결백한 절개를 조정에 바치지 못했고, 명령을 받으면 제 몸을 잊어가며 사직에 충성을 표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역적인 흠돌 등과 사귀면서 그들이 반역을 꾀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미리 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공적인 일을 위하여 몸 바칠 뜻도 없는 것이니, 어찌 재상 자리에 두어 나라의 현장을 함부로 흐리게 할 것인가? 무리들과 함께 처형함으로써 뒷사람들을 경계로 삼는 것이 마땅하리라. 군관과 그의 친아들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고, 멀고 가까운 곳에 포고하여 모두가 이것을 알게 하라.” 31)

30) 李基白, 「儒敎受容의 初期形態」,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195~297쪽.

위의 교서는 국가의 관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유교적 자세를 저버리고 불충을 저질러 신라와 대립한 당나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 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648년 김춘추가 당에 들어가서 당 태종과 맺었던 나당동맹은 당나라가 백제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마저 복속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으며, 위기를 감지한 신라 지배층은 국가의 보전을 위해 왕권을 중심으로 자주적인 대응을 전개하면서 친당세력을 제거함과 동시에 당군을 대동강-원산만 이북으로 축출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무열왕은 즉위 초에 이방부의 격 60여 조를 고치게 하였다.³²⁾ 율령 관청으로서 법률·소송·형옥 등을 담당한 이방부는 진덕여왕 5년인 651년에 설치되어 운영해 왔으며, 무열왕 때에 형법을 개정한 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통해 합법적인 왕권으로 더욱 강화하였던 것이다.³³⁾ 또한 율령의 강화책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귀족의 반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정치적 효과는 문무왕대에 일어난 반란을 적발하고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대 왕권은 당의 율령체도를 적극 수용하여 왕권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삼국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갔던 것이다. 중대 왕권에 반대한 귀족세력은 당과의 연계를 모색하면서 왕권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귀족세력은 크게 결집되지 못하여 율령적인 친왕세력에 의해 각개격과 당하였던 것이다. 위의 교서에 보이는 조치는 중대 왕권이 율령체제에 입각한 유교정치를 강화하려는 신호탄이었다. 이러한 유교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신라의 국왕은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며, 아래 사람이 위사람을 섬기기를 자기 부형과 같이한다.³⁴⁾

31) “元年 八月 拜舒弗邯眞福 爲上大等 八日 蘇判金欽突波珍浪與元大阿浪眞功等 謀叛伏誅 十三日 報德王遣使小兄首德皆 賀平逆賊 十六日 下教曰 賞有功者 往聖之良規 誅有罪者 先王之令典 寡人以眇躬涼德 嗣守崇基 廢食忘餐 晨興晏寢 庶與股肱 共寧邦家 豈圖縲絰之內 亂起京城 賊首欽突與元眞功等 位非才進 職實恩升 不能克慎始終 保全富貴 而乃不仁不義 作福作威 侮慢官寮 欺凌上下 比日逞其無厭之志 肆其暴虐之心 招納凶邪 交結近堅 禍通內外 同惡相資 剋日定期 欲行亂逆 寡人上賴天地之祐 下蒙宗廟之靈 欽突等惡積罪盈 所謀發露 此乃人神之所共棄 覆載之所不容 犯義傷風 莫斯爲甚 是以追集兵衆 欲除梟鏡 或逃竄山谷 或歸降闕庭 然尋枝究葉 並已誅夷 三四日間 囚首蕩盡 事不獲已 驚動士人 憂愧之懷 豈忘旦夕 今既妖徒廓清 遐邇無虞 所集兵馬 宜速放歸 布告四方 令知此意 二十八日 誅伊浪軍官 教書曰 事上之規 盡忠爲本 居官之義 不二爲宗 兵部令伊浪軍官 因緣班序 遂升上位 不能拾遺補闕 效素節於朝廷 授命忘軀 表丹誠於社稷 乃與賊臣欽突等交涉 知其逆事 曾不告言 既無憂國之心 更絕徇公之志 何以重居宰輔 濫濁憲章 宜與衆棄 以懲後進 軍官及嫡子一人 可令自盡 布告遠近 使共知之”(『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神文王 元年)

32) “五月 命理方府令良首等 詳酌律令 修定理方府格六十餘條”(『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元年 5月)

33) 李基東, 「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 『震檀學報』 50, 1980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120~121쪽.

34) “新羅其君仁而愛民 其臣忠以事國 下之人事其上 如父兄 雖小不可謀也”(『三國史記』卷42, 列傳, 金庾信傳 中)

이 기록은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정벌한 직후에 당나라 황제에게 올린 보고로서 신라사회에 뿌리내린 유교사상의 뿌리내림을 엿볼 수 있다.

다음 국학은 율령적 왕권의 확립과 유교정치 구현의 상징으로 설치되었으며, 선정의 명분과 국왕의 교서나 조서의 내용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국학은 중대 왕권의 등장과 확립과정에서 수반되는 왕권강화와 유교정치이념의 구현이라는 현실적 목적과 통일전쟁 후 문치주의(文治主義)의 지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진골귀족 위주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인 6두품 계열을 흡수함으로써 율령적 왕권의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제한적이지만 관리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³⁵⁾ 국학의 완비는 율령적 왕권과 6두품 계층의 정치적 타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학의 설치는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의 필요성을 높여주었으며, 사회의 윤리적 덕목과 국민의 교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가르치는 방법은 『주역(周易)』, 『상서(尙書)』, 『모시(毛詩)』, 『예기(禮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선(文選)』으로 구분하여 과정을 삼았으며, 박사와 조교 1명이 『예기』, 『주역』, 『논어(論語)』, 『효경(孝經)』을 가르치거나 혹은 『춘추좌씨전』, 『모시』, 『논어』, 『효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상서』, 『논어』, 『효경』, 『문선』을 가르쳤다. 여러 학생의 독서에는 3품 출신이 있다. 『춘추좌씨전』이나 『예기』, 『문선』을 읽어 그 뜻이 잘 통하고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를 상품으로 한다.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으로 하고, 『곡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한다. 다만 5경·사서와 제자백가의 책을 아울러 능통하는 자가 있으면 초탁해서 등용한다.³⁶⁾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국학에서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3품으로 선발하되, 특히 우수한 자는 특채의 은전을 주고 있었다. 『효경』은 3품 공통 시험과목이었음에서 미루어 보아 통일신라의 유학은 도덕이상주의적인 정치이념으로 대표된다고 하겠다.³⁷⁾ 결국 독서출신과는 국학에서 수학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절차였으며, 그 중에서 일부가 수령(守令)으로 임명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적(文籍) 출신이 아니므로 수령직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학출신이 관직에 진출하였다는 근거와 함께 큰 의미를 지닌다. 결국 엄격한 골품제사회 안에서도 유학의 실력에 따라 인물이 발탁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지방 수령직이 목민관으로서 인식되

35) 李基白, 앞의 책, 230쪽.

36) “教授之法 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尙書論語孝經文選 教授之 諸生讀書 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 若禮記 若文選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三國史記』卷38, 志7, 職官 上)

37)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I(古代編), 一潮閣, 1982 388쪽.

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통일신라시대 유학의 발달은 무엇보다도 도당유학생(渡唐留學生)인 숙위학생들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다. 6두품 계열의 이들 지식인은 진골 위주의 신라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수학과 활동이 보장된 당나라 국학에서 빈공과(賓貢科)를 통하거나 그곳의 문인·학자들과 교류(交遊)하여 선진문물을 체득한 전환기의 지식집단이 되었다. 그 후 일부는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유교예속을 지방사회에 보급한 바 있었고, 문한기구인 한림직(翰林職)과 국왕 측근의 근시직(近侍職)에 종사함으로써 왕권의 강화 내지 유교정치의 풍토를 주도하였다.³⁸⁾ 이들은 골품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고위직에 올라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불우한 일생을 마쳤으나, 신라에 중국문화를 소개하였고 과거제도와 국사 편찬의 국가적 필요성을 제시하여 새로운 사회인 고려왕조의 건설에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유교에다 불교·도교까지 포용하여 고려왕조가 지향한 유불의 조화라는 시대정신을 이끌어 나팔여초의 사상적 연결을 꾀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3.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문화와 신앙

무열왕이 즉위하여 중대가 시작되면서 7세기 중반의 신라 왕실은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이념으로 유교가 영향력을 확대해 갔으나, 상대적으로 불교의 역할은 위축되었다. 유학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당문화의 수입과 외교문서의 작성 등 이전에 승려들이 맡아왔던 정치·자문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이와 함께 왕명도 불교식왕명(佛敎式王名) 시대에서 한식시호(漢式諡號) 시대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유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어가는 사상계의 동향에 상응하여 삼국의 불교를 종합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불교사상을 담아낼 새로운 불교사상체계의 확립과 기층민들에게까지 널리 불교를 이해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불교사상의 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삼국시대 신라불교사상에 대해 언급해 두겠다. 고구려·백제와 달리 신라는 불교의 공인과정에서 왕권과 귀족세력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 원래 외래의 고등 종교는 토착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토착신앙과의 융합이 선결과제였다. 신라는 처음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전래되었다. 눌지왕 때에는 변경의 일선(一善 : 경상북도 선산) 지역에 불교가 포교되었으나, 침향(沈香)과 주술(呪術)로 공주의 병을 낫게 함으로써 왕실에서도 받아들였다. 침

38)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歷史學報』 77, 1978 :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1984, 233~239쪽.

향이라는 불교식 의례와 고유 신앙의례와 유사한 주술을 행함으로써 신라인들에게 낯설기 보다는 더 친근한 의례로 인식되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을 중심으로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귀족세력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로 해소되어 차츰 고유신앙과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불교의 윤회설과 인연설에 근거하여 신라 왕실이 인도의 석가족(釋迦族)이라는 진종설화(眞種說話)를 형성하였으며, 나아가 진흥왕은 전륜성왕(轉輪聖王)에 비견되었다. 이 관념은 미륵신앙과 관계가 깊었으며,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인식되어지면서 그 동안 왕권과 귀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타협점을 찾아내었던 것이다. 신라의 초기 불교는 주술적 성격이 강한 밀교(密敎)의 경향이 강하였으므로, 신라사회에 현세기복적 성격이 강한 신앙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 이차돈의 예언도 밀교의례 가운데 진언(眞言)을 외우는 구밀(口密)로서 일종의 주술이었다. 그리고 불교의 인연설에 입각하여 신라가 석가불 이전의 전불(前佛)과 인연이 깊었다는 믿음이 생겨나 7곳의 소도(蘇塗) 터에 사찰[전불칠처가람(前佛七處伽藍)]을 건립하게 되었다. 즉 천경림(天鏡林)에 흥륜사(興輪寺), 삼천기(三川岐)에 영흥사(永興寺), 용궁남(龍宮南)에 황룡사(黃龍寺), 용궁북(龍宮北)에 분황사(芬皇寺), 사천미(沙川尾)에 영묘사(靈妙寺), 신유림(神遊林)에 사천왕사(四天王寺), 서청전(婿請田)에 담엄사(曇嚴寺) 등을 창건한 것이다.

이러한 불연국토설(佛緣國土說)은 신라불교의 큰 특징의 하나가 되었다. 신라 불연국토설의 확립에 지대한 구실을 한 승려는 자장(慈藏 : 590~658)이었다. 자장은 입당구법승(入唐求法僧)으로 643년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대장경과 번당(幡幢)·화개(華蓋) 등을 가지고 7년 만에 귀국하여 궁중에서 대승론(大乘論)을 설하고, 황룡사에서 보살계본(菩薩戒本)을 강하여 불교의 흥통(弘通)을 통한 국민 교화에 힘썼다. 그리고 계를 받고 불교에 귀의하는 법도를 확립했으며, 불도에 입문하는 자를 위해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하고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았다. 불교 교단의 기강을 바로하기 위해 시험과 계(戒)를 통해서 승려들을 관장하고 순검사(巡檢使)로 하여금 지방의 사찰을 감찰하도록 하였다. 자장이 불교 교단의 규율을 확립하였던 업적과 함께 입당구법승으로서 교학 연구의 선구를 이룬 것은 원광(圓光 : 555~638)이었다. 승려 안홍(安弘 : 579~640)은 불국토 신라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황룡사구층탑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자장이 추진하였다.

원광은 신라 최초의 여래장(如來藏) 사상가였으며, 점찰법회(占察法會)를 도입하여 불교의 토착화·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술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당시, 주술을 불교의 수계와 참회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불교의 토착화를 꾀하였다. 원광의 여래장사상은 공(空)에 기초한 불교의 진리를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삼아 현실을 포용하는 사상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통일신라 불교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원광은 현실세계에도 참여하여 화랑도의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제시하였으며, 진평왕의 요청에 의해 수나라에 결사표(乞師表)를 쓰기도 하였다. 613년 수나라의 사신이 왔을 때 황룡사에서 인왕백고좌(仁王百高座) 법회가 주관하였는데, 이는 호국불교의 신앙을 강조한 것이다. 원광은 세속법과 불법을 이원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국가를 최우선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불교가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던 한편으로, 일반 민들에 대한 불교 교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혜숙(惠宿)·혜공(惠空)·대안(大安) 등 하급신분 출신의 승려들이 주도하여 대중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승려는 권력을 멀리하고 대중들에게 쉬운 말로 불교의 뜻을 풀이해주고 천도재(薦度齋)의 거행 등의 의식을 통해 불교신앙을 생활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강력한 율령적 왕권을 지지했던 것은 명랑(明朗)의 신인종(神印宗)이었다. 신인종은 약사(藥師)신앙을 매개로 삼국시대 이래의 주술과 치병(治病)을 수행하면서 새로이 사천왕(四天王)신앙을 통해 신라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 7세기 후반 한때나마 신라불교의 주축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유식(唯識) 중심의 교학 기반 위에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고구려나 백제에서 발달한 삼론학(三論學)이나 천태학(天台學)의 중관파(中觀派) 불교 교학이 신라에 전해짐으로써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이는 곧 중관파와 유가파(瑜伽派)의 교리적 대립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낳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발전과 왕권의 강화작업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국가불교의 한계와 모순을 반성하고 국가의 세속적 목적과 불교의 출세간적 가치관 사이의 사상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한 과제가 되었다.³⁹⁾ 이는 이 시기에 크게 신장되던 기층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들의 신앙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교교리에 대한 연구와 대중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뚜렷한 종파가 형성되어 광범한 불교의 대중화와 독자적 교학체계가 확립되었다. 통일기 교학 활동의 중심은 유식과 화엄이었다. 유식은 유가론(瑜伽論)을 소개한 원측(圓測)의 활약으로 정착되었는데, 그는 식설(識說)과 삼성설(三性說)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하였다. 그의 불교사상은 포용과 화해의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순경(順憬)·경흥(憬興)·태현(太賢) 등으로 이어져 법상종(法相宗)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본 절에서 추구해야 할 대상에서 주목되는 승려는 원효와 의상이다.

39) 崔柄憲, 「新羅 佛教思想의 展開」, 『歷史都市 慶州』, 열화당, 1984, 379~381쪽.

원효(617~686)는 중국으로 가기 위하여 의상과 함께 요동으로 갔으나, 고구려의 순라군에게 잡혀 정탐자로 오인 받고 돌아왔다. 10년 뒤 661년(문무왕 원년)에 다시 의상과 함께 당 나라로 떠나려 하였으나, 배를 타러 당항성(唐項城 : 경기도 화성)으로 가던 길에서 진리는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되돌아왔다. 밤에 오래된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해골에 끈 물을 마시고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40)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다양한 교학의 섭취와 낭지(朗智)·사복(蛇福) 등 많은 스승을 섭렵하면서 자유로운 구도생활과 왕실의 지원 등을 통해 국민교화와 종파성의 극복과 화해를 지향하였다.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은 ‘공’ 관념을 토대로 하는 여래장사상의 중관파와 현실의 설명원리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을 설정하는 유식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200여 권의 저술을 통해 교파간의 갈등과 차이와 ‘공(空)과 유(有)의 대립’을 극복하는 융통(融通)·무애(無碍)한 화합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원효는 혜숙혜공대안 등을 이어 불교대중화에도 적극 나서서 중생의 불성(佛性)을 기반으로 발심(發心)과 염불을 강조한 일심(一心)의 정토관(淨土觀)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실천하는 이상형으로 선택한 거사(居士)는 지역 및 신분을 초월하여 본질적으로 평등한 중생들의 내면적 각성을 촉구하였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이상사회인 정토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의상(義湘, 625~702)은 현장(玄奘)이 인도에서 새로 들여온 신유식(新唯識)을 배우기 위해 중국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고 원효와 함께 요동으로 갔으나, 고구려의 순라군에게 잡혀 정탐자로 오인 받고 돌아왔다가 10년 뒤 661년에 당나라 사신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갔다. 중국 화엄학의 기초를 다진 지엄(智嚴)으로부터 8년 동안 화엄을 공부하였고, 669년 의상은 당나라 고종(高宗)이 신라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신라에 알리기 위해 귀국하여 화엄대교(華嚴大教)를 펴기 시작하였다.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통해 화엄일승(華嚴一乘)의 연기법을 밝히는 동시에, 그는 세예법(洗穢法)을 통해 이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특히 의상의 화엄사상은 중생 사이의 조화와 평등을 의미하는 원융(圓融)사상과 중생을 제도하는 보현행원(普賢行願)사상으로 대표된다. 의상은 왕경과 중앙귀족의 편향성을 극복하면서 지방사회와 중생을 중시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을 전개하여 서민을 교화시키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신라 불국토신앙을 계승하여 인도에서 정착되었던 관음진신상주(觀音眞身常住)신앙을 수용하여 동해 낙산사를 상주

40) “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宋高僧傳』卷4, 義解2, 唐 新羅國 義湘傳)

도량으로 삼았다. 이는 자신의 화엄교학을 선양하기보다 신앙활동에 중점을 두어 신라 사회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의상은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화엄교단의 중심 신앙으로 전개하여 통일신라사회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동시에 그는 ‘일즉다다즉일(一卽多多卽一)’의 화엄법계연기설(華嚴法界緣起說)을 풀이하여 연기의 핵심을 중도의(中道義)로 파악하였다. 화엄법계연기설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라도 홀로 있거나 일어나는 일이 없이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사상으로, 서로 대립하고 항쟁을 거듭하는 국가와 사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대립도 지양시킴으로써 마음을 통일하게 하는 교설이다. 따라서 신라 국가의 율령정치체제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진정(眞正)·표훈(表訓)·지통(智通)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법통은 신라 화엄학을 주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승려들의 활동은 통일신라 불교계에 미타신앙·관음신앙·미륵신앙·지장신앙 등도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불교의 평등·자비사상은 기층민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었다.

4.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와 고성군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사상을 언급하였듯이, 삼국시대부터 신라는 수기치인(修己治人)·제왕건호(帝王建號) 등의 유교정치이념을 비롯하여 ‘순풍(純風)’·‘현화(玄化)’ 등의 도교사상도 함께 부각되고 있었다. 682년 국학(國學)이 설치되기 이전에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화랑도(花郞道)가 있었다. 화랑도는 본래 ‘사람들을 모아 선비를 선발할 목적으로’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 교육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선교를 통한 교육이었으나, 점차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원광(圓光)법사의 ‘세속오계’는 화랑도 정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충·효·신·용·지 등의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7세기 초반에 건립된 ‘임신서기석’에는 화랑들이 『상서』 등 유교경전 배우기를 결의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점으로 보아, 화랑도는 유교와도 관계가 밀접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성립된 교학불교는 중관의 ‘공’ 사상과 ‘유식’ 사상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중대 율령적 왕권이나 사회 안정에 부응함으로써 불국토 내의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먼저 유교사상이 지방사회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겠다. 신문왕 때에 완성된 국학은 중대 왕권의 등장과 확립과정에서 수반되는 왕권강화와 유교정치이념의 구현이라는 현실적 목적

과 통일전쟁 후 문치주의의 지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골품 제도에 의해 굳어진 지배체제 아래 진골귀족 위주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문무왕 이래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반대 귀족세력의 반발을 제압하면서 소외계층인 6두품 계열을 흡수함으로써 율령적 왕권의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었다. 이로써 6두품 계열은 제한적이지만 관리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독서출신과는 국학에서 수학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절차였으며, 그 중에서 일부가 군태수와 현령 즉 수령으로 임명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적(文籍) 출신이 아니므로 수령 직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학출신이 지방관직에 진출하여 유교정치의 이념이 전국에 적용되어 간다는 데에 큰 의미를 지녔다. 결국 엄격한 골품제사회 안에서도 유학의 실력에 따라 인물이 발탁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지방 수령직이 목민관으로서 인식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하여 유교사상을 익힌 숙위학생도 지방관으로 진출하였는데, 관련 기록을 통해 해당 인물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숙위학생의 지방관 역임표

인 명	관 직	전 거
金 巖	良康漢州의 太守, 溟江頭上	『三國史記』 卷43, 열전6, 金庾信傳 하
金雲卿	長沙縣副守	「長興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子 玉	楊根縣小守	『三國史記』 卷10, 신라본기10, 원성왕 5년
梁 悅	豆盼縣小守	『三國史記』 卷10, 신라본기10, 원성왕 5년
金立之	秋城郡太守	「昌林寺無垢淨塔願記」
金 竣	榻城郡太守·西京小尹	『三國史記』 卷46, 열전6, 崔致遠傳
崔致遠	富城郡太守	『三國史記』 卷46, 열전6, 崔致遠傳

이들 가운데 김운경·김입자·김준 등 일부 귀족은 진골 출신도 있지만, 나머지 인물이 6두품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진골 귀족뿐만 아니라 6두품 출신들도 독서출신과외에 당에 유학한 숙위학생 출신으로서 관직에 진출하여 유교정치이념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고성군의 태수를 역임한 인물로 이름난 김양(808~857), 그리고 그의 사촌형 김흔(803~859)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양의 자는 위흔(魏昕)이니, 태종대왕의 9세손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이찬 주원(周元)이요, 할아버지는 소판 종기(宗基)이며, 아버지는 파진찬 정여(貞茹)이니 모두 대대로 장관과 재상이었다. 김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하였다. 태화 2년, 흥덕왕 3년(828)에 고성군태수(固城郡太守)가 되었으며, 얼마 안 있어 중원(충청북도 충주) 대윤(大尹)으로 임명되었다가 곧 무주(광주) 도독(都督)으로 전임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정치를 잘한다는 칭송을 들었다. 개성 원년(836) 병진에 흥덕왕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을 적장자가 없자 왕의 사촌동생 균정과 다른 사촌동생의 아들 제룡이 서로 왕위를 이어받고자 다투었다. 이때 김양은 균정의 아들인 아찬 우징과 균정의 매부인 예징과 함께 균정을 받들어 왕으로 삼고 적판궁(積板宮)에 들어가 사병으로서 숙위케 하였다. 그때 제룡의 일당인 김명, 이홍 등이 적판궁을 포위하였다. 김양은 병사들을 궁문에 배치하여 그들을 막으면서 말했다. “새 임금의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이 어찌 감히 이처럼 흉악하게 거역하느냐?” 그는 드디어 활을 당겨 십여 명을 쏘아 죽였는데 제룡의 부하 흰백이 김양을 쏘아 다리를 맞았다. … 개성 4년 정월 19일, 김양의 군사가 대구에 도착하자 민애왕이 병사를 보내 항거하였다. 김양의 군대가 이들에 맞서 싸우니 왕의 군대가 패배하여, 생포되거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때에 왕이 허둥지둥 도망하여 이궁으로 갔으나 병사들이 찾아내어 죽여버렸다. 김양이 이에 주위의 장군에게 명하여 기병들을 인솔하게 하고 군령을 내렸다. “이 싸움은 본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 수괴가 죽었으니 의관과 남녀 백성들은 각자 안심하고 살 것이며 합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가 드디어 왕성을 수복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김양이 흰백을 불러 말했다. “개는 저마다 제 주인이 아니면 짚는 법이다. 너는 내 주인을 위하여 나를 쏘았으니 의사로다! 내가 꾀넘치 앓을 것이니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흰백에게도 저렇게 하니 나머지가 무슨 걱정이라” 그들은 감복하며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4월에 왕궁을 깨끗이 정리하고 시중 우징을 맞아들여 왕위에 오르게 하니, 이가 바로 신무왕이다. 신무왕이 7월 23일에 돌아가시고 태자가 왕위를 이으니, 이가 문성왕이다. 김양의 공로를 추가로 기록하여 소판 겸 창부령을 제수하고, 다시 시중 겸 병부령으로 전임하였다. 당의 사신이 신라에 왔을 때 찾아와서 공에게 검교위위경(檢校衛尉卿)을 제수하였다. 대중 11년(857) 8월 13일에 김양이 자기 집에서 죽으니 향년 50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대왕은 애통해하며 서발한을 추증하고, 부의와 장사를 모두 김유신의 전례에 따랐다. 그해 12월 8일에 태종대왕의 능 곁에 묻었다.⁴¹⁾

41) “金陽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 曾祖周元伊浪 祖宗基蘇判 考貞茹波珍浪 皆以世家爲將相 陽生而英傑 太和二年 興德王三年 爲固城郡太守 尋拜中原大尹 俄轉武州都督 所臨有政譽 開成元年丙辰 興德王薨 無嫡嗣王之堂弟均貞 堂弟之子悌隆 爭嗣位 陽與均貞之子阿浪祐徵均貞妹塔禮徵 奉均貞爲王 入積板宮 以族兵宿衛 悌隆之黨金明利弘等來圍 陽陳兵宮門 以拒之曰 新君在此 爾等何敢兇逆如此 遂引弓射殺十數人 悌隆下妻萱伯 射陽中股(中略) 四年正月十九日 軍至大丘 王以兵迎拒 逆擊之 王軍敗北 生擒斬獲 莫之能計 時 王顛沛 逃入離宮 兵士尋害之 陽於是命左右將軍領騎士 徇曰 本爲報讐 今 渠魁就戮 衣冠士女百姓 宜各安居 勿妄動 遂收復王城 人民案堵 陽召萱伯曰 犬各吠非其主 爾以其主射我 義士也 我勿校 爾安無恐 衆聞之曰 萱伯如此 其他何憂 無不感悅 四月清宮 奉迎侍中祐徵卽位 是爲神武王 至七月二十三日 大王薨 太子嗣位 是爲文聖王 追錄功 授蘇判兼倉部令 轉侍中兼兵部令 唐聘問 兼授公檢校衛尉卿 大中十一年八月十三日 薨于私第 享年五十 訃聞 大王哀慟 追贈舒發翰 其贈賻殮葬 一依金庚信舊例 以其年十二月八日 陪葬于太宗大王之陵”(『三國史記』卷44, 列傳4, 金陽傳)

김양의 사촌형 김흔은 자가 태(泰)이며 아버지 장여(璋如)는 벼슬이 시중 파진찬에 이르렀다. 김흔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장경 2년(822)에 헌덕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려 했으나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김흔을 추천하며 ‘이는 태종의 후예로 정신이 밝고 빼어나며, 도량이 깊고 침착하니 뽑아 보낼 만하다’ 라고 하므로, 드디어 그를 당에 들여보내 숙위하게 하였다. 그가 한 해 남짓 당에 있다가 돌아가기를 청하니, 황제가 조서를 내려 금자광록대부시태상경(金紫光祿大夫試太常卿)을 제수하였다. 그가 귀국하자 국왕은 그가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남원 태수를 제수하였다. 그 후 여러 번 자리를 옮겨 강주 대도독이 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이찬 겸 상국 벼슬이 더해졌다. 그는 개성 기미운 정월(839)에 대장군이 되어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대구에서 청해진의 병사를 막다가 패하였다. 그는 자신이 전쟁에서 패하였고 또한 전사하지도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 소백산에 들어가 갈옷을 입고 나물밥을 먹으며 중들과 함께 지내다가 대중 3년(859) 8월 27일에 병으로 산막에서 죽으니 향년 57세였다. 그해 9월 10일에 내령군(경상북도 순흥) 남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 아들이 없어서 그의 부인이 상사(喪事)를 주관하였는데, 그녀는 후에 비구니가 되었다.⁴²⁾

태종무열왕의 9세손 김양은 재상가에서 태어나 지방관으로 출사(出仕)하여 흥덕왕 3년(828)에 고성군(경남 고성) 태수가 되었으며,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고 요직을 두루 거쳤다. 839년에는 쿠데타로 즉위한 민애왕을 제거하고 김우징(신무왕)을 추대하는 공을 세웠다. 857년 50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김유신(金庾信)에 준하는 장례를 치르게 할 정도로 추앙을 받았다. 그리고 836년 흥덕왕 사후 왕위계승쟁탈전 때에 자신을 활로 쏘아 다치게 했던 배훤백을 비롯해 민애왕 정권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관대하게 용서해 인심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태종무열왕의 9세손 김흔은 김양의 사촌형으로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숙위 학생 출신으로서 유교적 소양을 함양하여 지방관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양과 달리 김흔은 민애왕을 지지하였다가 김양의 군대에게 패배하자 절개를 지켜 은둔해 버렸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아 지방관으로서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한 선정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개를 지키거나 의리를 숭상하여 적도 관대히 용서해주는 인의를 베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관료들은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하여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42) “從父兄昕 字泰 父璋如 仕至侍中波珍浪 昕幼而聰悟 好學問 長慶二年 憲德王將遣人入唐 難其人 或薦斯太宗之裔 精神朗秀 器宇深沈 可以當選 遂令入朝宿衛 歲餘請還 皇帝詔授金紫光祿大夫試太常卿 及歸 國王以不辱命 擢授南原太守 累遷至康州大都督 尋加伊浪兼相國 開成己未閏正月 爲大將軍 領軍十萬 禦清海兵於大丘 敗績 自以敗軍 又不能死綏 不復仕宦 入小白山 葛衣蔬食 與浮圖遊 至大中三年八月二十七日 感疾終於山齋 享年四十七歲 以其年九月十日 葬於奈靈郡之南原 無嗣子 夫人主喪事 後爲比丘尼”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昕傳)

양의 예를 통해 볼 때, 고성군에서도 유교적 예속이 보급되어 갔던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김양이 흥덕왕 3년(828)년에 고성군태수가 되었다’ 고 하고 ‘열락정(悅樂亭)이 죽도에 있다’ 고 한다.⁴³⁾ 열락정에 대해서는 고성읍 서외리 오거리에서 남쪽으로 수남리의 남포 쪽으로 가는 도중에 약 500m로 가면 사거리 남쪽 고성군보건소로 가는 길 오른쪽에 낮은 언덕(남북 150m 동서 40m)이 대섬 즉 죽도였으며, 1914년 간척지 제방공사로 매립되어 육지로 변하였다. 그리고 대섬의 산을 낙열산(樂悅山)이라 하는데, 김양이 고성군태수로 부임하여 이곳에 낙열정(樂悅亭)을 지어 거처하였다고 전한다.⁴⁴⁾ 현재의 지도로 보면 고성군 보훈회관(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93) 서쪽 숲이 있는 자리이다. 문헌 기록과 현재 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1757년(영조 33)에서 1765년까지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아 엮은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에 이르기까지 원래 열락정으로 전하던 것이⁴⁵⁾ 낙열정으로 와전되었던 것 같다.

열락(悅樂)이란 군자삼락(君子三樂)을 말하는 것으로 공자(孔子)는 우리를 이익되게 하는 세 가지 즐거움을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익한 세 가지 즐거움은 예악을 절도에 맞게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착함을 말하기를 좋아하며, 어진 벗을 많이 가지기를 좋아함이다.”⁴⁶⁾

맹자(孟子)는 『맹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양친이 다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번째 즐거움이요, 우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군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는 통일하여 왕이 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⁴⁷⁾ 특히 맹자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국가를 경영할 경륜도 없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함도 없으면서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오직 전쟁을 통해 패자(覇者)가 되려고만 했던 당시 군왕들에게, 왕노릇보다 기본적인 사람이 되라고 질책하면서 유교적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김양은 고성군을 잘 다스려 칭송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쌓아올린 명망을 바탕으로 가는 고을마다 선정을 베풀고 유교적 예속을 보급해갔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유교 예속(禮俗)은 지방관들의 노력과 백성들의 호응에 의해 정착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 되었음을

4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固城縣 名宦條 및 樓亭條.

44) 河琪鎬, 「9. 대섬에 숨겨진 이야기」, 『固城郷土史研究』, 2013, 219쪽.

45) 『輿地圖書』 下, 慶尙道 固城郡 山川條.

46) 『論語』 季氏篇 “益者三樂 樂節禮樂 樂道人之善 樂多賢友”

47) 『孟子』 盡心篇 “君子有三樂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 而教育之 三樂也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알 수 있다.

한편 불교사상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는데, 의상의 화엄사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의상은 676년(문무왕 16)에 부석사(浮石寺)를 세우기까지 화엄사상을 펼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을 편력하였다. 그가 건립한 사찰은 부석사를 비롯하여 중앙(中岳) 팔공산 미리사(美里寺), 남악(南岳) 지리산 화엄사(華嚴寺), 강주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웅주 가야현 보원사(普願寺), 계룡산 갑사(甲寺), 삭주 화산사(華山寺), 금정산 범어사(梵魚寺), 비슬산 옥천사(玉泉寺), 전주 모악산 국신사(國神寺) 등 화엄십찰(華嚴十刹)이다. 고성군에도 운흥사(雲興寺) 옥천사(玉泉寺) 등을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옥천사는 고려시대 1208년(희종 4)에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수선사(修禪社)의 법석(法席)을 물려주려 하자 그 뜻을 뿌리치고 이곳으로 은둔하여 정진한 혜심(慧謙)이 중창하였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곳이다. 통일신라시대 고성군의 두 사찰은 화엄종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옥천사라는 사찰 이름이 의상의 화엄십찰과 연관되어 있어 고성이라는 지방사회에도 화엄신앙이 보급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진흥왕대 이후 영토 확장에 따라 확대 정비된 지방통치체제에 수반해 지방으로 불교를 보급하여 지방민의 교화에 힘쓰게 되었다.⁴⁸⁾ 불교 교단의 통제를 위한 승관제도(僧官制度)를 마련하여 중앙에 국통(國統)을 두고 있었으며, 점차적으로 지방에도 설치하여 주통(州統) 9인과 함께 군통(郡統) 18인이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827년(흥덕왕 2)에 만들어진 『중초사당간석주기(中初寺幢竿石柱記)』 나 833년에 만들어진 청주(진주)의 『연지사종기(蓮池寺鐘記)』에 의하면 각각 한산주(漢山州)와 청주에 주통이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879년(헌강왕 5)에 건립된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문(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이하 지증대사비라 약칭)에 경기도 이천에 남천군통(南川郡統)이 존재하고 있어 신라 말기까지도 승관직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승관제도를 통해 볼 때 지방관의 유교적인 지방통치와 아울러 불교 신앙을 보급하여 지방민의 교화에 힘쓰게 되었던 것이다.

유교 및 불교와 더불어 도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교는 중국적인 표현으로 한국 고유인 산신신앙 및 신선사상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신선사상은 일찍부터 발생하여 삼국시대는 물론 통일신라에서 후대에까지 유행하면서 전승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신선사상의 유행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효성왕 2년(738)에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등의 서적이 유입된 점이다.⁴⁹⁾ 신라 하대사회에 신선사상의 전개는 도덕

48) 李弘植, 「新羅僧官制와 佛教政策의 諸問題」,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1959 :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1971, 495~496쪽.

경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으며, 그것은 신라 고유의 토착사상이나 신앙에 근거하여 유교나 불교신앙과 융합하여 유행하였다. 유불선 3교가 융합하여 신라 토착의 고유한 정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최치원이 찬한 『난랑비(鸞郎碑)』의 서문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 이름은 풍류(風流)이다. 그 교를 만든 근원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그 핵심은 유불선 3교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벼슬하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나라 사구(司寇 : 공자)의 가르침이요, 무위(無爲)한 일에 처하고 불언(不言)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柱史 : 노자)가 으뜸으로 세운 바이며, 모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착한 일만 수행하는 것은 인도 축견태자(竺乾太子 : 석가)의 교화이다”⁵⁰⁾라고 하였다.

신라 불교신앙 속에는 토착신앙이 많이 가미되어 있었다. 의상이 창건한 낙산사의 관음은 여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성덕왕 때에도 여인으로 화생하여 노힐부득(努唎夫得)과 달달박박(怛怛朴朴)을 각각 미륵과 미타로 성불시킨 관음도 모두 토착의 지모신(地母神)신앙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한 관음은 선도산 신모신앙과 연결이 가능하다.⁵¹⁾ 신라 불교신앙 내에 융합되어 있는 토착신앙은 대체로 선교신앙적인 것으로,

신라 하대에 오면 선·불 내지 도·불을 같이 이해하려는 경향이 확산되어 갔다. 실제로 장흥 보림사에서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성립시킨 체징(體澄, 804~880)은 도교의 도(道)를 선종의 깨달음과 연계시켜 같이 파악하였다. 신라 하대에 선사들이 사원을 개창(開倉)하려 할 때에 풍수지리(風水地理)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해의 밑바닥에는 선교적인 사고가 깊이 배어있었다. 최치원은 지증대사비에서 유불선 3교의 융합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증대사비의 서문에서 유불 2교가 융합될 수 있음을 인(仁)의 논리로 설명하였다. 그것은 유교의 인을 매개로 불교의 자비를 아우르고자 하여, 부처를 능인(能仁)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유불의 융합 논리는 오상(五常)으로 설명되었다. 곧 동방이 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이의 유순한 성품이 상고로부터 내려오는 은은한 교화여서 부처의 바다 같은 가르침을 가져오게 하였다⁵²⁾는 것이다. 이로 보면 삼국시대 화랑도에서 유불선 3교의 융합이 중앙에서 시작되어 신라 하대에 이르면 선종의 보급과 함께 지방민에게도 교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49) 『三國史記』 권 9, 新羅本紀9, 효성왕 2년 4월조.

50)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4, 진흥왕 37년조.

51) 鄭璟喜, 「三國時代社會와 仙道의 研究」, 『史學研究』 40, 1989, 81쪽.

52) “敍曰 五常分位 配動方者曰 仁心 三教立名 顯淨域者曰 佛仁 心即佛 佛目能仁則也 道郁夷柔順性源 達迦衛慈悲教海”(南東信,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176쪽)

제 5절 신라 말기의 호족과 후삼국

1. 지방호족의 등장

1) 호족 등장의 역사적 배경

신라 말기의 지방사회에는 새로운 독자세력으로서 호족(豪族)이 대두하였다. 그것은 신라 중앙의 정치적 파탄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신라의 정치적 모순은 통일신라 중대(中代)에 이미 싹트고 있었다. 신라의 전통적 신분제도인 골품제(骨品制)가 그것인데, 골품제는 신라가 연맹왕국으로 성장할 때 여러 족장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세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신분으로 구분한 것으로 법흥왕 때의 율령반포를 계기로 성립한 것이다. 골품제는 중앙과 지방을 엄격히 구분한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골품제는 원래 성골(聖骨)·진골(眞骨)·6두품(頭品)·5두품·4두품·3두품·2두품·1두품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왕족은 주로 진골과 성골이고 귀족들은 6두품에서 4두품에 위치하고 있다. 7세기 중엽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은 소멸되어 진골인 김춘추가 즉위하여 태종무열왕이 되었다. 8세기 이후 원래 3두품에서 1두품까지도 있었지만 이들은 평민화 하여 특권신분으로 구분되지 않게 되어 백성으로 통합되었다.

태종무열왕 이후 성립된 중대(中代)왕실은 150여 년간 진골인 무열왕계가 왕위를 세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신문왕대에 왕의 장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처음부터 외척이 왕권을 위협하였다. 중대 왕실에서 외척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는 효성왕(孝成王)때부터이다. 중대의 왕위계승은 왕비의 소생이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국왕은 왕비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출궁시키고 다시 왕비를 맞아들이고 후사를 얻어 왕위를 이었다. 외척 김순원은 성덕왕(聖德王)과 그 아들 효성왕(孝成王)에게 연이어 왕비를 납비(納妃)하였는데, 이는 왕실의 혼인관계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다음 김순정 가문은 경덕왕(景德王)에게 선비(先妃)와 후비(後妃)를 납비하였다. 이로써 효성왕 이후 외척은 점차 권력을 장악하고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혜공왕대에 이르러 김순정 가문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외척 가문의 핵심 인물인 김웅은 ‘검교사·병부령·전중령·사어부령·수성부령·감사천왕사부령·검교진지대왕사사·상상·대각간(檢校使·兵部令·殿中令·司馭府令·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檢校眞智大王寺使·上相·大角干)이라 하여 김유신을 훨씬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즉 국가원로회의인 재상회의의 수장인 상상, 군사권을 장악하는 병부령, 왕실 업무를 총괄하는 전중령 등의 주요 관직을 차지

하고 전횡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진골귀족들은 외척을 타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외척을 제압할 만큼 세력이 결집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외척의 전횡이 극에 달한 혜공왕(惠恭王) 말기에 이르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이 결집하였는데, 그들은 김양상·김주원·김경신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대표는 김양상이었다. 780년(혜공왕 16) 김지정의 난을 계기로 김양상 등은 반란을 진압하고 혜공왕을 폐위시켰으며, 김양상은 성덕왕의 외손으로 왕위에 올라 선덕왕(宣德王)이 되었다. 중대 왕통의 마지막 계승자인 선덕왕의 사후에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김경신이 상대등으로서 권력의 핵심에 서서 780년 이후의 정세를 주도하게 되었고, 785년 선덕왕이 사망하자 원성왕(元聖王)으로 즉위하여 이후부터 원성왕계가 왕위를 세습하여 하대(下代)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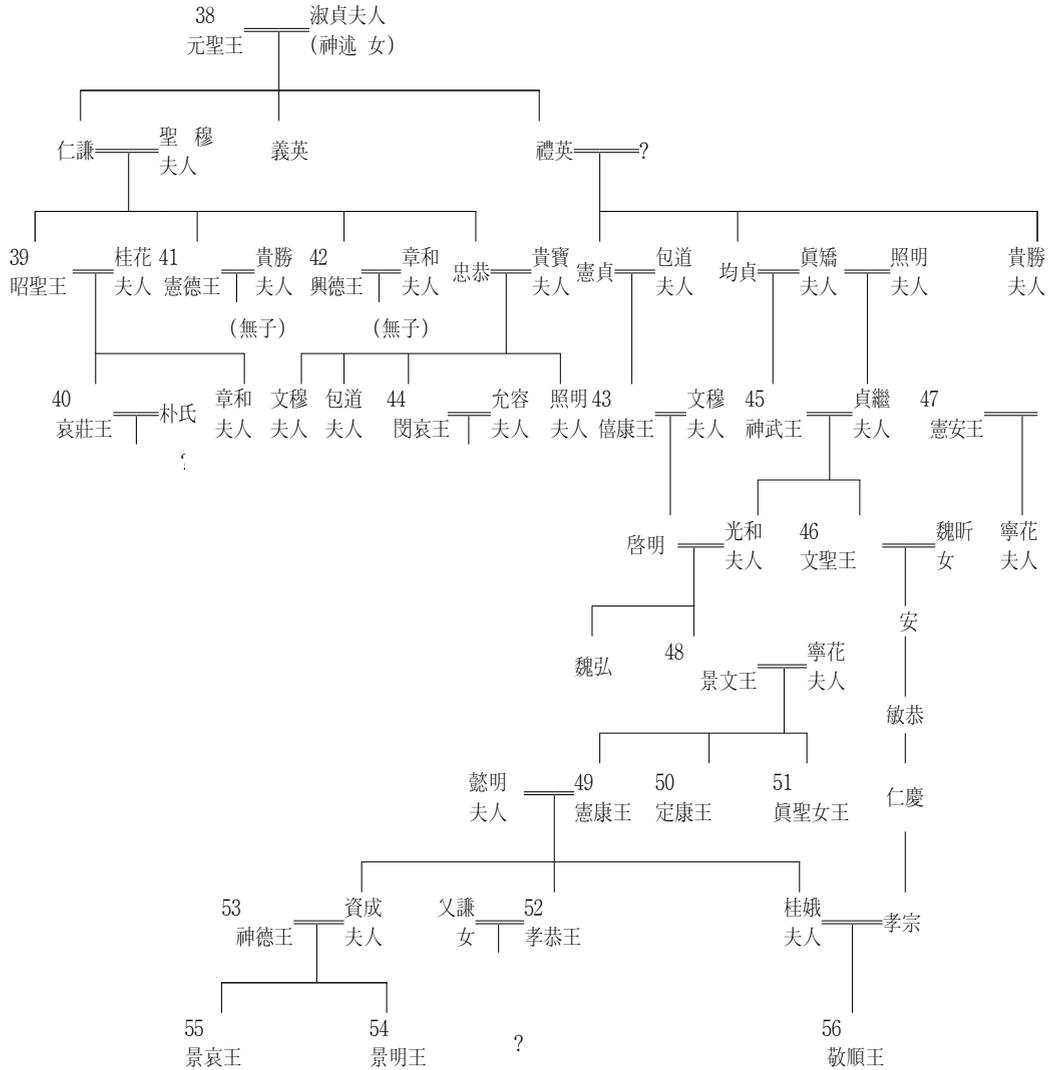
하대에 이르면 국가 지배체제의 근간인 골품지배체제가 동요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진골의 수적 증가로 인하여 권력투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단초는 왕위계승을 두고 원성왕계 내부의 왕족끼리 다투었을 때 왕위계승 후보자들 가운데 유력한 왕족에게 진골 귀족들이 지원하여 반란이 격렬해졌기 때문이다. 하대 왕실이 열릴 때부터 왕위계승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김주원과 김경신의 왕위다툼이다. 아들이 없었던 선덕왕의 후계구도는 무열왕계 가운데 남은 방계 가문의 하나인 김문왕계로서 김주원이 유력하였다. 신라의 왕위계승원리 상으로 보면 적장자·적자·방계·사위의 순으로 왕위계승이 이루어지는데, 선덕왕 사후 적자가 소멸되어 김춘추의 셋째 아들 김문왕의 후손인 김주원이 무열왕계의 방계로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한 비상시국에서는 변수가 작용하였다. 김주원은 혜공왕 말년 시중을 역임하고 선덕왕대에는 상재(上宰)로 존재하여 차재(次宰)에 있던 김경신보다 우위에 있었다. 소극적인 김주원과 달리 김경신은 혜공왕 때에 김양상과 함께 적극적으로 난국을 타개해 나갔으며, 이로 인해 선덕왕이 즉위하면서 상대등이 됨과 동시에 재상회의의 제2인자로서 당시 권력구조 상에서 실세를 이루고 있었다. 선덕왕의 사후에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점과 중대왕실과 친연관계에 있던 진골 가문들이 거의 사라지고 김주원 가문만이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의 상황에서 유리한 쪽은 당시의 난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김경신이 국민들의 여망을 얻어 결국 김경신이 왕위에 올랐다. 이후 김주원은 정계에서 은퇴하고 강릉으로 이주해 버렸다.

신라 하대에 혼란이 시작된 것은 왕위계승의 문란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왕위계승은 난관에 부딪혔다. 인겸·의영·예영 등 원성왕의 적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버린 것이다. 원성왕 사후 왕위는 손자이자 인겸의 아

들이 소성왕으로 즉위하였고 그의 아들이 애장왕(哀莊王)으로 뒤를 이었으나, 숙부 김언승이 쿠데타를 일으켜 조카를 몰아내고 헌덕왕(憲德王)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력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는 왕위계승의 문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신라 하대의 왕위 계승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표



위의 <표 5>를 참조해 보면 신라 하대 왕위계승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가 없는 경우 상대등이 왕위계승의 제일 후보자로 이해한 견해가 통설로 되어 있지만, 이

는 하대의 정치사에 보이는 외형적 현상으로 수긍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성왕계는 대부분 세 가지의 계승원리를 준수하면서 국왕이 생전에 태자 또는 부군으로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대 왕통의 경우에는 전체 20왕 중에서 12왕이 방계계승으로 가장 많고 적자계승이 5왕, 여서계승이 2왕, 그리고 여왕계승이 진성여왕(眞聖女王)1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대의 왕들 가운데 적자계승을 한 왕은 소성왕·애장왕·문성왕(文聖王)·헌강왕(憲康王)·경명왕(景明王) 등이 있다. 방계로서 왕위를 계승하여 가장 많다. 흥덕왕(興德王)은 아들이 없던 헌덕왕(憲德王)을 부군(副君)으로 책봉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다. 정강왕(定康王)은 헌강왕(憲康王)의 동모제(同母弟)로서, 경애왕(景哀王)은 경명왕의 동모제로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헌안왕(憲安王)은 조카인 문성왕의 고명으로 즉위하였는데, 그는 신무왕(神武王)의 이모제(異母弟)이다. 다음은 여서 즉 사위[부마(駙馬)]가 왕위를 이은 것이다. 경문왕(景文王)은 회강왕의 손자로서 헌안왕의 부마가 되어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효공왕(孝恭王)이후 왕위계승은 김씨가 아닌 박씨가 등장하여 이채롭다. 박씨인 신덕왕(神德王)은 헌강왕의 부마로서 여서 계승을 한 이후, 신덕왕의 아들들 즉 경명왕과 경애왕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왕위계승체계에 혼란이 일어난 유형은 방계계승이면서도 정변에 의한 왕위계승이다. 헌덕왕은 소성왕의 동모제로서 조카 애장왕을 축출하고 왕위를 이었다. 회강왕(僖康王)은 원성왕의 자인 예영의 손인데, 흥덕왕 사후 후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변을 일으켜 예영계 최초의 왕이 되었다. 이는 당시 왕위계승에 대한 원칙이 고수되지 않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민애왕(閔哀王)은 인겸계의 마지막 왕으로 이를 끝으로 원성왕계 내부의 장자인 인겸계의 왕통은 단절되고 같은 원성왕계의 방계인 예영계가 왕통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은 신라 국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말기에 이르면 효공왕은 헌강왕의 서자로서 진성여왕이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이 경우는 왕실의 서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최초의 예로서 방계계승이라 볼 수도 있으나, 신라의 전통에 입각한 정상적인 왕위계승으로 볼 수 없다.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은 진성여왕부터 시작하여 말기까지 지속되어 더 이상 신라 국왕의 존재성을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왕의 왕위계승이 문란해져 가는 와중에 일어난 반란이 822년 김헌창의 난이다. 김헌창의 난은 작계는 원성왕계 귀족들과 무열왕계 귀족들 간의 제2차 왕위계승전이었고, 크게는 신라 하대에 계속된 크고 작은 왕위계승전들 가운데 하나였다. 785년 선덕왕이 죽

고 후계가 없었을 때, 김헌창의 아버지 김주원은 무열왕계 왕족 중 가장 유력한 세력으로 귀족들에 의해 왕위에 추대되었으나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원성왕이 즉위한 사실을 두고, 37년 뒤에 이르러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정치 변화 속에서 김헌창을 비롯한 김문왕계 집단들은 몇 년 안에 반발하지 않고 3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직 몰락하지 않고 여전히 중앙정계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주원이 명주로 물러난 뒤, 신라 하대에 원성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왕계 후손들은 중앙정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김헌창도 처음에는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였다. 807년(애장왕 8)에는 시중(侍中)이 되어 당시 원성왕의 후손으로 권력의 실세였던 상대등 김언승(훗날의 헌덕왕)에 버금가는 실력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809년 김언승이 애장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자, 이듬해 1월 시중에서 밀려났다. 헌덕왕이 즉위한 이후 원성왕계의 견제를 받아 지방관으로 좌천되어 중앙정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약해졌다. 813년(헌덕왕 5)에는 김헌창은 무진주(武珍州: 지금의 광주광역시)의 도독, 816년에는 청주의 도독이 되어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821년에는 웅천주의 도독으로 전보되었다.

특히 헌덕왕 일파의 견제를 받는 가운데 웅천주도독으로 전보된 이듬해 822년에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김헌창이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당시 김헌창이 반란의 명분을 표방한 것에 불과하며, 김문왕계가 중앙정계에서 밀려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귀족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왕위에 추대된 김주원이 왕위에 즉위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봉기한 점은 원성왕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 및 당시 원성왕계 왕실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거사에 대한 합리화인 동시에 과거 김주원을 지지했던 귀족 세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명분이기도 했다. 단기간에 진압되었던 다른 반란과 달리, 이 반란은 무열왕계와 원성왕계 양 세력의 충돌로 비화되어 전국을 휩쓰는 일대의 내란으로 전개되었다.

반란 세력은 단기간에 무진주완산주청주사벌주 등 4개 주를 장악하고, 국원경서원경금관경 등 3소경의 사신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까지 복속시켰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이 삽시간에 장악된 것은 이들 지역에 반란 세력과 내통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의 9주5소경 가운데 한산주삭주명주삼랑주 및 북원경남원경이 온존하였으나, 신라 지방의 절반이 반란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반란 세력이 장악한 지역은 신라 9개 주 가운데 4개 주에 이르렀는데, 이는 충청도·전라도 지역과 경상도의 서반부와 남부에 해당하는 범위로 경상도 동남부의 양주와 그로 둘러싸인 수도 서라벌을 포위하고 있는 형세였다.

당시 청주에서는 청주 도독 향영(向榮)이 추화군(推火郡)으로 비상 탈출을 했는데, 이와

같이 반란 세력에 동조하지 않은 부류들은 피신하거나 탈출해 중앙 정부에 반란이 발생했음을 보고하였다. 초기 반란 세력의 기세는 인근 일대까지도 압도했는데, 삼량주 굴자현의 경우는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반란 세력에 휩쓸리지 않은 공으로 7년간이나 조세를 면제받았을 정도였다.

김헌창의 난은 반란의 중심 거점이 웅천주라는 지방이었지만, 반란에 동조하는 세력과 중앙 왕실에 동조하는 양대 세력으로 신라 전체가 양분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규모의 내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 역사상 최대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방 세력들이 신라 중앙정부의 혼란상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난이 일어나자 우선 원장(員將) 8명을 보내 왕도의 8방을 수비하게 한 다음에 반란군의 진압을 위해 계속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장군들은 대부분 원성왕계 후손이거나 그들과 밀접한 친연 인물들이었다. 즉 일길찬 장웅이 선발대로 가고 잡찬 위공과 파진찬 제룡이 뒤따라갔으며, 이찬 균정 및 그의 아들 대야찬 김우징(훗날의 신무왕)·잡찬 웅원 등이 주력 부대인 3군을 맡아 정벌하러 갔다. 그리고 각간 충공(忠恭)과 잡찬 윤응은 문화관문(蚊火關門 : 관문성)을 지키게 하였다. 이 밖에도 2명의 화랑이 낭도들을 이끌고 참전하기도 하였다.

당시 토벌군이 출동하자 김헌창은 전략상의 요충지에 병력을 배치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삼년산성(三年山城 : 충청북도 보은) 방면의 반란군이 정부군에게 격파되었고, 이어 장웅의 부대와 합류한 위공·제룡의 연합군에게 삼년산성마저 함락당하자 결국 속리산에 배치된 병력까지도 섬멸당했다. 그리고 성산(星山 : 경상북도 성주)의 반란군도 김균정 등이 이끄는 주력 부대에게 패하였고, 웅진에 진을 친 반란군도 공격을 받아 10일 정도 버티다가 함락되었다. 난이 진압되자 반란 세력에 대한 무장 해제와 대규모의 처형이 일어났다. 김헌창은 참시되고, 이에 동조한 종족(宗族)과 도당 239명이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반란 세력에 의해 병졸로 동원된 노비나 일반 양민은 방면·해산되었다. 또한 당시 사형을 당한 김헌창의 종족은 반란에 직접 가담한 친척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김헌창 형제의 자손과 근친은 대부분 살아남아 중앙정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였다.

김헌창의 난으로 무열계 귀족들은 크게 몰락하였다. 반란에 가담한 많은 귀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비록 사형은 면제되었을 지라도 골품제에서 신분이 강등되거나 장원(莊園) 등의 경제적 기반을 몰수당한 세력들도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면 선종(禪宗) 구산문(九山門) 가운데 하나인 성주산문(聖住山門)의 개산조(開山祖)인 낭혜화상(朗慧和尚) 무염(無染)의 아버지 범청(範淸)도 무열왕계 후손으로 김주원계와 연관이 되어 진골에서 6두품으로 족강(族降) 당한 부류들도 있어 그 처벌의 범위가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난을 분기점으로 무열왕계는 중앙에서 활약을 하더라도 원성왕의 후손들이 주축이 된 각 귀족의 파벌에 가담하는 정

도여서, 중앙 정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다. 김헌창의 아들 범문(梵文)은 당시 토벌군의 진압과정에서 피신해 목숨은 부지했다. 그리고 3년 뒤인 825년 고달산의 산적 수신과 함께 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다. 이로써 무열왕계 후손들은 왕위 계승 쟁탈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한편, 김헌창의 난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백제권역에 새 국가를 건국하려고 시도한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김헌창이 백제의 중심지라 할 웅천주의 도독으로 부임한지 채 1년이 못 되어 반란을 실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백제 지역이 신라에 대한 반감이 매우 오래도록 상존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세기 말에 견훤(甄萱)이 전라도 지역에서 후백제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연원이 있다. 또한 고구려의 옛 권역도 비록 김헌창의 난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라 편에 서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훗날 김헌창의 아들 범문이 한산(漢山)을 근거로 다시 반란을 일으켰던 데에는 고구려권의 호응을 내심 기대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신라는 삼국으로 다시 분리될 소지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9세기 말에 궁예(弓裔)가 이들 지역에서 후고구려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연원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토지제도의 문란에 의한 국가의 경제적 파탄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보수대우하려는 제도에서 마련되었다. 520년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할 때 관등제나 관료제의 정비와 관련되어 그때부터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신라의 녹읍은 689년(신문왕 9)에 폐지되었다가 757년(경덕왕 16)에 부활되었다. 799년(소성왕 원년)에 국학(國學)의 학생들에게도 녹읍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하므로, 신라 하대에는 녹읍제가 계속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녹읍의 지급 대상범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우선 녹읍이 폐지되기 이전에도 매년 일정량의 조를 지급하는 세조(歲租)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녹읍은 대야찬 이상의 관등을 가진 진골귀족에게, 세조는 아찬 이하의 관등을 가진 6두품 이하에 지급되었다. 한편 관등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내외관, 즉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료들이 녹읍을 받고 있었다.

원래 녹읍을 폐지하고 백성정진을 지급한 목적은 국가가 민전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데 있었다. 즉 중대의 집권세력이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면서 전국의 촌락과 일반민, 그리고 토지에 대한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농민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재정기구의 정비 및 재정의 확보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경덕왕 때에 이르러 녹읍을 폐지함으로써 다시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확대되고 하대에 이르러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원찰(願刹) 등을 통하여 대토지 소유를 확대하고

백성의 토지가 침탈되어 갔다.

2) 호족의 대두

하대에 이르러 중앙정치의 문란으로 지방통제력이 약화되고 귀족의 토지 침탈로 지방민의 경제적 기반이 점차 약화되어 생존권이 위협 당하게 되었다. 전국 각처에서 일정한 지역을 점거하고 그곳에 자기의 세력을 펴고 있던 독립적인 존재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호족(豪族)이라 한다.

이들은 원래 국가의 지방통치에 협력하면서 자신의 신분적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유지해왔던 재지의 토착지배층은 민의 보호를 통해서만 자신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점차 군현 단위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만들어갔다. 특히 진성여왕의 즉위는 중앙정치의 불신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재지세력에는 몰락해 내려간 중앙 귀족이 지방에서 새로 기반을 닦은 경우도 있었으며,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있던 관리가 스스로 독립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군현의 행정체계 밑에서 촌락민을 통제하는 구실을 담당해온 촌주 출신이었다. 하대에 이르러 이들은 중앙의 가혹한 수탈에 대항하면서 개간과 수리사업 등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토지를 겸병하며 세력을 확대하는 한편, 도적들의 약탈로부터 자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갖추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당과의 대외무역으로 경제적 기반을 확대한 해상세력가도 등장했는데, 청해진의 장보고를 비롯하여 강주(康州, 진주)지방에서 독립적 세력을 누리며 후당(後唐)과 통교하기도 했던 왕봉규(王逢規)와 송악(松岳, 개성)지방에 근거를 두었던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作帝建)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 남양이나 나주와 같이 해상무역이 번성하던 곳에도 해상세력가들이 상당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신라는 국경의 수비를 위해 변경지대에 군진을 설치했는데 782년에 설치한 패강진(溟江鎭 : 황해도 평산)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해적들의 횡행이 심해지자 해안의 요지에도 군진을 두어 청해진(淸海鎭 : 전남 완도)·당성진(唐城鎭 : 경기도 화성)·혈구진(穴口鎭 : 강화도) 등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군진들은 중앙통제력이 약화된 신라 하대에 지방 세력가에게 군사적인 힘을 제공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호족들은 광대한 장원과 막대한 사병을 거느리고 성주나 장군으로 자처하며 전국 각처에서 일정한 지역을 점거하고, 그곳에 자기 세력을 펴고 있던 독립적 존재로서 각기 독자적인 행정조직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6두품 출신의 선종 승려나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중앙의 진골귀족과 골품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적 경향을 지녔으며, 신라 말기 대두한 반정부세력과 제휴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일부 유학생이나 6두품 중 비판적이었던 일부 지식인, 또 당시 교종 중심의 불교계의 타락상과 교리를 비판하면서 성립된 선종(禪宗)의 교리를 공부한 선승과 이들이 개창한 선문(禪門) 중심의 선사들은 신라의 골품제사회를 비판하면서 지방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지방 세력과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3) 독자 정부의 구성

신라 하대 말기에 대두한 지방의 호족들은 신라 중앙의 관제를 모방하여 간결하게 독자적인 통치조직으로서 호부병부창부 등의 자치적인 관반(官班)체계를 갖추었는데, 그것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신라 말기 호족의 자치 관반

┌ [호부(戶部) : 행정] : 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집사(執事)
 당대등 - 대등 + [병부(兵部) : 군사] : 병부경(兵部卿)－연상(筵上)－유나(維乃)
 (堂大等) (大等) └ [창부(倉部) : 재정] : 창부경(倉部卿)

이들 호족은 대외적으로 성주장군을 호칭하여 위엄을 과시하는 한편, 단위지역 내부에서는 당대등대등 등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들 집단 나름대로 통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당대등은 지방 호족세력의 관반 직제 중에서 최고의 직위로서 원래 대등은 신라 대등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왕위의 계승과 폐위, 전쟁에 관련되는 것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다.

관반체계의 전체 구조는 호부병부창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단위지역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호부는 제1등관이 낭중이고 그 다음이 원외랑·집사의 순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호구를 파악하여 호적을 작성하고 군인 징발이나 조세징수의 기본 자료를 확보하였다. 군사권을 담당하는 병부는 제1등관이 병부경이고 그 다음이 연상·유나의 순으로 구성되어 호적을 바탕으로 군역대상자를 파악하여 전쟁 때에 군인으로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창부는 제1등관이 창부경만 전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는 창지기[倉直] 등이 있어 창고를 지키고 물자의 출납 운반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들 관명도 신라 중앙의 관직명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낭중·원외랑 등 중국화된 직명도 있다. 유나와 집사는 말단에 위치하였는데, 특히 유나는 불교 승관직의 명칭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것이고 중앙관제의 사(史)에

비견되는 것이다.

2. 후삼국의 성립과 전쟁

1) 후삼국의 성립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대 구분의 한 시기로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태봉마진)-고려의 세 나라가 정립했던 시대이다. 신라는 말기에 이르러 통치력이 약화되고, 각 지역에 호족 세력이 할거하는 가운데 과도한 조세의 부과로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면서 군웅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견훤·궁예 등을 들 수 있는데, 견훤은 백제의 부흥을, 궁예는 고구려의 부흥을 내걸고 각각 후백제, 후고구려를 세웠다. 그 시기는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한 892년(진성여왕 6)부터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태조 19)까지의 45년간을 후삼국시대라고 한다. 후삼국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라 말기에는 왕위계승쟁탈전을 비롯하여 지배 계급의 분열 대립이 격화되어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통치력이 점차 약화되어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지방에서는 중앙 정권에서 떨어져 나온 귀족이나 지방의 세력가들이 불교 사원, 해외 무역, 군진 세력, 촌주의 지위 같은 것을 배경으로 호족으로 성장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지방 분권적인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지방의 여러 고을로부터 조세를 거두지 못해 국가 재정이 궁핍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신라 사회는 분열되었으며, 더 이상 국가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었다.

신라 중앙의 통치력이 붕괴되고 지방 분권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각지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원래 지방민들은 훨씬 전부터 과도한 조세의 부담과 가혹한 역역의 징발 때문에 유망의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반면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와 퇴폐적인 향락 생활로 더욱 심화된 수취 체제의 모순뿐만 아니라, 국가 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된 부담의 가중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압박에 시달리던 지방민들은 유민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 다니거나 세력 있는 귀족들의 장원(莊園)에서 투탁하여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사병이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무리를 지어 도적이 되어 관청·사원 등을 습격하거나 지역의 부유층을 약탈하는 등으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889년 진성여왕의 조세 독촉을 계기로 마침내 폭발해 전국적인 내란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배층에서의 통치력 붕괴와 하층에서의 각종 조세의 과중은 신라를 쇠망의 길로 이끌었으며, 각종 반란으로 후삼국이 성립하게 되었다.

내란은 진성여왕 대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각지의 많은 반란 세력들 중에서 뚜렷한 것

은 사벌주의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죽주(竹州 : 경기도 안성)의 기훤(箕萱), 북원(北原 : 강원도 원주)의 양길(梁吉), 완산주의 견훤, 철원(鐵圓 : 강원도 철원)의 궁예 등으로 이들은 모두 지방민의 불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때는 신라의 골품제 등과 같은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제한이 쇠퇴하고 오직 실력으로 약육강식을 자행하는 전란기로 변하여 무수한 군웅이 들고 일어나 할거하게 되었다. 수많은 반란 세력 중에서 호족세력을 규합하여 정권을 수립해 신라와 대항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바로 견훤과 궁예였다. 견훤은 옛 백제의 유민을 바탕으로 백제를 부흥시킨다는 구호를 내걸고 후백제를 건국했고, 궁예는 옛 고구려의 유민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부흥시킨다는 구호를 내걸고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그 이후 견훤은 전제 군주로서 행세하면서 신라를 적대시하고 궁예와 왕건의 대립자로서 존재하였다. 궁예는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고치고 서울을 철원으로 옮기더니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해 미륵불을 자처하며 전제주의를 강화해 나갔다.

견훤은 사벌주 출신으로 서남 지방 방수군(防戍軍)의 비장(裨將)으로 있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큰 뜻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남 지방의 주현(州縣)을 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호족세력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군사 5,000명에 이르렀으며, 892년에는 무진주(武珍州 : 광주광역시)를 점령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어 서남 지방 각지의 호응을 얻어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900년(효공왕 4)에는 마침내 완산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부흥과 신라의 타도를 표방하면서, 정식으로 후백제의 왕을 자칭하고 관직을 설치해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 후백제의 판도는 한때 경상도 서부까지 세력을 뻗었는데 대체로 충청남도의 중부에서는 태봉과 대치하고, 남쪽으로 전라남도의 서남부에서는 왕건의 수군과 다투었으며, 동쪽으로는 상주합천진주를 잇는 지역을 전선을 구축하여 한때는 안동영천경주 등지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신라 왕실 헌강왕의 서자로 자칭하였던 궁예는 처음에 세달사(世達寺)의 중이 되어 이름을 선종(善宗)이라 했는데, 세상이 소란해지자 891년에 죽주의 반란군 두목 기훤에게 투신하였다. 그러나 기훤이 거만해 함부로 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북원의 반란군 두목 양길에게 투항하였다. 궁예는 양길의 군사를 나누어 동쪽 10여 군을 공략해 모두 점령한 뒤에 명주(溟州)에 들어가 그 곳 지방 세력의 후원으로 병력을 늘리고 장군으로 추대되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영서 지방으로 넘어와 여러 군현을 점령하고 철원에 도읍하니 그의 위세가 사방에 떨쳐 황해도를 비롯한 각지의 지방 세력들이 귀순해 왔다. 세력이 커진 궁예는 895년에 내외 관직을 설치해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다음 해에는 송악군(松嶽郡 : 경기도 개성)의 호족인 왕룡·왕건 부자 등 패강지역의 많은 호족이 귀순해오니, 이때의 판도는 강원·

경가황해 등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과거 궁예의 주인이었던 양길을 격파하고 901년 고구려의 부흥과 신라의 타도를 표방하며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후고구려라고 하였다. 그 뒤 904년에 국호를 마진으로 고치고 연호를 무태(武泰)로 정했으며, 이듬해에는 다시 연호를 성책(聖冊)으로 고치고 서울을 철원으로 옮겼다. 911년에는 다시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 하고 914년(신덕왕 3)에는 연호를 정개(政開)로 고쳤다. 이후 궁예는 휘하의 장군 왕건 등을 보내 각지를 공략하도록 하여 강원·경기·충청북도의 전부와 평안남도의 일부, 충청남도의 북부, 경상북도의 서북부, 그리고 금성(錦城 : 전남 나주) 등 전라남도의 서남부를 점령하면서 당시 후삼국 판도의 ⅔를 차지하는 최대의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미륵불이라 자처하며 만아들을 청광보살(靑光菩薩), 작은아들을 신광보살(神光菩薩)이라 칭하는 등 권력을 강화하여 독재적인 성향을 보였다. 918년(경명왕 2)에 궁예는 그에 반대하던 부하들에게 축출당하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면서 국호를 고려라고 정함으로써 마침내 후삼국은 신라·고려·후백제의 정치(鼎峙) 상황으로 바뀌었다.

먼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과거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이었던 지역의 백성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신라는 진성여왕 이후 다섯 왕이 재위하는 동안 국토의 전체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원만 통치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감안해 보면, 이 시대는 중국에서도 당나라가 907년에 망하고 오대(五代)로 교체되며, 북중국에서는 거란(契丹)이 세운 요(遼 : 916~1125)나라가 등장하고, 남중국에서는 오월(吳越 : 908~978) 등이 등장하는, 이른바 오대십국시대(五代十國時代)였다. 중국이 혼란했던 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외세의 간섭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후삼국은 자주적으로 민족통일에 임할 수 있었다.

2) 후삼국의 대립과 전쟁

고려는 그 전신인 태봉 때부터 신라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후삼국의 패권 다툼에서 후백제 견훤(甄萱)은 고려와 신라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고려 태조 왕건은 이와 달리 유화적인 외교정책을 취하는 평화주의자였다.

그 와중에 경상도지역은 고려와 후백제의 쟁쟁지역이었다. 사실상 후삼국의 패권 다툼은 고려와 후백제 간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고려와 후백제의 다툼은 신라의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 일대에 대한 작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경상도 일원의 지배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이 패권 다툼의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당시 신라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쇠약해져 경상도 일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

고 있었으므로, 고구려와 후백제 가운데 누가 이들을 먼저 복속시키느냐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왕건은 후백제의 견훤으로부터 여러 번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의 친신라 외교정책은 신라 왕실을 비롯해 각지의 세력자가 고려로 기울어지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호족 가운데 투항하여 귀순해 간 곳은 대부분 고려였다. 918년 고려가 성립되자 상주의 대호족 아자개(阿茲蓋)가 투항해 오고 922년에는 의성의 진보성주(眞寶城主) 홍술(洪術)이 내부(來附)해오고 925년 영천의 고을부(高鬱府)장군 능문(能文)이 투항해오으로써 소백산맥 이남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다. 921년에는 흑수말갈(黑水靺鞨) 추장들이 항복해 오으로써 모피 등 군수에 중요한 북방물자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922년에는 명주장군(溟洲將軍) 김순식(金順式)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궁예와 대치하면서 오랫동안 굴복하지 않고 고려 건국 후에도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왕건은 당시 고려 왕실의 내원(內院)에 머물러 있던 순식의 아버지인 승려 허월(許越)을 움직여 고려로 귀부시키고 왕실의 성인 왕씨(王氏)를 하사하여 특별히 우대하였다. 이로써 명주 등 동해안 지역의 군소 호족들도 고려 편을 들게 되었다.

심지어 후백제의 호족인 연산(燕山) 매곡(昧谷 : 지금의 충청북도 청원)의 장군 공직(龔直)도 맏아들 직달(直達), 둘째아들 금서(金舒)와 딸 한 명이 견훤의 볼모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훤의 무도함을 보고 탈출한 직달과 함께 932년 아들 영서(英舒)도 같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경남지역에서도 중요한 호족들이 고려에 투항하였다. 청주지역에는 세력이 큰 호족들이 많았다. 함안에 근거를 둔 강주장군(康州將軍) 윤웅(閔雄)은 920년(태조 3) 고려 태조에게 곡물을 바치고 그의 아들 일강(一康)을 인질로 보내 투항의 뜻을 밝혔다. 이에 고려 태조 왕건은 일강을 아찬에 임명하는 한편, 낭중 춘양(春讓)을 강주에 파견하여 그를 잘 위무하였다. 그 뒤 신라를 완전히 배반하고 고려로 귀순하였다. 그해 10월에 후백제 견훤(甄萱)이 대야성(大耶城 : 합천)을 함락시키고 진례성(進禮城 : 김해시 진례)으로 진격해오므로 태조가 원군을 보내자 견훤이 후퇴하였다. 이로써 서부 경남도 대부분 고려 편에 들어갔다. 신라 말기에 지방세력으로서 대외적 교섭을 독자적으로 벌인 예는 청해진(淸海鎭)의 장보고(張保臯)를 비롯하여 각지에 할거하고 있던 군소 지방호족으로서 대중국교섭을 독자적으로 행한 대표적인 사람은 왕봉규(王逢規)였다. 왕봉규는 강양군(江陽郡) 영현 의상현(宜桑縣 : 혹은 천주현(泉州縣), 경남 의령)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강주지역도 석권한 대호족으로 권지강주사(權知康州事)를 칭하고 해외무역을 활발하게 행하여 927년에는 후당(後唐) 명종(明宗)이 왕봉규를 회화장군(懷化將軍)으로 봉하기도 하였다. 927년 이후의 왕봉규의 행적은 전혀 알 수 없다. 청주지역이 곧 이어 견훤의 지배하에 들어가 왕봉규의 세력은 견훤에 의해서 소멸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곧이어 고려의 반격이 있었다. 927년(태조 10) 해군장군(海軍將軍) 영창(英昌)이 장군 능식(能式)과 함께 후백제 강주 관할 하에 있던 남해도의 전이산(轉伊山)·노포(老浦)·평서천(平西川)·돌산(突山) 등 네 고을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이어 대야성(大耶城 : 경상남도 합천)을 점령하였다. 즉 후백제의 공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었으나, 다시 고려 편으로 바뀌었다.

또한 왕건은 견훤의 호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력으로 대결하기도 했으며 작전 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먼저 해군을 보내 서남 해안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후백제의 배후를 교란, 견제하고, 일본과의 내왕을 차단하였다. 특히 903년 3월에 왕건이 함대를 이끌고 서해를 거쳐 후백제의 금성군(錦城郡)을 공격, 함락시켰다. 그리고 부근 10여 개 군현을 빼앗아 나주를 설치,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는데, 금성은 후백제의 수도 무주의 외항으로 바로 코앞의 요충지이어서 위협적이었다. 서해안으로는 강력한 해군을 내왕시켜 후백제가 오월(吳越)·후당(後唐 : 923~936) 등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후백제를 포위하여 고립시켰다. 내부적으로는 소백산맥을 이용한 남진 정책을 취하였다.

왕건은 상주에서부터 성주합천을 거쳐 진주에 이르는 전략선을 확보함으로써 후백제 포위를 완성하고, 신라 일대를 고려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다. 반대로 견훤은 동진정책을 취하였다. 즉 상주에서부터 안동 쪽으로 연결되는 전략선을 마련함으로써 고려의 후백제 포위 정책을 타파하고, 경상도 일대를 후백제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두 정책이 충돌하는 경상도 서북부의 상주를 비롯해 안동·합천·진주 등지에서 자주 큰 전투가 벌어졌으며, 결국 승리는 고려가 차지하게 되었다. 927년(태조 10) 해군장군(海軍將軍) 영창(英昌) 등이 남해도의 네 고을과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고려는 서해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후백제를 곤경에 몰아넣게 되었다.

고려와 후백제 간의 패권 다툼은 신라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930년 후백제군이 안동에서 크게 격파되면서 주도권은 고려에게 넘어갔다. 이어 934년 고려는 후백제를 정면으로 공격해 웅진 이북의 30여 성을 점령함으로써 대세를 결정지었다. 때마침 후백제에서는 왕위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 아들 신검(神劍)·양검(良劍)·용검(龍劍) 등이 아버지 견훤을 유배하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에 견훤은 3개월 뒤 탈출해 고려에 항복하였다. 신라의 경순왕도 935년에 고려에 항복해 천년 사직을 끝맺으며, 이듬해 고려는 신검을 정벌하여 후백제를 통합함으로써 후삼국은 고려가 통일하게 되었다.

3) 후삼국시기의 고성

-소가야의 내력-

후삼국시기에 경남지역의 중요한 호족들이 고려에 투항하였다. 청주지역에는 세력이 큰 호족들이 많았는데, 함안에 근거를 둔 강주장군(康州將軍) 윤웅(閔雄)이 920년(태조 3) 고려 태조에게 투항 의사를 밝힌 뒤 신라를 완전히 저버리고 고려로 귀순하였다. 이에 후백제 견훤은 그 해 10월에 청주지역을 겨냥하여 대대적으로 침공하여 대야성(大耶城 : 함천)을 함락시키고 진례성(進禮城 : 김해시 진례)으로 진격해 왔다. 이에 고려 태조가 적극적으로 원군을 보내자 견훤이 후퇴하였는데, 이로써 서부 경남의 호족세력들은 대부분 고려 편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견훤의 침략성이 날로 강성해지자, 신라는 고려 왕건과 연합하여 대항하고자 하였다. 이에 견훤은 공세를 더욱 강화하여 927년에 근품성(近品城 : 지금의 상주)과 고울부(高鬱府 : 지금의 영천)를 공격한 데 이어 이어 경주로 진격해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살해하고, 왕의 족제인 김부(金傅)를 왕으로 세웠다. 이러한 행위는 역효과를 일으켜 호족들로부터 경계와 질시를 받게 되었으며, 민심은 고려 왕건에게로 향해 기울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은 회유책을 쓰지 않고 공세를 더욱 더 강화하였다. 928년에 강주(康州 : 지금의 진주)를 공격하여 300여 인을 죽이고, 또 부곡성(缶谷城 : 지금의 군위)을 공격해 1,000여 인을 참살하였다. 그럴수록 호족들의 항배는 고려에게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막강했던 견훤 세력은 929년(경순왕 3)의 고창군(古昌郡 : 지금의 안동) 전투에서 8,000여 인의 사상자를 내며 처음으로 크게 패전하면서 점차 열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이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영남지역 가운데 옛가야지역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섯 지역을 가야라고 불렀는데, 관련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라가야[라(羅)는 야(耶)라고도 한다. 지금의 함안이다] 고령가야[지금의 함녕이다] 대가야[지금의 고령이다] 성산가야[지금의 경산인데 벽진이라고도 한다] 소가야[지금의 고성]이다] … “태조 천복 5년 경자(서기 940)에 다섯 가야의 이름을 고쳤다. 첫째는 금관[김해부가 되었다.], 둘째는 고령[가리현이 되었다.], 셋째는 비화[지금의 창녕인데 아마도 고령의 잘못인 듯싶다.], 나머지 둘은 아라와 성산이다[앞의 주와 같다. 성산은 혹 벽진가야라고도 한다].⁵³⁾

문헌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야에 대해서는 6가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초기에는 5가야로 인식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원래 가야는 변한시기부터 12국으로 존속해 왔는데, 6가야는 신라식의 숫자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5가야의 경우 그 국

53) “阿羅[一作耶] 伽耶[今咸安] 古寧伽耶[今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 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阿羅 星山[同前 星山或作碧珍伽耶]” (『三國遺事』 卷1, 紀異1, 五伽耶)

명들의 시원을 살펴보면 나말여초에 해당하고 이 시기 독자적인 호족세력들이 반신라적인 명분을 제시하였으며, 940년이라는 해가 후삼국통일 이후 고려의 군현 개편이 단행된 때로서 이때 5가야의 명칭을 개정하였던 것이다.⁵⁴⁾

특히 주목되는 점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원래의 신라지역이 아닌 옛가야지역에 대해 다섯 지역을 5가야라고 지정한 점이다. 이들 5가야 지역은 후백제 견훤에 대해 반발하여 친고려적인 정치성향을 띠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 옛왕족의 제사권을 인정해주는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⁵⁵⁾

이로써 볼 때 고성지역도 친고려반후백제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고성지역의 옛날 나라이름에 대해 소가야로 후대에 알려져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에 실재한 나라는 소가야가 아니라 고자국이었던 때문에 고성지역사 인식에 커다란 문제이다. ‘가야’라는 용어는 원래 부다가야(Buddhagayā)의 음사(音寫)인 불타가야(佛陀伽耶)의 준말로서 통일신라시대 불국토신앙을 적용하여 경남 지역을 가야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며, 실재한 나라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다. 삼국시대에 가야뿐 아니라 이러한 모(謀)가야라는 오해는 비단 고성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에 대한 전통문화와 역사인식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해의 금관가야는 가락국, 고려의 대가야는 가라국, 함안의 아라가야는 안라 등으로 고쳐 불러야 하듯이 삼국시대 고성에 실재하였던 나라는 고자국임을 천명해 두는 바이다.

54) 金泰植, 『加耶聯盟史』, 일조각, 1993, 72~73쪽.

55) 선석열, 「신라사 속의 가야인들」,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581쪽.